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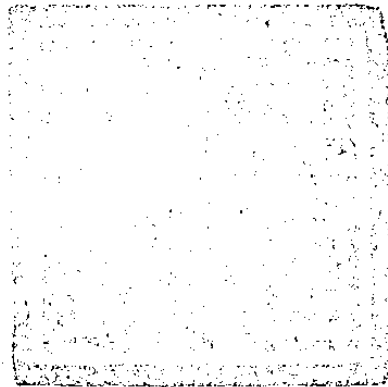
"共產主義批判"

1975. 10.

國土統一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10.



629

尹 元 求

目 次

머 리 말	5
序 論	7
第1章 共產主義 總論	13
第1節 共產主義의 뜻	13
第2節 共產主義理論의 根本主張	15
第3節 共產主義 理論體系의 特徵	16
第4節 共產主義 理論體系의 構造	18
第5節 共產主義理論의 本質과 任務	20
第6節 共產主義運動의 略史	22
第7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	27
第8節 國際共產主義와 民族主義	29
第9節 國際共產主義의 目標	30
第10節 共產政權의 本質的 任務	31
第11節 共產主義革命의 目的	32
第12節 共產主義者의 價值觀	33
第13節 共產主義者의 信條	34
第2章 赤化工作의 段階와 戰術	39
第1節 共產黨의 組織(共產黨論)	39
第2節 大衆의 支持 獲得(戰術論)	44
第3節 破 壞	54

第3章 共產主義哲學 批判	57
第1節 唯物論 批判	57
第2節 認識論 批判	71
第3節 弁証法 批判	75
第4節 史的唯物論 批判	91
第4章 共產主義經濟學 批判(1)	109
— 資本主義的 生產樣式論 批判 —	
第1節 共產主義經濟學的 任務·本質·構造	109
第2節 勞動價值說 批判	111
第3節 剩餘價值論 批判	122
第4節 資本蓄積의 法則 批判	136
第5節 資本集中의 法則 批判	138
第6節 利潤率低下 傾向의 法則 批判	140
第7節 貧困增大의 法則 批判	142
第8節 恐慌論 批判	148
第9節 階級論 批判	151
第10節 帝國主義論 批判	156
第11節 資本主義의 必然的 滅亡論 批判	163
第5章 共產主義經濟學 批判(2)	169
— 社會主義的 生產樣式論 批判 —	
第1節 이 部分의 性格·構造·重要性	169
第2節 社會主義論	175

第 3 節	現代共產主義의 本質	181
第 4 節	平和的 移行論 批判	185
第 5 節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批判	189
第 6 節	勞農同盟論 批判	195
第 7 節	生産目的論 批判	201
第 8 節	貧困根絶論 批判	204
第 9 節	經濟發展論 批判	209
第 10 節	共產主義統計論 批判	218
第 11 節	社會主義優越論 批判	219
第 12 節	리베르만 方式	223
第 13 節	共產主義社會의 透視圖와 그 評價	226
第 14 節	創造의 法則과 共產黨의 本質	231
第 15 節	生産手段의 社會化를 왜 絶對視하는가	234
第 16 節	理論의 二重的構造	236
第 17 節	共產主義段階論 批判	238



머 리 말

1. 研究 目的

이 批判은 国土統一院 1975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관한 報告 「統一問題研究를 위한 共產主義理論 批判의 再檢討」의 建議事項 中 가에 의거, 国土統一院 1975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관한 報告로서 執筆되었으며, 南北間의 對話·交流·統一에 대비한 共產主義批判 簡易教本の 試案을 提示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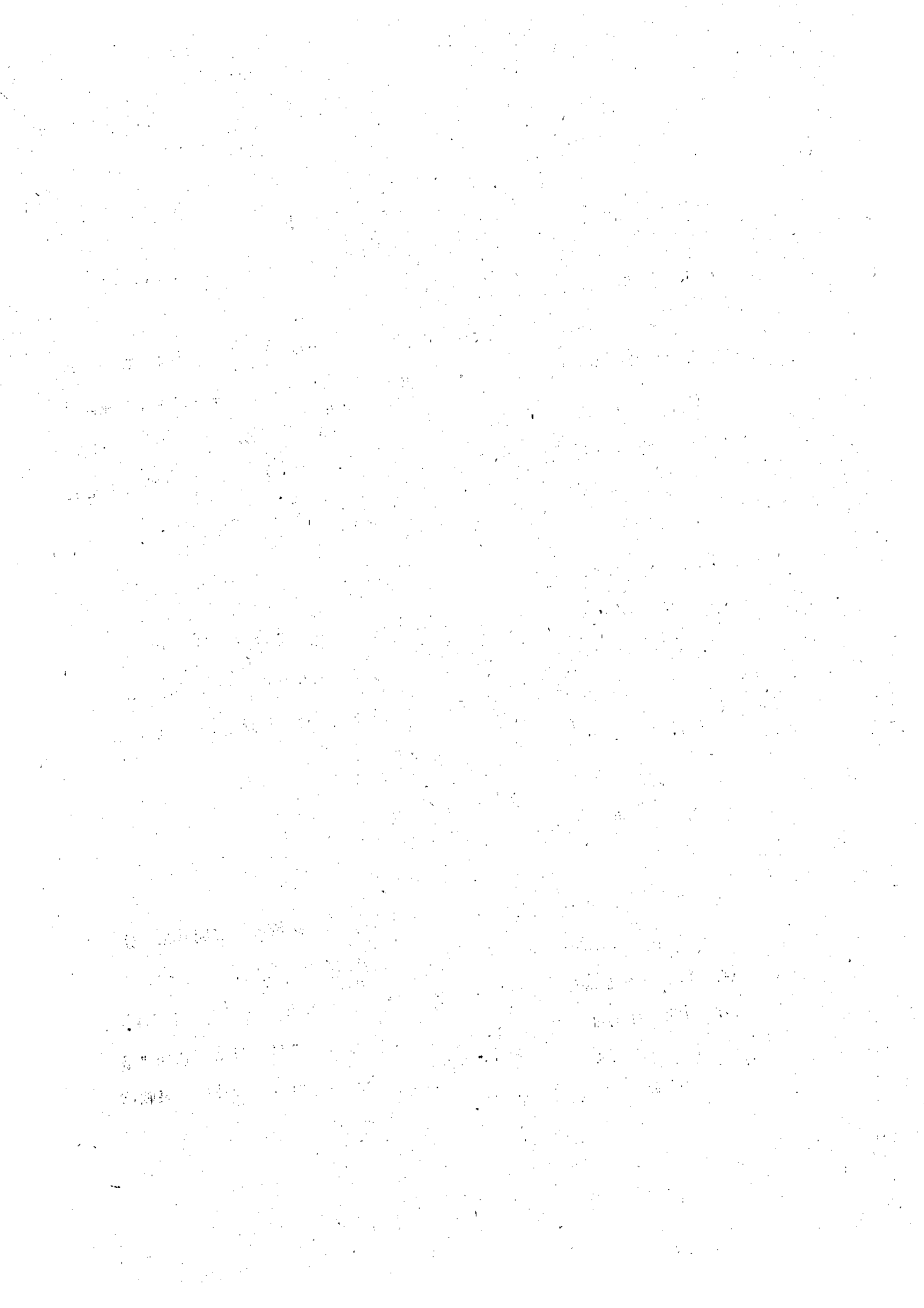
2. 研究 範圍

마르크스·레닌主義를 “革命의 科學이며 陰謀의 技術”이라고 規定하는 스탈린의 定義에 立脚하여, 共產主義의 理論과 戰術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共產主義의 理論과 運動을 概觀하는 總論을 불렀다.

3. 研究 方向

이 批判은 다음 方向에서 執筆된다.

- (1) 1956年 2月 蘇聯共產黨 第20次大会 以後에 展開되고 있는 現代共產主義理論을 主要한 批判 對象으로 한다.
- (2) 共產主義理論에 대한 正確한 理解 위에서의 批判을 기한다.
- (3) 研究 目的에 立脚하여, 共產主義에 대한 “더 나은 代案”을 提示함으로써 理論的 및 思想的 勝共을 위한 하나의 實戰的 武器로 될 것을 기한다.



序 論

(1)

1. 共産主義의 挑戰의 性格

“萬國의 勞動者여 團結하라”는 깃발 밑에서 嚴格한 國際主義를 내걸고, 1847年에 “共産主義者同盟”이 結成된 이래, 근세 共産主義 運動은 “부르주아지의 打倒와 프롤레타리아야트 支配의 성취”라는 이 一貫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武裝鬪爭을 包含한 모든 可能的 方法을 다할 것”을 되풀이 다짐해 왔다.

이와 같은 國際共産主義의 目標로부터, 이번에는 스탈린의 이른바 “勝利한 革命의 本質的 任務”가 이끌어 나온다. 즉 “다른 여러 나라들의 革命을 發展시키며 支持하는 것은 勝利한 革命의 本質的 任務이다. 그러므로, 勝利한 나라의 革命은 자신을 自足的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야트가 勝利하는 것을 促進시키기 위한 援助로서 手段으로서 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모든 共産政權의 첫째, 任務는 “革命의 擴大”에 있다는 말이니, 이른바 “도미노理論”은 이 任務 遂行의 과정을 밖에서 본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또 北傀 “勞動黨規的”이 “全國的 範圍에서 反帝 反封建的 民主革命의 課業을 完遂하는 것”을 당의 당면 目標로 規定하고 있는 것 역시 이 本質的 任務의 表明임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共産主義의 挑戰은 다음 네가지의 性格을 갖게 된다.

(1) 先挑發的 性格

우리와 共產主義者들과의 싸움은, 1847년에 내건 “共產主義者同盟”의 目的에 의하여 그들이 먼저挑發한 것이다.

(2) 二重的 挑戰

우리에 대한 共產主義의 挑戰은, 北僞와 國際共產主義로 부터 二重的으로 오고 있다.

(3) 長期的 挑戰

共產主義者들이 全世界의 共產化라는 그들의 目的을 實質的으로 拋棄하지 않는 한, 이 挑戰은 끝없이 계속된다.

(4) 全面的 挑戰

共產主義者들의 挑戰은 “武裝鬪爭을 包含한 모든 可能的 方法을 다하는” 全面的 挑戰이란 性格을 갖고 있다.

2. 우리의 鬪爭의 性格

共產主義의 挑戰의 性格에 対応해서, 이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反共鬪爭은 다음의 性格을 갖게 된다.

(1) 正当防衛의 鬪爭

共產主義의 挑戰은 1847년의 “共產主義者同盟”으로 부터 始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들이 먼저挑發해 온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우리의 對共鬪爭은 그들의 挑戰으로 부터 나의 生命과 우리의 祖國을 지키는 正当防衛라는 性格을 띠게 된다.

(2) 二重的 鬪爭

共產主義의 挑戰 자체가 二重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際 共產主義의 目標을 明白하게 拒否・拋棄하지 않고 있는 모든 共產主義國家는 이 鬪爭의 對象으로 된다.

(3) 長期的 鬪爭

우리를 이 地上으로 부터 抹殺하려고 드는 挑戰을 그들이 먼저 拋棄하지 않는 한, 우리의 正當防衛의 鬪爭 역시 拋棄될 수 없기 때문이다.

(4) 全面的 鬪爭

저들의 挑戰 자체가 全面的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3. 共產主義 批判의 本質

共產主義의 挑戰은 全面的 挑戰, 즉 武裝鬪爭을 包含하여 經濟的, 政治的, 外交的 및 思想的 등 모든 可能한 方法을 다하는 것인바, 우리의 共產主義 批判은 저들의 全面的 挑戰 가운데 하나인 思想的 挑戰에 대한 對應鬪爭이다.

여기에, 共產主義 批判의 本質이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결코 단순한 敎養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思想的 挑戰으로 부터 나의 生命과 우리의 祖國을 지키려는 싸움, 즉 祖國防衛의 鬪爭인 것이다.

4. 共産主義 批判의 目標

共産主義 批判의 目標은, 共産主義의 理論이나 現實의 矛盾·欠點·不合理 등을 지적·폭로 함으로써, 被教育者로 하여금 共産主義를 다만 消極적으로 “反對”·“否定”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直接 共産主義者를 상대로 討論 說得할 수 있는 理論的 “勝共” 力量을 기르는 데 그 目標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살아 남는 길은, 共産主義를 다만 “反對”하는 데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김”으로써만 비로소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目標은, 우리의 統一方案이 南北韓 自由總選舉로 되어 있다는 事實에 의하여 한층 具體하게 된다.

즉, 만일 南北韓이 유엔에 加入되어 南北韓 自由總選舉가 實施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1) 休戰線의 撤廢 (2) 유엔軍의 撤収 (3) 國軍과 警察의 政治的 中立化 (4) 中央情報部의 해체 내지 完全한 기능 정지 (5) 反共法·國家保安法의 廢棄 (6) 共産主義 思想犯의 無조건 全원 석방 등 어려운 問題들이 다르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共産主義者들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共産主義를 宣傳할 수 있는 完全한 自由마저 保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근 200萬名에 달하는 共産黨員을 비롯하여 勞動組合, 農民同盟, 사로청, 婦女同盟, 女性同盟 등 갖가지 외곽단체의 熱誠分子까지 합친다면, 共産黨과 運命을 함께 하려고 드는 자의 수가 아마도 300萬名에 달할 것인바, 이 숫자는 대체로 보

아 全國의 3戶當 共產主義者 1名이 퍼지는 꼴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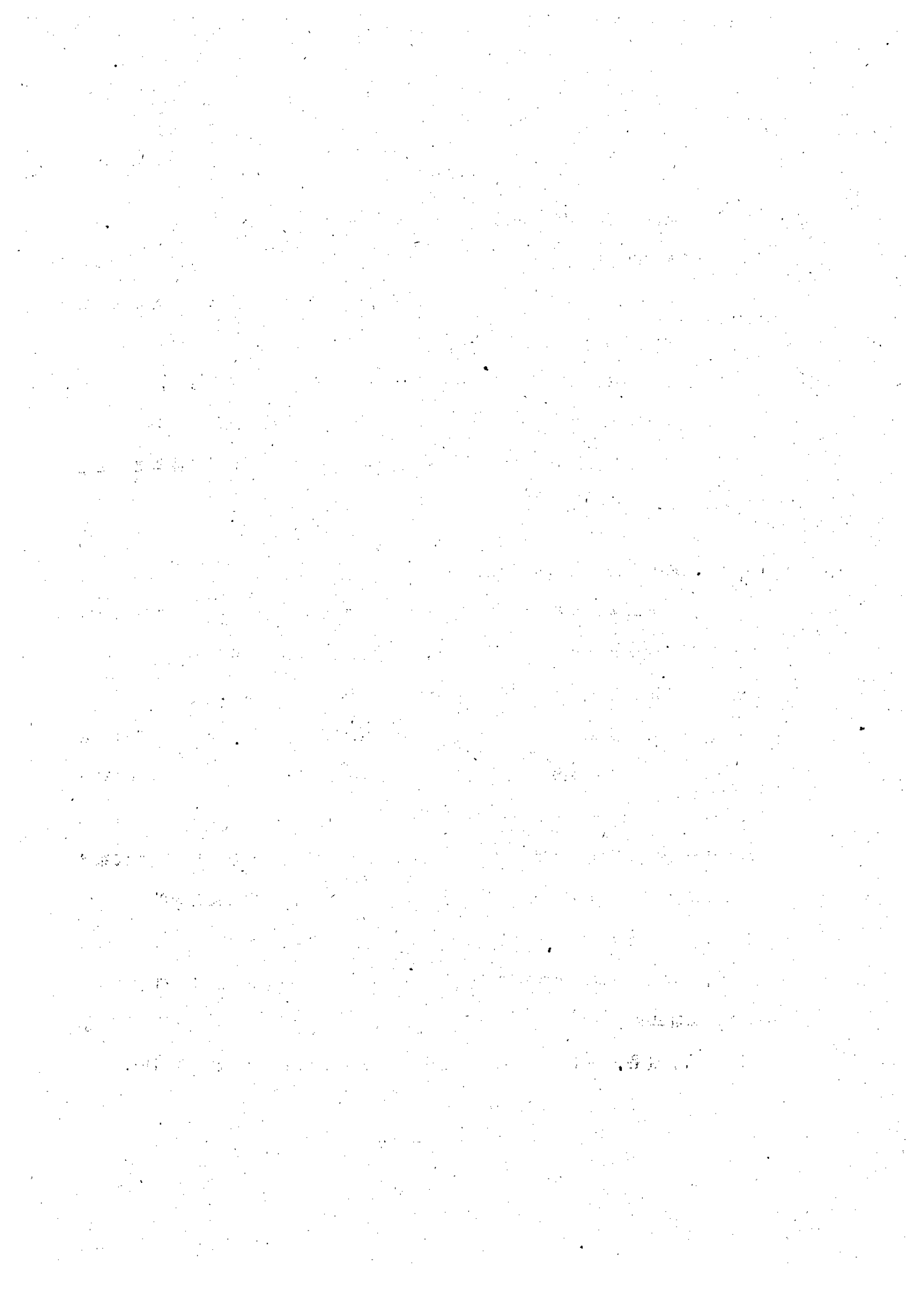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와 같은 選舉에서 우리가 이김으로써 自由 大韓을 지킬 수 있는 길이란 단 하나 알로 이론으로 共產主義者들을 굴복시키는 方法 밖에는 다른 수가 없을 것이니, 바로 이 싸움에 대비하여 共產主義를 다만 反對・否定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들을 說得하여 이겨낼 수 있는 理論的 勝共 力量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共產主義 批判이 지향할 바 目標로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5. 共產主義 批判의 要件

共產主義 批判의 目標은 단순한 “反共”이 아니라 “勝共”이어야 한다는 이 事實로 부터, 이번에는 우리의 共產主義 批判이 갖추어야 할 根本要件이 鮮明하게 浮刻되어 나온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共產主義보다 “더 나은 代案”이 있어야 한다는 事實이다. 왜냐 하면, 저들의 軍事力에 대한 反對나 否定으로는 共產軍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니, 이기려면 반드시 저들의 그것보다 “더 나은” 우리들 자신의 軍事力이 그 “代案”으로서 갖추어져야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共產主義者들의 말과 이론을 꺾고 이기려면 저들의 그것보다 “더 나은” 우리들 자신의 理論이 그 “代案”으로서 갖추어져 있어야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代置할 수 있는 것만이 克服할 수 있다”고 한 폰트릭의 말은, 우리의 研究에 있어서 하나의 指標라 할 것이다.



第 1 章 共 産 主 義 總 論

共産主義는 理論·現實·歷史·運動·戰術·政策 등 여러가지 要素를 包含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理論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에는 哲學·經濟學·政治理論·科學·歷史論 등 여러 要素가 들어 있어서, 하나의 巨大하고 複雜한 體系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共産主義에 대한 바르고 正確한 理解를 기하려면, 부분적인 問題로 直接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그 대체의 輪廓을 알아 두는 것이 緊要하다.

第 1 節 共 産 主 義 의 말 뜻

共産主義란 말은, 그것을 쓰는 사람과 시대와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뜻이 다르다. 그러므로, 이 말이 쓰이는 몇가지 예와 함께, 우리의 用法을 먼저 밝혀 두어야 할 것이다.

1. 共 産 主 義 者 들 의 用 法

共産主義者들은 이 말을 特有的 뜻으로 쓰고 있다. 즉, 資本主義 다음의 社會 段階를 낡은 의미로 共産主義라고 부르는 한편, 다시 이것을 첫째(또는 보다 낮은) 段階와 둘째(또는 보다 높은) 段階의 둘로 나눈 다음, 앞의 段階를 社會主義로, 그리고 뒤의 것을 特히 共産主義라고 좁혀서 부르고 있다.

“社会主義와 共產主義는 단일한 社会·經濟構成体の 두개의 段階이다” (經濟學 教科書)

2. 보헨스키의 区分

“共產主義 批判 全書”에서, 보헨스키는 共產主義란 말이 갖고 있는 相異한 네가지 意味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첫째로, 플라톤이 그의 “共和國”의 管理人들 사이에 널리 適用되어야 한다고 하는 社会狀態를,

둘째로, 共同体에 의한 個人的 支配와 財産의 共有에 基礎를 둔 어떤 社会·經濟的 社会를,

셋째로, 마르크스가 神話的인 未来社会에 대한 幻像으로서 그려낸 狀態를,

넷째로, 레닌이 創設한 黨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広範한 運動을 表示하는데 使用되고 있다.

이 네가지 意味는 重複되거나 서로 補完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을 明白히 區別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共產主義에 대하여 많은 誤解가 있는 것은 이 區別을 認識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3. 우리의 区分

보헨스키가 지적하고 있는 세째 뜻은,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이른바 共產主義의 둘째 (또는 보다 높은) 단계에 해당되며, 보헨스키의 둘째 뜻은 흔히 社会主義와 混同되어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共產主義란 말이 19世紀의 대부분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날의 共產主義者들에 의해서는 아직도 社會主義와 混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第8章 第1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嚴格히 區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를 共產主義의 한 단계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용법은 類概念과 種概念을 뒤바꾸는 論理的 誤謬에 빠지는 結果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共產主義란 말을 보헨스키가 区分한 내재 뜻으로, 즉 오늘날의 共產主義者들에 의해서 支持・推進되고 있는 思想과 運動을 가리키는 뜻으로 씀으로써, 社會主義와는 明確하게 區別하는 용법을 취한다.

第2節 共產主義 理論의 根本主張

다음 3節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共產主義의 理論은 거대하고 複雜한 體系를 이루고 있는 바, 거기에는 이론 體系의 核을 이루는 하나의 根本主張이 있다. 資本主義의 必然的 滅亡과 共產主義의 必然的 勝利에 대한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資本主義는 반드시 滅亡하고, 새로운 社會主義 社會가 發生한다. 이것은 어길수 없는 社會 發展의 合法則性이다”.

(政治經濟學, 下卷)

第 3 節 共產主義 理論体系의 特徵

共產主義의 理論体系는 앞의 根本主張을 中心으로 構成・展開되고 있는 바, 그 特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理論体系의 綜合性

여기에 대하여, “哲學教程”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主義는 그 속에 세계의 構成部分, 즉, 哲學, 經濟學, 科學的 社會主義의 理論을 包含하는 統一性 있는 整然한 學說이다.”

2. 確立된 方法의 一貫的 適用

“哲學教程”이 “마르크스의 哲學的 唯物論과 弁證法的 方法은 그의 學說의 모든 構成部分을 꿰뚫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곧 그것이다.

3. 價值論 위에 선 經濟學이 中心

共產主義의 理論体系 가운데에서, 그 根本主張을 가장 具體적으로 展開함으로써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經濟學이다.

“市民的 社會의 解剖的 研究는 이것을 經濟學에서 구해야 한다.”

(마르크스: 經濟學批判 序言)

그런데, 이 經濟學은 價值論을 土臺로 삼고 築어지고 있어서, 만일 여기에 어떤 變化가 일어나게 되면, 그 위에 세워진 經濟學의 全體 理論도 變化하지 않을 수 없는 關係에 있다.

“마르크스가 發展시킨 近代의 生産方法에 관한 全体 見解는 그의 價值論과 가장 密接한 關係에 있다. 그러므로 만일 마르크스의 價值論이 하나의 變化를 入는다고 하면, 이 全体 思想은 종래의 形態로서는 衰滅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

(칼·카우츠키 : 마르크스主義 修正의 駁論)

共產主義의 支持者와 批判者가 다 같이 이 價值論에 대한 攻防戰에 큰 힘을 기울여 온 까닭이 여기에 있다.

4. 行動의 主体 明示

여기에 行動이란 共產主義의 革命運動을 가리킨다. 그런데, 共產主義 理論은 그 主体勢力을 프롤레타리아아트로 못박아 明示하고 있다는 點에 또 하나의 特徵이 있다.

“오늘날, 부르주아와 對立하고 있는 모든 階級 중에서, 프롤레타리아아트만이 오로지 眞實한 革命的 階級이다.” (共產黨 宣言)

“마르크스主義 理論의 第1의 主要한 基礎란 어떤 것인가. 現代 社會의 唯一한 最後까지 革命的인 階級, 따라서 모든 革命에 있어서의 先進的인 階級은 프롤레타리아아트란 事實이다.” (레닌 : 獨裁問題의 歷史에 부쳐서)

5. 行動의 指針

共產主義의 理論 體系가 資本主義의 必然的 滅亡과 共產主義의 必然的 勝利라고 하는 자들의 政治的 根本主張을 核으로 삼고 있다는 事實로부터, 이번에는 그것이 단순한 理論이나 學說에 그치지

를 앎고, 行動의 指針으로서의 性格을 띠고 있다고 하는 또 하나의 特徵이 나오게 된다.

“우리들의 學說은 道그마(教義)가 아니라 行動의 指針이다.”
(엔겔스: 조르게에의 便紙)

6. 未來世界像의 提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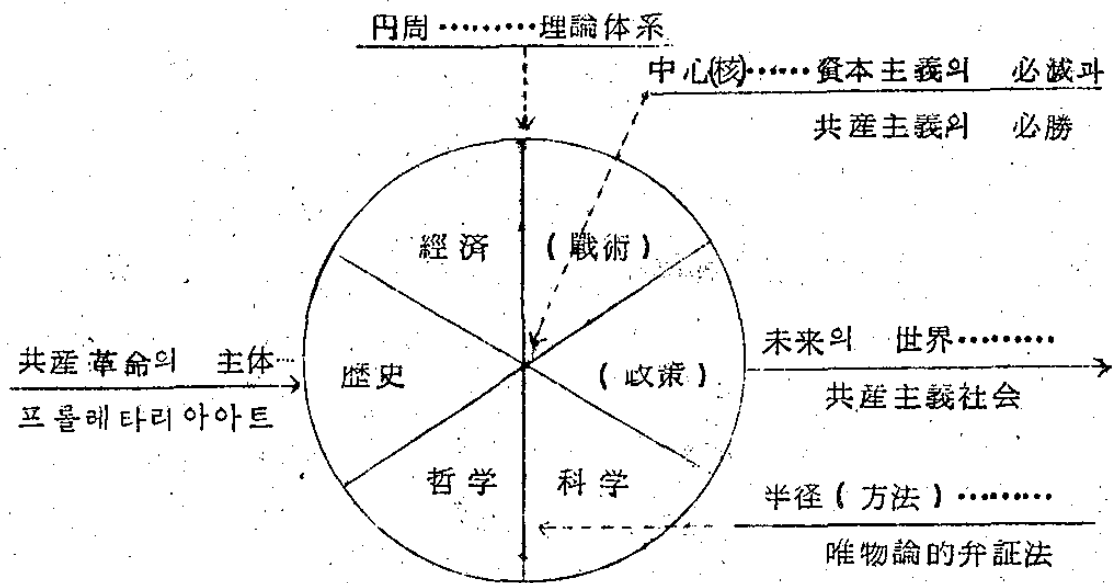
革命의 主體인 프롤레타리아아트가 綜合的 體系인 共產主義 理論에 立脚해서 革命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앞날에 나타나게 될 未來世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려 보이고 있다.

“여러 階級들과 階級 對立을 수반한 낡은 부르주아社會 대신에 각자의 自由로운 發展이 全體의 自由로운 發展條件이 되는 하나의 協同社會가 나타날 것이다.” (共產黨宣言)

“資本主義의 길은 人民의 苦惱의 길인데 대하여, 社會主義에의 길은 諸民族의 自由와 幸福에의 길이다.” (蘇聯共產黨 綱領)

第4節 共產主義 理論體系의 構造

共產主義의 理論體系가 갖고 있는 여섯가지의 特徵을 토대로, 이 體系의 構造를 그림으로써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共產主義의 理論 體系를 圓周로서 나타냈을 때, 이 圓은 그 안에 包含되고 있는 經濟學, 歷史, 哲學, 科學 등 여러 要素들이 綜合·統一되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여러 要素들이 하나의 體系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中心(즉 根本主張)과 半徑(즉 研究方法)이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共產主義의 理論體系란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根本主張을 核으로 삼고, 唯物論的 弁証法이라고 하는 하나의 研究方法에 의해서 엮어진 經濟學, 歷史, 哲學, 科學 등의 綜合的 體系란 것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다.

이리하여, 수레바퀴 꼴로 나타난 이 理論으로 무장하고 실천할 革命主体는 바로 프롤레타리아아트이며, 革命의 結果로서 나타나게 될 未來社會는 共產主義的 理想社會란 수장을 이 그림은 또 나타

내고 있다.

第 5 節 共產主義 理論의 本質과 任務

共產主義의 理論 體系가 자들의 政治的인 根本主張을 核으로 삼고 있다는 이 사실로 부터 이번에는 그것을 構成하고 있는 各 要素는 반드시 이 根本主張을 合理化하고 結論지어야 한다는 任務가 주어지게 된다.

이것을, 各 要素別로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唯物論的 弁證法

唯物論的 弁證法의 任務는, 客觀적으로 實在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영원히 그리고 合法則적으로 運動・變化하여 새것이 나타나고 낡은 것은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을 主張함으로써, 자들의 根本主張을 哲學적으로 밑받침하는 것이다.

“마르크스主義의 弁證法은……發展의 가장 一般的인 諸法則, 낡은 것의 死滅과 새로운 것의 發生과의 諸過程, 세계의 영원한 更新의 過程을 研究한다.” (哲學教程)

2. 史的唯物論

史的唯物論의 任務는, 唯物論이란 世界觀 밑에서, 弁證法이란 方法에 의하여 人間社會의 歷史的 發展에 관한 一般的 法則을 밝힘으로써, 人間社會는 모두가 發生・發展・消滅의 過程을 거쳐서 交替

된다는 것, 따라서 資本主義도 반드시 滅亡하여 共產主義社會로 된다는 것을 歷史哲學 내지 社會哲學적으로 說明하는 것이다.

“史的唯物論은……哲學的 唯物論과 唯物論的 弁證法을 社會의 認識에로 擴張한 結果로서……革命性을 獲得하였다. 資本主義의 滅亡에 관한 그리고 共產主義의 勝利에 관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學說은 史的唯物論이 研究하고 있는 바 社會의 客觀的인 發展 法則에 立脚하고 있다.” (哲學教程)

3. 經濟學

經濟學的 任務에 대하여, 일찌기 Engel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社會的인 여러가지 矛盾이 現存하는 生産樣式의 必然的 結果이고, 그와 同時에 이 生産樣式의 分解가 臨迫했다는 徵兆라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며……뿐만 아니라 이 分解되어 가고 있는 經濟的 運動形態의 내부에 이들 弊端을 除去할 수 있는 將來의 새로운 經濟組織의 여러 要素를 發見해 내는 일까지도 經濟學的 任務가 아니면 안된다.” (Engels: 反뒤이링論)

또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政治經濟學은 우리에게 人類社會가 어떻게 發生·發展하여 왔으며, 그가 어떠한 法則에 의해서 發展하여 왔는가, 資本主義——帝國主義는 왜 반드시 滅亡하며, 社會主義는 왜 반드시 勝利하는가를…… 밝혀준다.” (政治經濟學, 上卷)

이와 같이, 共產主義의 理論은 自然과 人間社會의 發展을 科學的으로 研究하고 客觀적으로 說明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革命에 의한 政權의 掌握이라는 저들의 政治的·主觀的 目的을 合理化하려는 政治的 主張인 것이다.

共産黨이 그 政治局 안에 理論 責任者를 두어, 모든 研究活動을 嚴格히 統制하고 있는 根本 理由가 바로 여기에 —— 즉 저들의 理論은 政治的 本質을 갖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第 6 節 共産主義運動의 略史

共産主義의 理論과 思想을 바탕으로, 共産主義運動은 1840 年代에 發生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共産主義의 理論을 이해하는데 꼭 必要한 範圍 안에서 지난 130 年の 歷史를 극히 간추려서 表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1800)	空想의 社會主義 發生
1818	마르크스 出生
(1840)	마르크스 思想活動 始作
1847	共産主義者同盟 結成
1848	共産黨宣言 發表
1852	同 解体

1864	第1 인터내셔널 結成
1876	同 解体
1883	마르크스 死亡
1889	第2 인터내셔널 結成
1895	엔겔스 死亡
1903	볼셰비키 成立
1914	同 解体
1917	11·7 (旧曆 10.25) 러시아革命 일어남.
1919	第3 인터내셔널 (코민테른, 國際共産党) 結成
1924	레닌 死亡
1943	同 解体
1947	코민포름 (共産党·勞動者党情報局) 結成
1948	코민포름, 유고共産党 除名
1949	코메콘 (東歐經濟相互援助會議) 結成
1950	韓國動亂에서, 國際共産主義 退 後退
1953	스탈린 死亡
1955	바르샤바條約機構 結成
1956	同 解体
1956	蘇聯共産党 第20次大会에서, 흐루시초프 修正主義 提唱 → 中·蘇理念 紛争 → 共産圈 分裂

이것을 간단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넓은 의미의 社會主義 思想은 1800年代 初에 이른바 空想的社會主義者들에 의하여 唱道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다만 資本主義의 廢止와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에 의한 社會改造를 主張했을뿐, 그 理論과 方法은 提示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마르크스가 등장해서 1840年代 초부터 思想活動을 始作하였으며, 社會主義를 理論적으로 밑받침 함으로써 이른바 科學的社會主義를 展開하였다.

近世의 共產主義 運動은 1847年에 결성된 “共產主義者 同盟”으로 그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 同盟에 의하여 1848年 2月에 “共產黨宣言”이 發表되었다. 그러나, “共產主義者同盟”은 그 活動의 実績보다도 오히려 歷史的 意義란 點에서 더 큰 자취를 남긴 채 1852年에 해산되고 말았다.

“國際勞動者協會”인 第1인터내셔널이 1864年에 결성 됨으로써 共產主義 運動은 여기에 한 걸음 전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協會” 역시 1876年에 解体되었으며, 1883년에는 마르크스가 世上을 떠났다.

1889年에 Engels의 지도하에 獨逸 社會民主主義者들을 中心으로 한 第2인터내셔널이 결성되었으나, 1914年에 第1次世界大戰이 일어나자 이 戰爭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아트의 協力 여부의 問題로 主張이 갈려 결국 解体되고 말았다.

1917年 11月7日 (이것은 陽曆이고, 旧曆으로는 10月25日,

러시아革命을 10月革命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當時의 後進國 러시아를 무대로 볼세비키의 革命이 일어났고, 이리하여, 1871年의 파리·콤똘을 除外한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共產政權이 樹立되었다.

1919年 모스크바에서 “國際共產黨”인 第3인터내셔널(略稱으로는 코민테른)이 結成되었다. 1924년에 레닌이 세상을 떠나고 스탈린이 그 뒤를 이었으나, 코민테른은 그의 지배 밑에서 끝내 蘇聯共產黨의 賤婢 구실을 면치 못하다가, 第2次世界大戰 중인 1943年 聯合國의 武器 援助를 얻어내려는 스탈린에 의하여 그나마 해체되었다.

1947年 “共產黨·勞動者黨情報局”인 코민포름이 結成되었다. 그러나 民族·民主·平和를 口號로 내건 이 組織이 1948年 民族共產主義를 표방하는 유우고슬라비아 共產黨을 제명함으로써, 國際共產主義는 전후 첫번째의 分裂을 겪었고, 이어 1950年 韓國動亂에서는 유·엔軍에 밀림으로써 1917年 이후 처음인 後退와 敗北를 강요당하였다.

이후 國際共產主義는 현상 유지에 급급하던 중 1953年 3月 스탈린의 死亡을 契機로, 蘇聯帝國主義에로 轉落된지 이미 오래인 國際共產主義의 축적된 內部 矛盾이 표면화하기 시작하여 1955年의 “바르샤바條約”에서는 마침내 共產諸國에 대한 蘇聯共產黨의 內政 不干涉이 약속되었고, 1956년에는 코민포름마저 解体되었다.

그런데, 이해 2월에 열린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에서 흐루시초

프가 이른바 修正主義를 내걸자, 이것을 中共이 비난함으로써 여
 기에 中·蘇埋念紛爭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다시 이것이 불씨가 되
 어 마침내 共產圈은 수습할 수 없는 分裂에 빠져 버렸다.

이러하여, 종래 “一塊岩的” 단결을 강조·誇示해 마지 않았던 共產
 主義 世界는 四分五裂된 바, 그 現況을 들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蘇 聯	修正主義
中 共	教條主義
北傀·쿠바·越盟	自主路線
유우고슬라비아	民族共產主義
루우마니아	獨自路線
알바니아	中共支持
其 他	蘇聯支持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의 개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事實을 알
 게 된다. 즉, 國際共產主義는 發展해 가고 있는 勢力인 것이 아
 니라, 1950年의 韓國動亂을 고비로 하고, 1955年의 “바르샤바條
 約”과 1956年의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를 直接的인 契機로 하
 여 分裂·弱화되어 가고 있다는 事實이다.

第 7 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

1.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의 名分

近世 共產主義 運動은 처음부터 勞動者階級의 國際的 團結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를 原則으로 삼아 오고 있는 바, “萬國의 勞動者여 團結하라”는 “共產黨宣言”의 끝말이 곧 그것이다. 그런데 共產主義 運動에는 왜 國際的 團結이 必要한가에 대하여 第1인터내셔널의 總則 前文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勞動의 解放은 局地的 또는 一國的인 問題가 아니라……全社會的인 問題인 것이다.”

즉, 勞動者階級을 資本主義制度로 부터 解放시키는 問題 즉, 共產主義運動은, 한지방이나 한 나라에 국한된 問題가 아니라 全世界에 걸친 共通된 問題라는 것이니, 그러기 때문에 共產主義 運動은 全世界가 하나의 組織 밑에서 “一塊岩的”으로 團結하여 推進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 共產黨의 分裂로 말미암아 이 原則이 크게 弱화된 것은 事實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사라져 버렸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니, 이 原則을 理解하는 것은 共產主義의 運動과 現實을 바로 把握하는 데 있어서 重要하다 할 것이다.

2. 蘇帝國主義에의 轉落

1917年의 革命으로 政權을 잡은 레닌은 蘇聯을 가리켜서 “世

界革命의 根拠地”라고 規定하는 한편, 第3인터내셔널에 加盟코저 하는 모든 共産黨들에 대해서는 蘇聯에 대한 “無條件의 支援”을 강요하였다.

“共産主義者인 第3인터내셔널에 加盟코저 하는 모든 政黨은, 反革命勢力과 鬪爭하고 있는 蘇聯에 대하여, 無條件의 支援을 提供해야만 한다.” (國際共産黨 加盟條件 21個條項 중 第14項)

이리하여 蘇聯共産黨은 第3인터내셔널을 구성하는 모든 共産黨에 대하여 무제한의 지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제 나라에 대한 忠誠보다도 蘇聯에 대한 忠誠을 앞세우는 철저한 帝國主義的 倫理마저 確立하였다.

“世界共産主義, 모스크바에 대한 忠誠은 자기 나라에 대한 忠誠에 優先한다.” (共産主義者의 信條 第9項)

마침내 蘇聯을 중심으로 한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는 蘇聯帝國主義로 轉落하고 말았던 것이니, “民主社會主義宣言”이 “國際共産主義는 새로운 帝國主義의 도구”라고 規定하고, 티토오가 “유우고슬라비아에 대한 資本主義의 危險은 蘇同盟의 危險보다도 적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모두 그 때문인 것이다.

3. 蘇帝國主義와 制限主權論

第3인터내셔널의 時代에 있어서는, 國際共産主義者들은 蘇聯을 全世界의 勞動者와 農民의 共同 祖國으로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國際共産主義의 蘇帝國主義로의 轉落과 戰後의 世界를 窺

쓴 民族主義의 대두, 그리고 스탈린의 死亡으로 인한 蘇聯 지배력의 弱화 등 일련의 事態는 衛星國家들로 하여금 잃었던 主權回復의 길을 더 주었다.

즉, 1955년에 締結된 “바르샤바條約”은 그 8條에서 “締約國의 獨立과 主權의 相互 尊重 및 內政 不干涉”을 規定함으로써, 東歐 衛星國家들은 비록 制限된 範圍 안에서나마 主權이 일단은 인정되기에 이른 것이니, 이것은 蘇帝國主義의 부분적 후퇴와 함께 共產圈에 있어서의 民族·獨立運動의 하나의 勝利的 前進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第 8 節 國際共產主義와 民族主義

레닌 이후 특히 第2次世界大戰 이후에 있어서, 共產主義者들은 民族이란 말을 대단히 혼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共產主義者들이 民族主義者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 運動은 처음부터 “國際的” “階級主義”인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를 原則으로 함으로써, 民族主義와는 根本적으로 對立·배격하는 길을 걸어 왔다.

“本 同盟의 同盟員은……어떠한 民族主義 結社에도 加入함을 禁止한다.” (共產主義者 同盟 規約 第2條4項)

“國際 反動과 國內의 殘存 反動勢力이 社會主義 諸國의 團結을 破壞하기 위하여 使用하는 主要한 政治的·思想的 武器는 民

族主義이다.” (蘇聯共産黨綱領)

이와 같이 國際共産主義는 1847年의 “共産主義者同盟”에서 그
첫발을 내디딘 이후 民族主義를 정면으로 부정·배척해 왔다.

1948年에 民族共産主義를 내건 유우고슬라비아共産黨을 코민포름이
背叛者로 規定하고 제명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이 民族主義의 경향이 蘇帝國主義를 지지하지 않는 일부
共産主義 國家에서 극히 조심스럽게나마 꿈틀거리고 있어서 이 사
실은 장차 共産圈의 勢力關係에 적지 않은 작용을 미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第 9 節 國際共産主義의 目標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共産主義 運動의 原則은 프롤레타리아 國
際主義이다. 그러면, 國際共産主義가 國際的 團結을 통해서 달성하
려고 노리는 目標은 과연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全 世界를 共産化하는 것으로서, 이
目標는 1847年의 “共産主義者同盟”으로 近世 共産主義運動이 처
음 出發한 때서 부터 明白히 내걸어 온 것이다.

“本 同盟의 目的은, 부르주아지의 打倒와 프롤레타리아아트 支配의
성취……에 있다.” (共産主義者同盟 規約 第1條)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일이 있다. 무엇이냐 하면
共産主義 運動의 國際的 團結이 近年에 와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는 사실과, 그들이 全 世界의 共產化라는 目標을 버렸느냐 하는 問題는 일단 별개의 問題라는 事實이다. 즉, 그들의 國際的 團結은 크게 弱化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全 世界의 共產化에 대한 믿음에는 거의 아무런 흔들림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資本主義의 必然的 滅亡과 共產主義의 必然的 勝利란 主張을 核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理論體系에도 아직은 아무런 變動이 없고, “平和 共存” 조차도 “階級鬭爭의 特殊한 形態”로서 規定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第10条 共產政權의 本質的任務

共產主義者들은 입버릇처럼 勞動者와 農民 등 勤勞大衆을 입에 올려 내세운다. 그러기 때문에, 共產主義를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共產黨은 근로대중을 위해서 存在하는 것처럼 따라서 共產政權의 첫째 任務는 勞動者·農民을 잘 살게 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되기가 아주 쉽다.

그러나, 共產政權의 本質的 任務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革命의 擴大인 바, 스탈린은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의 革命을 發展시키며 支持하는 것은 勝利한 革命의 本質的 任務이다. 그러므로 勝利한 나라의 革命은 自身을 自足的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프롤레타

리아아트가 勝利하는 것을 促進시키기 위한 援助로서 手段으로서
보지 않으면 안된다.” (스탈린 : 레닌主義의 基礎에 대하여)

北端 “勞動黨規約”이 그 前文에서 자들의 當面目標를 規定하여
“全國的 範圍에서 革命課業을 完遂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任務에 대한 再確認인 것이니, 이른바 “도미노理論”
이란 것은 이 本質的 任務의 遂行을 밖에서 觀察·把握한 것 이외
의 아무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第11節 共產主義革命的 目的

지금 본 바와 같이, 共產主義者들은 革命的 擴大를 자들의 本質的
任務라고 까지 強調하고 있다.

그러면, 이처럼 강조하며 추구하고 있는 共產主義革命은 무엇을 目的
으로 하고 있는가. 자들의 主張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社會主義革命은 生産手段의 私的所有를 社會的 所有로 교체하며,
사람이 사람을 搾取하는 制度를 없애 버리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政治經濟學 下卷)

그러나, 共產主義 社會의 現實은 生産手段의 대부분이 社會的 所有
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搾取는 없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의 第8章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왕왕히 한층 더 加重되
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거짓 선전을 해가면서 까지 추구하고 있는 저

들 革命의 實際 目的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政權의 掌握이다.

“ 共產主義者의 直接的인 目的은 프롤레타리아의 政權 確立이다.”

(共產黨宣言)

“ 革命에서 根本問題는 政權問題이다. ” (金日成 : 1956 年 3 月 1 日
내무 일꾼들 앞에서의 演說)

그러므로, 共產主義者들이 政治宣傳이나 對話에 있어서 아무리 迂
廻的인 名分을 앞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그들의 政權 掌
握이란 軸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
다.

第 12 節 共產主義者의 價值觀

共產主義者들은 政權의 掌握을 그 直接的인 目的으로 삼고 있다
는 이 事實로 부터, 이번에는 그들의 價值觀이 극히 論理的으로
이끌려 나오게 된다.

즉, 그들의 革命 目的인 政權의 掌握에 도움이 되는 것을 善이
라 하고 해가 되는 것을 惡이라고 한다.

“ 우리는 말한다. 우리의 倫理는 全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階級鬭爭의 利益에 從屬하는 것이라고.....그러면, 이 階級鬭爭이란
무엇인가.....그것은 資本家를 打倒하여 資本家階級을 없애 버리는
것이다. ” (레닌 : 青年同盟의 任務)

그런데, 이 “階級鬭爭의 利益”이란 것은 저들의 倫理뿐만 아니라 또 眞理의 基準으로도 된다는 것이어서,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眞理이고 해가 되는 것은 非眞理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眞理의 階級性(또는 党派性)”을 주장하고 있다. 즉, 社會가 敵對的 階級에로 分裂되어 있을 때는 普遍妥當한 眞理는 있을 수가 없고, 眞理는 반드시 階級性 또는 党派性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 眞理觀으로 부터 마침내 共產主義者들 特有의 思考方式이 이 끌려 나오게 된다. 즉, 아무리 사실대로 말하더라도 그것이 저들의 階級的 利益에 해가 되면 非眞理이고, 반대로 어떠한 거짓을 主張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저들의 政權 掌握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곧 眞理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이 우리의 常識이나 良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거짓말과 事實 隱蔽를 끊임없이 되풀이 하면서도, 조금치도 非意識을 느끼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들은 속임수, 거짓말, 法律 違反, 事實 隱蔽 따위 를 예사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레닌: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左翼小兒病)

第 13 節 共產主義者의 信條

이상 考察한 바, 共產主義의 根本主張, 理論의 本質과 任務, 共產主義 運動의 原則과 目標, 共產 政權의 本質的 任務, 共產主義 革

命의 目的, 저들의 價值觀, 그리고 저들의 哲學 및 經濟學의 이론을 배경으로 삼고, 이른바 “共產主義者의 信條”가 여기에 우려 나오게 된다. 이것을 美國人 루저·스웨어링겐의 간단한 說明과 함께 그의 冊에서 옮겨 보기로 한다.

“蘇聯·中共 其他 나라들의 共產主義者는 각각 세세한 점에서는 다른 데도 있으나, 그들은 그 前提·信念 및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共通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主義 또는 世界共產主義라고 불리우는 이 이데올로기는 一塊岩의 一致性을 要求하여 分派(非公認思想)를 許容하지 않는다. 이 事實은 “共產主義者의 信條”를 보면 明確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信條란,

- (1) 人生은 墓地에서 끝난다. 宗教는 民衆의 阿片이며, 神은 存在하지 않는다.
- (2) 國家는 個人보다 重要하며, 共產黨은 언제나 옳다.
- (3) 地上 最大의 惡은 私有財産이며, 資本主義(自由企業)이며, 歐美 植民主義·資本主義的 帝國主義이다.
- (4) 帝國主義的·侵略的인 것은 美國이며, 蘇聯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敵對하고 世界平和를 방해하는 것은 美國이다.
- (5) 社會主義 計劃經濟는 競爭的 自由企業制度 보다도 效果的이며, 훌륭하다.
- (6) 共產主義는 불가피하며 “未來의 물결”이다.
- (7) 美國 其他의 資本主義 國家에는 참된 自由가 없다.
- (8) 無節操한 資本家 때문에 勞動者는 虐待받고 끊임없는 經濟的

絶望속에 있다.

(9) 世界共産主義・모스크바・北京에 대한 忠誠은 자기 나라에 대한 忠誠에 優先한다.

(10) 어떠한 行為도 — 에컨대 殺人이나 兩親의 密告라도 — 共産主義의 目的에 도움이 되면 正当化된다.

이와 같은 思考方式은, 民主的 環境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대부분에게는 믿어지지 않으며 狂信的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지만, 共産黨員이기 위하여는 이들 信條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룩저·스웨어링겐 : 共産主義의 世界)

이것이 共産主義者들의 信條이다. 必要한 부분에 간단한 批判的 說明을 붙혀보면 다음과 같다.

(1)은 저들의 世界觀인 唯物論의 立場에서 神과 宗教를 부정하고 있다.

(2)는 저들의 全体主義的 性格과 함께 이룬바 党的 無謬性에 대한 主張을 보여주고 있다.

(3)은 오늘날에 있어서의 共産主義의 여러 攻擊 目標을 밝히고 있다.

(4)는 國際共産主義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으며, 따라서 攻擊을 集中해야 하는 것은 美國임을 지적하고 있다.

(5)는 이룬바 社會主義의 優越性에 대한 主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主張은 第8章의 社會主義 優越論과 리베르만方式을 考察하는 부분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저들의 現實政策

에 의해서 스스로 暴露되고 否定된지 이미 꽤 오래된 것이다.

(6)은 저들의 歷史的 方向感覺을 나타낸 것으로서, 저들이 歷史의 편에 서고 있다는 것 또는 역사가 저들을 편들고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저들의 必然的 勝利에 대한 믿음을 다짐하고, 또 한편으로는 共產主義에 대한 對抗은 곧 歷史에 대한 反動일 뿐만 아니라 不可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여, 우리의 圖志를 꺾고 나아가서는 저들 편에 서도록 하려는 深遠한 心理戰的 意圖를 숨겨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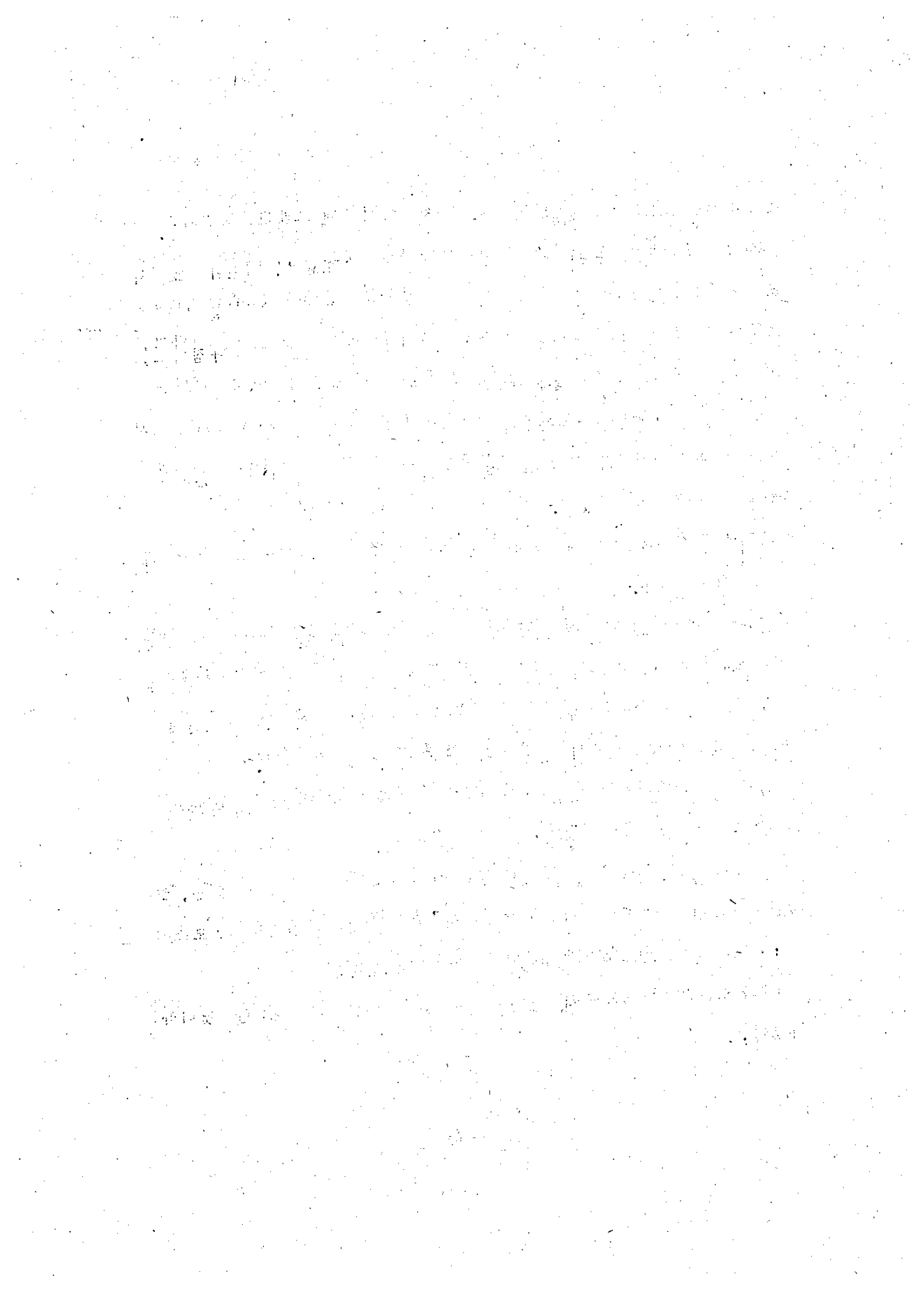
(7)은 저들 特有의 어거지이며, 뒤집어 씌우기 手法이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8)은 우리 社會의 勞動者階級의 처지를 絶望的인 것으로 그려냄으로써, 한편으로는 資本主義를 타도하려는 저들의 革命을 正当化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社會의 勞動者를 煽動하는 同時에 共產 政權下의 勞動者의 苦痛을 癡痺시키려 하고 있다.

(9)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立場이 얼마나 反民族主義的인가를 참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모스크바와 함께 北京이 나란히 열거되고 있는 것은, 蘇聯의 主張인 “모스크바 單一中心制”에 對抗하는 中共의 “모스크바·北京 並行中心制”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은 共產主義者들의 價值觀을 가장 端的으로 表現한 것이라 하겠다.



第 2 章 赤化工作의 段階와 戰術

“마르크스·레닌主義는 革命의 科學이며 陰謀의 技術”이라고 스탈린은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革命의 科學이란 것은 共產主義의 理論을 가리키는 말이고, 陰謀의 技術이란 저들의 戰術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서, 理論은 주로 마르크스가 展開하였고, 戰術은 주로 레닌에 의하여 꾸며진 것인데, 마르크스·레닌主義로 불리우는 오늘의 共產主義 속에는 이들 두개의 要素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共產主義를 비판함에 있어서는 이들 두 개의 要素들 모두 研究해야만 될 것인 바, 우리는 저들의 이른바 “陰謀의 技術”에 대하여 먼저 알아 보기로 하자.

그런데 共產主義者들의 赤化工作은 대체로 말해서 (1) 共產黨을 組織하여 (2) 大衆을 獲得한 다음 (3) 破壞로 들어가는 세 段階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비판적 研究도 여기에 준하여 進行하기로 한다.

第 1 節 共產黨의 組織(共產黨論)

1. 黨의 重要性

共產主義者들은 저들의 政權鬭爭에 있어서 가장 重要하고도 앞서는 것은 黨을 組織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프롤레타리아아트는 權力 獲得을 위한 鬭爭에 있어서, 組織 以外에는 아무런 武器도 갖지 못하고 있다. ” (레닌 : 1 步前進 2 步後退)

“ 각개 分散된 채로 鬭爭할 수가 있을까. 勿論 안된다. 반대로, 인간은 우선 團結하고 우선 組織을 만들고 그 뒤에 鬭爭에도 나아간다. 그것 없이는 어떤 鬭爭도 效果가 없다. ” (스탈린 : 프롤레타리아의 階級과 프롤레타리아의 黨)

2. 黨의 必要性

그러면 黨은 왜 이처럼 必要한가. 스탈린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어떤 軍隊든지, 戰爭에서 敗北의 운명에 빠지지 않으려면 經驗 있는 司令部 없이는 안된다. ……革命黨을 갖지 않은 勞動者階級——이것은 司令部를 갖지 않은 軍隊이다. ” (스탈린 : 레닌主義의 基礎에 대하여)

즉, 軍隊가 戰爭에서 敗北하지 않으려면 經驗있는 司令部가 있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資本主義를 타도하고 政權을 잡으려고 하는 저들의 鬭爭에도 司令部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 司令部로 될 수 있는 것이 곧 共產黨이라는 것이다.

3. 党 組織의 原則

레닌에 따르면, 共産党은 다음과 같은 原則에 의해서 組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運動의 活動家에 있어서, 유일한 眞摯한 組織 原則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니면 안된다. 즉, 가장 嚴格한 秘密活動, 가장 嚴格한 成員의 選拔, 職業革命家의 訓練이다.

이들 특질이 구비되어 있으면, “民主主義” 이상의 어떤 것이 즉, 革命家들 사이의 完全한 同志的 信賴가 保障된다.” (레닌: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스탈린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指導者의 戰鬪的인 그룹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의 党은 첫째로, 人員의 점에서는 프롤레타리아 階級보다 훨씬 少數이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그 自覺과 經驗이란 점에서는 프롤레타리아 階級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로, 굳게 結束된 組織 —— 中央集權化된 組織이지 않으면 안된다.” (스탈린: 프롤레타리아의 階級과 프롤레타리아의 党)

한 마디로 말해서 (1) 少數 精銳主義로 (2) 職業革命家를 (3) 秘密主義에 立脚하여 中央集權的으로 組織하는 것 —— 이것이 共産党的 組織 原則이라는 것이니, 여기에 벌써 共産党的 反民主的 性格이 드러나고 있다.

4. 黨員의 資格

1903년에 열린 러시아社会民主労働党 第2次大会에서, 이 党을 革命党으로 만들려고 하는 레닌과 마르토프 사이에 黨員의 資格条件 問題로 격론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레닌派가 少数였으나, 결국 그의 主張이 貫徹되어 여기에 多數派를 뜻하는 볼셰비키가 成立되었고, 党은 레닌의 다음과 같은 主張에 따라 (1) 党綱領의 承認 (2) 党에 대한 物質的 援助 (3) 職業的 革命家 라는 세 条件을 黨員의 資格으로 規定하게 되었다.

“規約 第1条는 黨員의 概念을 規定하고 있다. 나의 초안에서는, 이 規定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党的 綱領을 承認하고, 物質的 手段에 의해서도, 党的 組織의 하나에 스스로 參加하는 일에 의해서도 党을 支持하는 者는 모두 러시아社会民主労働黨員으로 看做한다. ”.....

우리는 실제로 活動하고 있는 者와 잔소리꾼을 구별하여 組織上의 混沌狀態를 제거하고, 黨員으로 形成되고 있으면서도 党 組織이 아닌 組織이 存在하는 따위의 亂脈과 不条理를 배제하는 등등을 위하여 黨員의 概念을 좁히지 않으면 안된다. ” (레닌 : 러시아社会民主労働党 第2次大会 頌末)

스탈린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表現하고 있다.

“러시아社会民主労働党的 黨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党的 綱領을 承認하고, 党을 物質的으로 도우며, 党 組織의 하나에

參加하는 者이다.

이것이 同志 레닌이 부여한 黨規約 第1條의 定式이다. ” (스탈린 : 前掲書)

4. 黨의 本質

共産黨의 本質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共産主義者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각도에서 論하고 있다.

“마르크스主義黨은 勞動階級の 일부분이며 一部隊이다. ” (蘇聯共産黨史)

“黨은 프롤레타리아트의 最高의 組織 形態이다. 黨은 프롤레타리아階級 가운데의, 또 이 階級の 諸組織 가운데의 基本的인 指導的 中核이다. ” (스탈린 : 레닌主義의 基礎에 대하여)

“黨은 勞動者階級の 훌륭한 學校이며……指導者이며 首領이며 教師가 아니면 안된다. ” (스탈린 : 레닌主義의 諸問題에 부쳐서)

“黨은 勞動階級の 指導部隊이며, 그 前線要塞이며, 戰鬪參謀本部이다. ” (蘇聯共産黨史)

“우리 黨은 試驗이 끝난 者에 대해서만 그 門戶를 개방하는 要塞란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스탈린 : 프롤레타리아의 階級과 프롤레타리아의 黨)

5. 共産黨의 定義

이상과 같은 必然性和 原則과 黨員으로 組織된 共産黨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定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美國의 福特·스웨이링겐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原則 위에 선 戰鬪的 組織”이라는 定義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위의 考察에 立脚하여 다음과 같이 定義하기로 한다.

“共産黨이란 全世界의 共産化를 추구하는 職業的 革命家의 戰鬪的 組織이다.”

第2節 大衆의 支持 獲得(戰術論)

戰鬪司令部인 共産黨의 組織이 끝나면, 共産主義者들은 다음에는 大衆의 支持를 얻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데, 저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직 革命家의 손만으로써 革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共産主義者가 범하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危險한 誤謬이다.” (레닌 : 戰鬪的唯物論의 意義에 관하여)

“大衆과의 広範한 結合 없이는………勞動者階級の 黨은 몇 百萬이라고 하는 勞動者階級과 모든 勤勞者를 이끌고 갈만한 힘이 있는 참으로 大衆的인 黨으로 될 수 없다.” (蘇聯共産黨小史 結論)

그러하여, 共産主義者들은 이 大衆과의 結合을 가리켜서 “革命

勝利의 不可欠의 條件” 또는 “不敗性의 關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 大衆의 獲得을 위하여 저들은 어떤 方法을 강구하는가. 그들의 戰術 가운데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暴露戰術

레닌에 따르면 이 전술은 政府에 대한 宣戰布告로서, 政治를 暴露함으로써 (1) 支配者들 相互間에 敵對와 不信의 念을 일으키고 (2) 적으로 부터 그 同盟者를 떼어 내서 (3) 共産黨에 대하여 敵對的인 制度를 解体시키려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우리 黨 組織의 活動의 基本的인 內容, 이 活動의 焦點을 이루는 것은……가장 廣範한 大衆을 대상으로 하는 政治的 煽動이다. ………政治的 暴露야 말로 煽動의 主要한 手段이다.” (레닌 : 무엇을 할 것인가)

“經濟的 暴露가 工場主에 대한 宣戰布告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政治的 暴露는 政府에 대한 宣戰布告이다. ………그러므로, 政治的 暴露는 이미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敵對的인 制度를 解体시키는 가장 強力한 手段, 敵으로 부터 그 우연의 또는 일시적인 同盟者를 떼어 내는 手段, 專制權力의 參與者들 사이에 敵對와 不信의 念을 일으키는 手段의 하나이다.” (위와 같음)

2. 政治新聞의 發行

위와 같은 政治的 暴露는 어떤 方法으로 實施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레닌은 政治新聞의 發行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우리 黨 組織의 活動의 基本的인 內容, 이 活動의 焦點을 이루는 것은……政治的 煽動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活動은 극히 자주 發行되는 全國的 新聞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위와 같음)

이와 같은 新聞의 役割을 레닌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新聞의 役割은 다만 思想을 普及시키는 일에만 政治教育을 實施하고 政治的 同盟者를 끌어 들이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新聞은 集團的 宣傳者 및 集團的 煽動者일 뿐만 아니라, 또 集團的 組織者이기도 하다.” (레닌: 무엇으로 부터 始作할 것인가)

한 마디로 말해서, 共產主義의 新聞은 教育者, 宣傳者, 組織者, 煽動者라는 것이다.

解放 直後, 兩韓에서는 불과 수 주일사이에 30여 종의 共產系 新聞·雜誌가 쏟아져 나왔으며, 4·19 뒤에는 재빨리 “民族日報”가 나타났었는데, 이 모두가 赤化工作의 定石대로 붙이된 新聞觀으로 부터 우러나온 전술이었던 것이다.

3. 前衛組織

레닌 및 스탈린에 따르면 “黨만으로써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며 “全 階級이 즉 広範한 大衆이 或은 黨을 直接 支持하는

立場을 취하든가 或은 적어도 党에 대하여 好意的인 中立을 지키게 ”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大衆을 그렇게 만드는 길은 (1) 共産党을 에워싸는 多種多樣的 組織으로 社會의 各界 各層을 組織하고 (2) 이 組織을 通하여 大衆 自身이 政治的 經驗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寬만으로써는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全 계급이 즉 広範한 階級이 或은 党을 直接 支持하는 立場을 취하든가 或은 적어도 党에 대하여 好意的인 中立을 지킴으로써 적을 支持하는 일이 完全히 不可能하게 되어야 한다.

全 階級이 실지로 이 立場을 취하도록 하거 위해서는.....이들 大衆 自身의 政治的인 經驗이 必要하다, 이것은 모든 偉大한 革命의 根本法則이다. ” (레닌 : 共産主義에 있어서의 左翼小兒病)

“ 党的 組織은 다만 職業的 革命家만으로써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극히 좁은 秘密的인 것으로 부터, 극히 넓고 自由로운 것까지 온갖 種類, 等級, 色相의 多 없이 多種多樣的 組織이 우리에게 必要하다. ” (스탈린 : 소오살 · 데모크라아트에의 回答)

解放 直後, 南韓 땅에 兩後竹筍처럼 나타났던 赤衛隊, 朝鮮共産主義青年同盟, 각종 芸術同盟, 職業同盟, 女性同盟, 學兵同盟 등등이 바로 이 前衛組織의 例이며, 그 任務는 (1) 共産党的 指令에 따라 데모와 怠業 및 罷業을 일으킴으로써 社會의 混亂을 빚고 (2) 反政府的 기운을 돋우며 (3) 이와 같은 鬪爭 過程을 거치는 동안에

共産党的 支持者를 確保・訓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浸透戰術

이 전술은 푸락치戰術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勞働者들에게 政治的 意識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共産主義者는 住民의 모든 階級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理論家로서도, 宣傳家로서도, 組織者로서도, 煽動家로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레닌:무엇을 할 것인가)

즉, 共産主義者들은 社會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푸락치를 浸透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그 目的은 大衆들을 教育, 宣傳, 組織, 煽動하여 革命勢力化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5. 同盟戰術

이 전술은, 언제나 人口의 少数者인 共産黨이 非共産主義者와 一時的인 同盟을 맺음으로써, 그것을 그들의 政權鬭爭에 이용하려는 데 目的이 있다.

이 전술의 중요성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훨씬 힘이 센 적을 이기는 일은………실사 아무리 작은 可能性일지라도, 一時的인 動搖的인 취약한, 믿음직스럽지 못한, 條件的인 同盟者라도 좋으니까, 大衆的 同盟者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可能性을 반드시 가장 綿密하게,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숨겨

있게 利用하여 비로소 成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理解하지 못한 자는 마르크스主義……一般을 털끝 만큼 도 이해하지 못한 자이다. ………이 真理를 실제에 適用하는 能力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지 않은 자는……革命的 階級을 돕는 길을 아직 배우지 못한 자이다. ” (레닌 :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左翼小兒病)

즉, 이 전술을 실천을 통해서 몸에 익히지 않고서는 共產主義者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전술의 決定的인 重要性에 대하여, 레닌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러가지의 活動 영역에서 非共產主義者와 同盟을 맺지 않고서는, 共產主義 建設에서 成功을 거둔다는 것은 전혀 問題도 될 수 없다. ” (레닌 : 戰鬪的唯物論의 意義에 관하여)

그러나 이 전술은 어디까지나 同盟者를 철저히 “利用” 하는 것이며 또 利用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共產主義者들은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革命家의 다른 流派들과 어떤 同盟을 맺더라도, 그것은 理論·綱領·旗幟 상의 妥協이나 讓步를 가져올 수는 없으며 또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치도 숨기지 않는다. ” (레닌 : 社會民主主義者의 任務)

“勝利한 最初의 瞬間부터 不信은……이제까지의 盟友에게로 향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 (마르크스 : 소오살·데모크라아트)

이 戰術의 典型的인 예를, 우리는 第8章의 勞動同盟論에서 보게

될 것이다.

6. 테러戰術

이 전술은 脅迫·拉致·殺人·其他 暴力的 手段 등에 의하여 恐怖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1) 적과 그 同調者의 圖志를 약화 또는 挫折시키고 (2) 더 나아가서는 저들에 대한 支持와 協調를 強要하려는 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가, “支配者들로 하여금 共產主義 革命 앞에서 戰慄케 하라”고 古典的으로 主張한 이래, 共產主義者들은 이것을 심히 즐겨 쓰고 있다.

“우리는 原則的으로 테러를 否定한 적이 없으며 또 부정할 수도 없다.” (레닌: 무엇을 할 것인가)

“革命은……人口의 일부가 小銃이나 銃劍이나 大砲 —— 즉 아마도 극히 權威的인 수단에 의해서, 나의 意志를 다른 일부에게 強要하는 行為이다. 그리고 勝利를 獲得한 黨은 그 鬪爭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들의 武器가 反動들에게 물려 일으키는 恐怖를 통해서 그 支配를 維持하지 않으면 안된다.” (레닌: 프롤레타리아革命과 背教者 카우츠키)

共産黨의 人民裁判은 이 전술의 가장 좋은 예이며, 이승복에 대한 殘忍無道한 殺害도 이 전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 平和共存戰術

이 전술은 적으로 하여금 共產主義에 대한 警戒을 풀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赤化工作를 쉽게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그런데 이 전술은 얼핏 보기에는 “平和的”으로 두 體制가 “共存”하자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의 올바른 판단을 심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전술의 뜻과 속셈은, 核武器時代의 戰爭은 共滅을 가져올 뿐이니, 이 核戰爭을 피함으로써 (이것이 平和的이란 말의 뜻이다) 共滅하지 않는 方法으로 (이것이 共存的의 뜻이다) 資本主義를 打倒하는 鬪爭을 해 나간다는 것이며 그러기에 이 전술은, “階級鬪爭의 한 특수한 形態”라고 規定되어 있는 것이다.

“平和共存이나 破滅的인 戰爭이나.....역사는 오직 이와 같이 問題를 제기하고 있다.” (蘇聯共產黨綱領)

“각국 간의 平和共存은.....결코 階級鬪爭의 拋棄나 妥協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共產主義와 資本主義 사이에 있어서의 階級鬪爭의 한 形態이다.” (1956年 2月,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에서 한 흐루시초프의 演說)

“平和共存은.....社會主義와 資本主義.....사이의 階級鬪爭의 特殊한 形態이다.” (蘇聯共產黨綱領)

“平和共存 路線은 社會主義를 지향해서 싸우는 진보세력의 힘을 강화할 것을 재촉하며, 資本主義諸國 안에서는 共產黨的의.....活動을 용이하게 한다,이와 같이, 平和共存 政策은 그 본래의 社會

김민준

의 내용으로 해서 國際舞臺에 있어서의 帝國主義 侵略 勢力과 의 프롤레타리아트의 熾烈한 經濟・政治・이데올로기 鬪爭의 한 形態이다. ” (호루시초프 : 앞의 演說)

한 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이른바 平和共存이란 核戰爭에 의한 共滅을 피하면서 계속되는 共產主義의 挑戰이다.

따라서 충분한 說明이 없이 이 말을 함부로 쓰게 되면, 共產主義者들의 挑戰的 意圖를 흐려 놓음으로써, 결국 이 전술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인 바, 오늘의 自由世界의 현실은 이미 어느 정도 여기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8. 共產主義 戰術의 原則

이상과 같은 여러 전술들의 바닥에는 몇 가지 原則이 깔려 있어서 그것들은 이 原則에 의하여 運用된다.

(1) 多樣性의 原則

이 原則은 전술의 多樣性을 인정함으로써, 어떤 特定한 전술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마르크스主義者는 鬪爭을 어떤 하나의 特定한 鬪爭形態에 붙들어 매지 않는 점에서 모든 原始的 形態의 社會主義와 다르다.

마르크스主義는 극히 多種多樣한 鬪爭 形態를 인정하고 있다. ”

(레닌 : 빨지산戰爭)

(2) 臨機応變의 原則

이 原則은, 情勢가 급속하게 그리고 예측할 수 없게 變하여

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即席으로 鬪爭形態를 바꾸어 나갈 줄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다.

“革命을 지향하는 勞動階級의 鬪爭의 成功은 이 階級과 그 정당이 鬪爭의 온갖 形態 —— 平和的과 非平和的 議会的과 非議会的 形態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있는가, 급속한 그리고 不意의 變化에 따라서 하나의 鬪爭 形態로 부터 다른 鬪爭 形態에로 即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蘇聯共產黨綱領)

(3) 不拋棄의 原則

이 原則은 정세의 變動에 따라서 隨機應變해야 하는 것이 共產主義의 전술 原則이기 때문에, 전술 가운데 어느것도 拋棄할 수가 없고 그런 약속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主義는 어떠한 鬪爭形態도 拋棄한다는 따위의 約束은 절대로 안한다.” (레닌 : 빨찌산戰爭)

그러므로, 7·4 共同聲明 第2項이 “크고 작은 것을 莫論하고, 武裝挑発을 안하기로 合意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 不拋棄의 原則에 明白히 矛盾되는 것이니, 이 사실은 그 후의 事態가 이미 증명해 준 바라 할 것이다.

第 3 節 破 壞

共産主義者들은 먼저 共産黨을 組織하고, 다음으로 온갖 수단을 다하여 大衆을 組織・動員할 수 있게 되면, 드디어 破壞 즉 革命에로 치닫게 된다.

1. 破壞의 法則

共産主義者들은 革命은 資本主義의 國家 機關을 暴力的으로 破壞하지 않고서는 不可能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破壞를 “法則” 이라고 까지 불러 강조하고 있다.

“ 프롤레타리아革命은 부르주아國家 機關을 暴力的으로 破壞하고, 이것을 새로운, 機關으로써 바꾸지 않고서는 不可能하다. ” (레닌 : 프롤레타리아革命과 背教者, 카우츠키)

“ 프롤레타리아아트의 暴力革命에 관한 法則, 이 革命의 전체 조건으로서의 부르주아國家 機關의 破壞에 관한 法則은.....革命 運動의 피할 수 없는 法則이다. ” (스탈린 : 레닌主義의 基礎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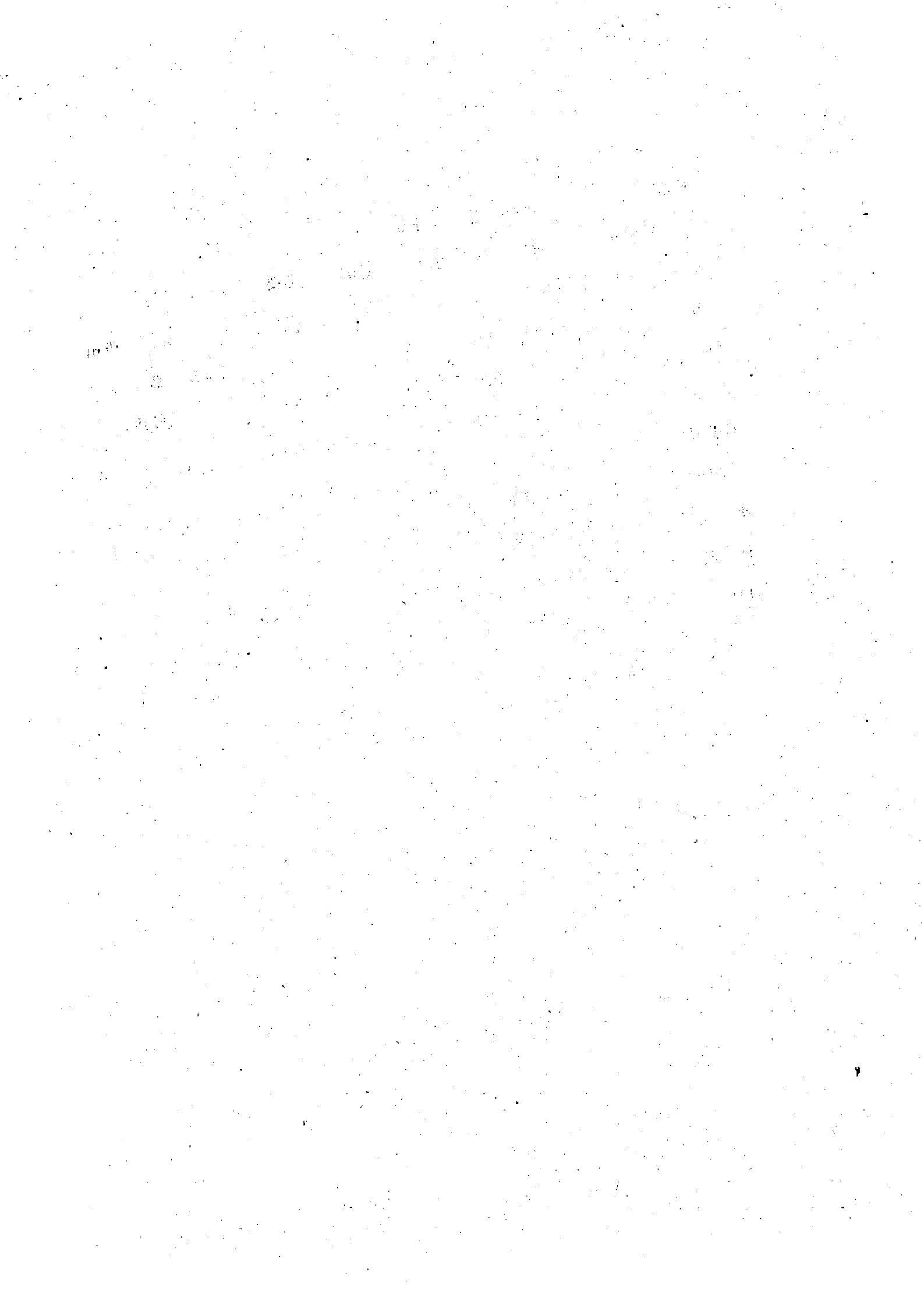
2. 破壞의 時機

破壞는 時機와 條件이 갖추어져야만 可能한 것이지 어느 때 아무데서나 可能한 것이 아니라고 저들은 또 強調하고 있다.

“ 革命은 社會의 胎內에서 성숙되고 客觀적으로 충분히 完熟된 危機로 부터 발생한다. 革命은 모든 國民層을 포괄하는 全般的인 政治的 危機없이 생각할 수 없다. ” (蘇聯共産黨史)

“ 革命의 根本法則은 실로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즉, ………
첫째로 勞動者의 대다수가 完全히 變革의 必要를 理解하고, 이 變
革을 위해서는 죽음을 拒否하지 않게 될 것, 둘째로는 支配階級이
政治危機에 빠져서, 이 危機가 가장 뒤떨어진 大衆조차도 政治에
끌어 들여서 政府를 弱化시키고, 革命黨이 政府를 속히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 (레닌 :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左
翼小兒病)

北傀가 말하는 “ 決定的 時機 ”가 바로 이것이니, 共產主義者들이
왜 이처럼 악착같이 政治的 混亂을 빚으려 하는가를 이로써 알
수 있는 동시에, 政治와 政局의 安定이 저들의 破壞工作을 막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울러 알 수 있을 것이다.



第3章 共產主義 哲學 批判

“哲學教程”에 따르면, “마르크스主義는 그 속에 세계의 구성부분 즉 哲學, 經濟學, 科學的社會主義의 理論을 包含하는 統一性 있는 整然한 학설”이라는 것인데, 그 가운데 哲學은 “마르크스主義의 그 經濟學, 科學的社會主義, 마르크스主義黨의 戰略과 戰術의 一般理論的인 基礎”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깊이 이해하려면, 마르크스主義 哲學을 잘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共產主義 哲學은 크게 보아 弁證法的唯物論과 史的唯物論의 두 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다시 唯物論, 認識論 및 弁證法的의 세 요소로 나뉘어 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哲學을 唯物論, 認識論, 弁證法, 史的唯物論의 차례로 알아 보기로 하자.

第1節 唯物論 批判

1. 唯物論의 主張

共產主義의 唯物論은 弁證法的唯物論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바 이것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를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弁證法的唯物論은 마르크스·레닌主義黨의 世界觀이다. 그것이

弁証法的唯物論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이 世界觀의 自然現象의 취급 방법, 自然現象의 研究方法, 이들 現象의 認識 방법이 弁証法的이며 또 이 世界觀에 의한 自然現象의 해석, 自然現象의 이해, 그 理論이 唯物論的이기 때문이다”. (스탈린: 弁証法的唯物論과 史的唯物論)

그런데 “哲學教程”에 따르면 “弁証法的唯物論의 출발점은 영원히 운동·발전하는 物質·自然의 客觀的 存在를 承認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먼저 物質이란 어떤 것인가. 그 存在形態는 어떠한가 하는 問題를 밝혀보자”고 말 하면서 이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더 말할 수 없이 各樣各色的 性質을 갖고있는 수 없이 많은 物체가 우리들을 에워싸고 있다. …… 이것들 모두가 총체로서 自然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형성하고 있다. 自然의 諸物체가 서로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들 모두에게 固有해 있는 것은 그것들이 意識·感覺·精神밖에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獨立해서 存在해 있다는 사실이다”. (哲學教程)

“먼 옛날에는 地球는 感覺이나 意識을 갖춘 人間의 存在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건 간에 다른 生物의 存在의 가능성도 완전히 排除하는 상태에 있었다. …… 人間의 意識은 自然의 발전의 일정 단계에서 그 산물로서 발생한 것임에 틀림없다. 무슨 다른 “人間을 超越한 意識” “絶對的 意識” “絶對的 精神” 따위의 것은 存在하지 않으며 存在할 수도 없다. 이 사실에 따라서 유물론적 哲學은 自然·物質이 第1次的이고 精神·意識은 第

2 次的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같은 책)

그러면 物質이란 무엇인가. “教程”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唯物論 哲學의 다른 어떤 개념도 物質이란 개념만큼 많은 공격을 불러일으킨 것은 없었을 것”인데 “教程”은 레닌의 유명한 “唯物論과 經驗批判論”의 일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物質의 개념에 대한 科學的 定義를, 레닌은 그의 著 ‘唯物論과 經驗批判論’에서 내리고 있다. 物質이란 인간에게 그 感覺에 있어서 주어지고 우리들의 感覺으로부터 獨立해서 存在하면서 우리들의 感覺에 依하여 描寫되고 撮影되고 反映되는 客觀的 實在를 表現하기 위한 哲學的 카테고리이다”。(같은 책)

레닌은 또 다음과 같이도 말하고 있다.

“物質의 唯一한 性質은 客觀的 實在란 性質, 즉 우리들의 의식 밖에 存在한다는 性質이다”。(레닌: 唯物論과 經驗批判論)

이와 같이 物質이란 개념을 “客觀的 實在를 表現하기 위한 哲學的 카테고리”라고 말하는 唯物論은 人間 역시 物質的 世界的 一부분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世界는 物質的이다. 그것은 하나이며 영원하며 무한하다. 그리고 物質的 世界的 最高의 產物, 그 精華인 人間 그 자체는 自然이라고 불리우는 커다란 전체의 일부분이다”。(哲學教程)

그런데 이와 같은 物質的 世界的 모든 것은 끊임없이 영원히 合法則的으로 運動·變化하는 것이 그 存在形態라고 한다.

“物質的 事物 가운데에는 어느 하나도 不變한 것은 없으며 모두 그것들은 끝이 있고 有限하다. 그러나 하나의 事物이 消滅할 때는 그에 대신하여 다른것이 발생하며, 그리고 그 때에는 物質의 한 粒子라 할지라도 痕跡도 없이 消滅하거나 無로 되는 일은 없으며 또 그와 同時에 아무리 微細한 하나의 粒子도 無에서 나오지 않는다. ……… 物質·自然은 영원하며 끝이 없고 無限하다”.

(같은 책)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이 즉 物質의 극히 작은 素粒子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惑星이나 星座에 이르기 까지 運動과 變化가운데 있다”, (같은 책)

따라서 “運動은 物質의 우연적인 상태인 것이 아니라 그의 제거할 수 없는 全般的인·永遠한 性質, 그 存在의 樣式·屬性이다”.

(같은 책)

그러므로 “物質은 運動 없이는 현실로 存在하지 않으며 또 存在할 수도 없다.

物質은 運動으로 부터 분리할 수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運動은 物質이 存在하는 永遠한 形態이다”. (같은 책)

이리하여 여기에 共產主義 哲學의 “가장 重要한 特徵”이란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主義 哲學의 가장 重要한 特徵은 다만 物質的 世界的 承認 뿐만이 아니라 物質·自然이 永遠한 끊임없는 그리고 合法則的인 變化와 發展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承認하는 것이다”.

(같은 책)

그러므로 共產主義 唯物論의 주장을 요약하면, (1) 意識에 대하여 物質이 1次的 또는 先次的이고, (2) 物質은 우리의 意識 밖에 客觀적으로 存在하며, (3) 그것은 영원히 끊임없이 그리고 合法則적으로 運動·變化해 간다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唯物論 批判

共產主義의 唯物論에 대한 批判에 있어서 이제까지 흔히 問題 되어온 것은, (1) 神과 宗教에 대한 부정, (2) 物質의 第1次性·先次性·本源性的의 주장, (3) 物質의 客觀的 實在性에 대한 주장, (4) 人間의 物質視, (5) 精神에 대한 輕視 내지 無視, (6) 唯物論的 人生觀 등 問題인데 이것을 批判하는 종래의 입장에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 類型이 있다.

(1) 宗教的 批判

唯物論에 대한 종래의 批判 가운데서도 가장 맹렬한 것은 아마도 宗教的 批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唯物論의 無神論 때문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즉, 대부분의 종교는 무엇인가의 非物質的이며 超自然的인 絕對者의 存在를 전제하고 그에 의한 世界의 創造를 信仰하고 있다. 그런데, 唯物論은 주장하기를 “外界는 自然이거나 社會의 어느쪽” 이어서 “自然과 人間 以外에는 아무 것도 存在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神의 存在를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宗教를 阿片이라고 말하고 있다.

“人間이 宗教를 만드는 것이지, 宗教가 人間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 宗教는 抑壓된 人間들의 嘆息이고 또 그것은 靈魂없는 상태의 영혼이며, 無情한 世界의 感情이다. 즉, 그것은 民衆의 阿片이다”. (마르크스 : 헤겔法律哲學批判 序論)

“ 宗教는 民衆의 阿片이다. …… 이 마르크스의 格言은 宗教問題에 있어서의 마르크스主義의 全世界觀의 礎石인 것이다. 마르크스主義는 現代의 모든 宗教와 教會 및 宗教 團體를 언제나 노동자 계급의 榨取를 擁護하고 그들을 麻醉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르주아 反動의 機關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레닌 : 宗教에 對한 勞動者黨의 態度에 對하여)

이와 같은 唯物論에 對하여 이번에는 宗教의 邊에서 맹렬한 反擊이 일어났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추세라 할 것이다.

“ 그러나 唯物論에 對한 宗教的 批判은 아무리 철저를 기한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限界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첫째로, 物質의 1次性 또는 先次性이라는 唯物論의 주장에 對하여 宗教的 批判은 흔히 神에 依한 世界의 創造를 주장하여 맞서고 있다.

그러나 “ 이 批判은 그 神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로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對하여는 충분한 說得力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聖經時尙에는 神에 依한 天地創

造를 아무런 의심 없이 설교하고 있는 미션·스쿨에서조차도
自然科学 時間에서까지 宇宙의 生成을 神으로 부터 설명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이 사실에 비추어 생각할때 唯物論에 對한 宗教的
批判은 客觀的 科學的인 問題에 對한 主觀的 信仰의 領域 侵害라
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尹元求: 平和的統一을 위한 共產
主義研究)

둘째로, “宗教가 만물의 創造者를 믿어 의심하지 않는 이상, 被
造物(즉, 物質的 世界)의 客觀的 實在性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被造物의 實在性을 부정하는 것은 곧 創造活
動을 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며 또 創造活動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創造者로서의 神의 存在 自体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같은 책)

그러므로 唯物論을 부정하려는 宗教的 批判이 왕왕히 主觀的 觀
念論의 입장에 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批判者 自身の 自
己矛盾이며 自己否定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같은
책)

(2) 唯心論的(또는 觀念論的) 批判

共產主義의 唯物論에 對한 批判의 다른 하나는 唯心論的(또
는 觀念論的) 批判이다 .

이들 중 이른바 主觀的 觀念論者들의 주장에 따르면 “人間은
직접으로는 다만 자기 자신의 意識의 여러 현상들 —— 感覺·表象·
概念 등 —— 에 관련을 가질 뿐이며 의식 밖에 있는 무엇인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哲学教程)

그러나 “이들이 한 사람의 觀念論的 哲學者로서는 物質의 實在性을 아무리 부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먹고 살고 있는 한 生活者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진실로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觀念論者는 없었던 것이니, 그러기에, 밥(物質)의 實在性을 부정하는 나머지 먹지 않음으로써 哲學的으로 굶어죽은 觀念論者가 있었다는 말은 일찌기 들어 본 일이 없는 것이다”. (尹元求: 前掲書)

이 점에 있어서, 오늘의 批判者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唯物論을 부정하는 批判者들이 만일 진정으로 物質的 世界의 客觀的 實在性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배가 고파도 밥(物質)을 먹을 수가 없을 것이고, 實在하지도 않는 달(物質)의 探險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며, 祖國(客觀的 實在)의 近代化란 것도 부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共產主義者들(客觀的 實在)과의 對話 따위 역시 처음부터 말조차도 성립될 수가 없을 것이다”.

(같은 책)

이 主觀的 觀念論과는 달리 “觀念論의 다른 流派——客觀的 觀念論은 인간의 밖에 또 인간으로 부터 獨立해서 存在한다는 精神·觀念을 本質的이라고 생각한다”. (哲学教程)

그 名稱이야 世界理性이든 絶對精神이든 간에, 物質 밖에 어떤 超越的인 觀念을 想定하는 이와 같은 주장은 플라톤의 옛날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 없이 있어왔다.

그러나 “뉴우튼이 이미 18世紀의 후반기에 自然 자체의 法則에 의해서 自然을 설명하는 방법을 발견한 이래 近世의 知性은 이 방법을 줄기차게 발전 시킴으로써 오늘의 빛나는 科學의 塔을 세웠으며, 우리들 자신 역시 國民學校의 “自然”으로 부터…… 大學의 素粒子論이나 量子力學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은 설명 방법을 극히 당연한 것으로서 인정하여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충분히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가 科學의 時代란 것을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尹元求：前揭書)

그러므로 “世界理性이나 絶對理念 따위로 부터 자연과 사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른바 客觀的 觀念論이란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前科學時代의 產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本質적으로 말하자면 世界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설명 가운데에서 非科學的인 要素를 아직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非科學的인 世界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책)

(3) 誤解 위에 선 批判

共產主義의 唯物論에 대한 批判 가운데 또 하나의 類型은 誤解에 기초한 반대와 부정의 경우이다.

첫째는, 物質이란 개념에 대한 誤解이다. 즉, 共產主義의 唯物論은 “人間은 自然의 일부분”이라느니 “世界는 物質的”이라느니 말함으로써 人間을 物質視한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共產主義의 唯物論에서 쓰고있는 物質이란 개념은 精神이

나 人間의 反對概念으로 쓰이는 日常의 用法의 物質이 아니라 客觀的 實在을 나타내는 “哲學的” 개념인 것이며 따라서 이 개념은 自然과 社會(즉, 人間)를 함께 包含하고 있어서 人間을 物質觀한다는 뜻이 아닌 것이다.

둘째는, 唯物論이란 것은 人間의 精神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경우이다.

사실 “哲學教程”의 말과 같이 “唯物論者 가운데 어떤자는 意識을 설명하여 예컨대 肝臟이 胆汁을 分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뇌에서 분비되는 특수한 物質의 變種이라고 말함으로써 意識을 부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哲學教程”에 있어서는 어떠한 하면 그와 같은 唯物論을 가리켜서 “俗된 唯物論者들”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腦야 말로 意識의 器官, 思考作用의 기관”이라고 말함으로써 人間의 精神을 분명히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共產主義의 唯物論은 人間의 精神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誤謬라고 말하는 식의 批判은, 적어도 “哲學教程”에 나타나 있는 唯物論에 관한 한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賢明한 批判者로서는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될 誤解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唯物論은 物質적인 것의 價值만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非道德的인 人生觀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경우인데 이와 같은 誤解는 唯物論이란 말이 오직(唯) 物質만을 탐내고 추구한다는 뜻으로 얼핏 보임으로써 한층 深化되고 있다.

唯物論에 관한 이와 같은 誤解에 대하여 일지기 앵겔스는 참으로 어이 없다는 말투로 다음과 같이 비꼬아 말하고 있다.

“俗된 者들은 唯物論이라고 하면 牛飲 馬食, 눈과 肉體의 享樂에 빠지는 것, 虛榮心, 金錢慾, 貧慾, 所有慾, 利殖, 投機, 詐欺, 한 마더로 말해서 온갖 추악한 惡德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앵겔스 : 포이엘 바하論)

그러나 唯物論을 이런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勿論 誤解이다.

그러므로 共產主義의 唯物論을 글자 풀이로 해석하여 오직(唯)物質的인 것의 價值만을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唯物主義, 拜金思想 또는 享樂主義 따위들과 혼동하는 批判者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誤解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無識 또는 曲解라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저들의 비웃음을 살 염려 마저도 없지 않다 할 것이다.

(4) 우리의 批判

共產主義의 唯物論을 批判함에 있어서 종래의 대부분의 批判者들은 共產主義者들의 哲學인 이 理論을 어떻게든지 해서 粉碎해 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해온 것이 사실이며, 더구나 우리의 경우와 같이, 共產主義者들로 부터 莫甚한 被害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反共法”이 嚴存하는 환경 속에서는 더욱 그러 하였다.

이리하여 “共產主義의 理論을 理論으로써 批判하는 자리에 까지 도 共產黨에 對한 敵愾心과 憎惡感이 그대로 옮겨짐으로써 共產主義의 理論은 어느 하나도 남김 없이 철저히 粉碎·排擊해야만 하

겠다는 感情이 理性을 압도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理論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是認하거나 肯定하는 것은 곧 共產主義의 자체를 同調・讚揚하는 것으로 느껴짐으로써 批判하는 것을 全面 否定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말하자면 “是是 非非”가 아니라 “是非 非非”의 思考方式 심지어는 共產主義 理論의 모든 부분을 남김 없이 非眞理라고 否定하지를 않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是認하거나 肯定하는 것은 곧 “容共的”인 것으로 간주하는 思考方式이 우리의 머리 속에서 어느 틈엔가 아주 당연한 것으로서 굳어져 버렸다. (尹元求：前揭書)

그러하여 “이번에는 否定만 하면 批判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생각이 우리들을 사로 잡음으로써 마침내는 共產主義의 理論에 對한 正確한 理解를 토대로 하지 않는 批判, 때로는 意識的인 曲解를 바탕으로 하는 批判, 심지어는 研究를 해 보기도 前에 否定부터 하는 식의 批判마저 나돌게 된 것이다”. (같은 책)

한 마디로 말해서 共產主義의 唯物論에 對한 종래의 批判은 그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理性的이라기 보다는 情意的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克服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반대하기 위한 批判이란 인상을 질게 풍겨 주었다 하겠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 같은 批判 자체가 도리어 批判되고 反省되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왜냐 하면 “反對”와 “否定”만으로 一貫하는 종래의 批判은 이미 다음과 같은 限界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反對와 否定으로 시종하는 종래의 批判은 그 자체에 對한 不信을 自招하고 있다. 즉, “한 두 페이지도 아닌 共產主義 理論이 眞理의 한 조각도 包含하고 있지 않은 完全한 誤謬의 體系라고 말하는 따위의 批判에 대해서라면 건전한 常識이나 知性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一抹의 懷疑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尹元求: 前揭書)

실지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知識層 가운데 일부에는 共產主義에 對한 批判을 “御用視”하거나 아니면 일종의 “말의 暴力” 또는 “學問의 外道”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冷淡한 눈초리로 흘려보는 눈들이 없지 않은”바 “反共을 國是라고 까지 내걸어 온 이 나라에서 共產主義의 批判이 “國是學”으로 評價되어 왔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와 같이 된 것은 그 원인의 적어도 一半은 共產主義를 批判하는 종래의 批判姿勢 자체의 잘못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앞으로의 對話·統一 과정에서는 共產主義에 의하여 철저히 教育·訓練된 共產主義者들과 직접으로 맞서서 理論·思想 鬭爭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이와 같은 상대에 對하여 誤解나 曲解를 바탕으로 하는 批判 또는 共產主義를 다만 반대·부정 할뿐 “더 나은 代案”이 없는 批判 따위를 내세워 맞선다고 하면 결과는 다만 非效果的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 자신의 無力·無識을 스스로 暴露함으로써 저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고 그리하여 또

저들의 士氣와 優越感을 길러 주게 되는 것이 고작일 것이니 그렇다면 이와 같은 批判이야말로 결과적으로 볼때는 적을 “鼓舞” 함으로써 “利敵”하는 꼴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共產主義에 對한 이제까지의 “是非 非非的” 批判 姿勢는 이제 止揚되어야 할 시기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이 앞날의 平和的 統一의 과정을 예상할 때, 이 必要性은 한層 더 절실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때 共產主義의 唯物論은 과연 어떠한가. 첫째로, 自然과 社會가 끊임없이 영원히 그리고 合法則的으로 運動하면서 우리의 意識 밖에 그리고 이것으로 부터 獨立해서 즉, 客觀적으로 存在한다고 하는 이 주장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이다.

둘째로, 唯物論의 잘못의 하나는 科學的 世界觀에다가 “唯物論”이란 レッテル을 부침으로써 마치 이 世界觀이 共產主義에만 특유한 사상인 것처럼 가로채고 그리하여 非共產主義者는 모두가 荒唐無稽한 헛소리나 지꺼리는 非眞理의 무리인 것처럼 꾸미고 있는 데에 있다.

셋째로, 唯物論은 意識과 存在(또는 精神과 物質)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심한 不完全性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 하면 이들의 관계는 (1) 意識의 發生과정, (2) 認識의 과정, (3) 創造의 과정등 세 경우가 각각 달라서 (1)의 경우에는 物質이 精神보다 앞서고 (2)의 경우에는 양자가 同時的으로 存在하며 (3)의 경우에

있어서는 物質보다 精神이 앞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의 唯物論은 (1)의 경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精神과 物質과의 관계는 저들의 주장처럼 物質이 언제나 先次的인 것도 아니며 또 宗教나 觀念論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精神이 언제나 本源的인 것도 아니어서 이들의 관계는 때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把握되어야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第2節 認識論 批判

1. 認識論의 主張

物質이 第1次的이고 意識은 第2次的이라고 말하는 唯物論 哲學을 바탕으로 共產主義의 哲學은 人間의 意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意識은 物質·自然의 最高의 產物이다. ……… 唯物論者들 가운데 어떤 者는 意識을 否定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意識을 설명하여 예컨대 肝臟이 胆汁을 分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腦에서 분비되는 특수한 物質의 變種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俗流 唯物論者들이다”. (哲學教程)

“意識은 腦의 產物, 고도로 조직된 物質의 產物, 腦의 機能이며 腦야·말로 意識의 器官, 思考作用의 機關이다”. (같은 책)

그러면 이와 같은 意識 속에 나타나는 感覺, 表象, 觀念, 概念,

理論, 認識, 思想 등 (共產主義 哲學에서는 이 모든것을 통틀어서 意識이란 말로써 표현하고 있다)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共產主義의 哲學은 “마르크스·레닌主義教程”이 “마르크스主義의 認識論은 反映論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른바 反映論을 취하고 있으며 더 말할것도 없이 反映論이란 것은 “人間이 하는 認識을 客觀的 世界的 反映”이라고 설명하는 理論이다.

“人間이 하는 認識은 客觀的 世界的 反映이다”. (같은 책)

“意識이 物質的 世界的 反映이라는 命題는 唯物論的 認識論의 기초이다”. (같은 책)

이 反映論의 주장을 共產主義의 哲學은 또 다음과 같은 말로도 표현하고 있다.

“感覺은 客觀的 世界的…… 主觀的 像이다”. (같은 책)

“感覺과 知覺은 物質的 對象의 模寫·描寫·像이다”. (같은 책)

“나의 環境에 對한 나의 關係가 나의 意識이다”. (마르크스 : 도이체·이데올로기)

“人間の 頭腦에 있어서의 思想은 현실의 事物 및 過程의 抽象的 模寫이다”. (엔겔스 : 反뒤이링論)

이것이 간단히 말해서 唯物論的 認識論의 要旨이다.

2. 認識論 批判

共產主義 理論의 다른 부분이나 마찬가지로 이 認識論 역시 이제까지에 많은 批判者들로 부터 여러 각도로 批判되어 온 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흔히 문제되어 온 것은 (1) 唯物論的 認識論은 反映論을 취함으로써 人間의 精神을 거울 같은 것, 즉 能動性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2) 認識에 있어서의 個人差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 등이 있다.

사실에 있어서 종래의 共產主義者들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素朴한 反映論을 주장한 자가 적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앞의 소개에서 본 바와 같이 “教程”은 그와 같은 唯物論者들을 가리켜서 “俗流 唯物論者”라고 규정하는 한편 저들의 反映論에 對한 批判者들의 위와같은 批判을 재빨리 받아 드림으로써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人間에 의한 世界의 知覺은 受動的으로 直觀하는 것(죽은것 같은 — 거울 같은것)이 아니라 能動的인 것이다”. (哲學教程)

이와 같이 唯物論的 認識論이 말하는 “反映”이란 것은 거울에 물체가 비치듯이 意識에 物質的 世界가 機械的으로 反映된다는 뜻이 이미 아니다.

그러면 人間의 意識은 어떤 方式으로 物質的 世界를 反映하는가 여기에 對하여 唯物論的 認識論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客觀的 實在가 우리의 感覺器官의 把握의 對象이 되는 그 순간에 感覺은 客觀的 實在의 完全히 正確한 像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物質的 對象의 最初에 나타나는 像은 몇번이나 되풀이 되는 知覺·思考의 작용 그 밖의 여러가지 感覺 器官에 의한

檢証에 기초하여 人間의 多面的인 實踐活動에 기초하여 차차로 正確해 지고 풍부하게 되며 完成되어 간다”. (같은 책)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나가더라도 우리의 認識은 끝내 完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模寫는 어떤 경우에도 모델과 完全히 똑같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다 틀 여지가 없다”. (같은 책)

그 원인에 대하여 恩겔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世界 체계의 사상적 模寫는 모두 각각 客觀的으로는 歷史的情勢에 依하여 그리고 主觀的으로는 그 創始者의 肉體的·精神的 상태에 의하여 制限을 받는 것이어서 그것을 면할 수는 없다”. (恩겔스: 反뒤이링論)

한 마디로 말해서 共產主義의 認識論은 人間 精神의 能動的 作用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認識의 個人差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면 저들의 認識論을 우리는 어떻게 評價할 수 있을까.

첫째로, 共產主義의 認識論은 人間의 精神이 소극的 또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能動的인 것임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이 能動的인 精神이 어떻게 인식을 형성하는가 그 方法에 對한 구체적 및 체계적인 설명 方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결함이 있다.

둘째로, 唯物論的 認識論은 우리의 認識이 “客觀的으로는 歷史的情勢에 의하여 그리고 主觀的으로는 그 創始者의 肉體的·精神的 상태에 의하여 制限을 받는다”고 말함으로써 認識에 있어서의

個人差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비치고 있을 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그 결함이 있다.

셋째로, 共產主義의 認識論은 人間의 精神 자체와 이 精神의 活動의 結果로 나타나는 感覺, 表象, 知覺, 觀念, 概念, 理論, 認識, 思想 등을 區別없이 모두 意識이란 말로써 나타내고 있는 결과가 理論의 지지자와 批判者의 양쪽에 대하여 다 함께 誤解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불충분의 허물이 있다 하겠다.

第3節 弁証法 批判

共產主義의 哲學은 弁証法을 研究할 必要性和 重要性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 마르크스主義 哲學의 가장 중요한 特徵은 다만 物質的 世界의 승인 뿐만이 아니라 物質・自然이 영원한 끊임 없는 그리고 合法則的인 변화와 발전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의 승인이다. 그러나 發展의 原理를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發展의 性格 및 源泉 모든 運動과 發展이 이루어지는 그 一般的 法則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重要하다”. (哲學教程)

그러면 弁証法은 무엇을 研究하는 것인가.

“ 그것은 發展의 가장 一般的인 諸法則, 낡은 것의 死滅과 새

것의 發生과의 여러 과정, 世界的 영원한 更新의 과정을 研究한다”
(같은 책)

그런데 弁証法에는 “量的 變化의 質的 變化에의 移行의 法則, 對立物의 統一과 鬪爭의 法則, 否定的 否定的 法則” 등 세 개의 法則이 있다는 것인데 이들 法則에 대하여 “教程”은 다음과 같이 그 윤곽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量的 變化의 質的 變化에의 移行의 法則은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對象이 質的 變化 및 轉化를 받는가를 설명하며 그 法則은 發展이 눈에 띄이지 않는 量的 變化의 漸次的인 停滯 없는 성장의 형태와 함께 漸次性的 中斷, 낮은 質的 상태로 부터 새로운 質的 상태에의 飛躍의 형태를 그 속에 包含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對立物의 統一과 鬪爭의 法則은 모든 發展의 源泉, 그 內的인 衝動, 여러 對象에 고유한 서로 對立하는 측면, 힘, 경향의 鬪爭 속에 包含되어 있는 起動力을 밝힌다.

否定的 否定的 法則은 發展의 基本的 方向, 본질적인 경향 單純한 것으로 부터 複雜한 것에, 낮은 것으로 부터 높은 것의 前進運動에 包含되어 있는 複雜한 “螺旋狀”의 이 運動의 형태를 反映하고 特徵 짓는다”. (같은 책)

한 마디로 말해서 이 世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運動과 變化가 “어떻게” “왜” 일어나며, 그 결과 “어찌” 되는가를 밝혀 주는 것이 弁証法의 세 법칙들이 말아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弁証法의 特殊性은 自然과 社會와 人間의 思考등 세 領域에 걸쳐서 作用하고 있는 가장 普遍的이고도 根本적인 發展法則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라고 한다.

“과학으로서의 弁証法의 特殊性은 그것이 自然에 있어서도 社會에 있어서도 思考에 있어서도 作用하고 있는 여러가지의 가장 一般的인 發展法則을 反映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같은 책)

그리하여 英겔스는 弁証法을 다음과 같이 古典적으로 定義하고 있다.

“弁証法은 外部의 世界와 人間의 思考의 運動의 一般的인 諸法則에 관한 과학이다”. (英겔스: 포이엘바하論)

그러나 이들 法則은, 어디까지나 一般的 法則이므로 각개의 현상에 따라 “그들에 特有的 性質을 통해서 屈折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現象을 具體적으로 分析하라”고 저들은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具體性”을 가리켜서 “마르크스主義 弁証法의 가장 重要하고도 가장 決定的인 特殊性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한편, 弁証法에 관해서 흔히 빠지고 있는 誤解 즉 弁証法을 곧 “正·反·合”으로 생각하는 誤解를 “教程”은 圖式主義 또는 俗된 理解라고 불러서 이것을 嚴格히 警戒하고 있다.

“弁証法의 方法의 本質을 弁証法의 諸法則이나 諸 概念 밑에 各개의 事實을 처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弁証法의 俗된 理解이다. …… 弁証法은 具體적인 發展의

생생한 多樣性을 한 개의 또는 몇 개의 形式에 처넣는 모든 圖式主義의 無緣하다”。(哲學教程)

그러면 弁證法의 세 개 法則에 대하여 차례로 批判하기로 하자.

1. 量的 變化의 質的 變化에의 移行의 法則 批判

이 法則을 定義하여 共產主義의 哲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量的 變化의 質的 變化에의 移行의 法則은 이 法則의 作用에 依해서 조그만, 처음에는 눈에 띄이지 않는 量的 變化가 漸次로 集積되어 어떤 단계에 있어서 對象의 度量을 破棄하고 그 근본적인 質的 變化를 불러 일으켜 그 결과 對象은 變化해서 남은 質은 消滅하고 새로운 質이 出現하는 그러한 法則이다”。(같은 책)

共產主義의 弁證法에 따르면 運動과 變化에는 量的인 것과 質的인 것의 두가지가 있는데, 남은 것과 새 것의 교대인 質的 變化는 처음에는 눈에 띄이지 않거나 거의 눈에 띄이지 않는 조그만 量的 變化가 漸次로 蓄積된 결과로서 일어난다는 것이며, 質과 量的 이와 같은 “相互聯関” 또는 “相互依存”을 度量이란 말로써 표현하고 있다.

“質과 量的 통일 相互聯関, 相互依存은 度量이란 概念 가운데 표현되고 있다”。(같은 책)

“質과 量的은 서로의 사이에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한쪽의 變化는 다른쪽의 合法則적인 變化를 불러 일으킨다. 量的 變化는

각기 사물에 있어서 일정한 限界에 도달함으로써 質的 變化를 일으킨다” . (같은 책)

그러기 때문에 弁証法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각기 對象은 그 質的 特性의 기초에 일정한 量이 存在해 있다 . 度量은 質과 量의 統一 및 相互作用이다 . …… 度量은 對象의 存在의 한도이다 . 度量을 破棄하는 것은 주어진 對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어떤 현상 또는 과정의 度量의 破棄는 不具化나 歪曲으로 이끈다” (같은 책)

그런데 弁証法에 따르면, 量的 變化는 進化的 發展形態이고, 質的 變化는 革命的인 發展 形態이며 이 革命的 變化는 “存在하는 것의 根本的인 變化”로서 곧 飛躍이고 量的 變化의 漸次性的 中斷, 어떤 하나의 質로부터 다른 質로의 移行이어서 質的 變化는 어느 것이나 飛躍의 形態로써 이루어진다” . (같은 책)는 것이다 .

이리하여 종래의 弁証法에 있어서는 스탈린의 해석에 따라서 이 飛躍을 언제나 迅速한, 突然한, 革命的인 形態로서만 이해 하고 또 강조하였다 .

“質的 變化가 漸次的으로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迅速히, 突然히 한 상태로 부터 다른 한 상태로 飛躍적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오는 것이 法則이라면 . …… 資本主義로 부터 社會主義으로 移行하는……것은……오직 革命的 方式으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政治에서 誤謬를 범하지 않으려면, 改良主義者가 될 것이 아니라 革命家가 되어야 한다”. (스탈린: 弁証法的 唯物論과 史的唯物論)

한 마디로 말해서, 質的 變化는 언제나 革命의 形態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社會의 改造도 오직 革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니, 共產主義와 그 革命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批判者들이 弁証法的의 이 法則을 한사코 부인 또는 반대해 온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社會 發展에 있어서 革命에 해당되는 이 “飛躍”에 대한 설명이 흐루시초프에 의한 修正主義 제창 후 2年뒤인 1958년에 나온 소련의 “哲學教程”에서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飛躍은 반드시 瞬間的 行動이라는 형태를 취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왕왕히 생각되고 있다. …… 그러나 여기서는, 飛躍이 무슨 正確하게 정해진 期間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나오지 않는다”. (哲學教程)

“飛躍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瞬間的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時間的으로 긴 時間 가운데서 수행되는 飛躍도 있는 것이다”.

(같은 책)

“質的 變化가 對象을 단번에 全體的으로 바꾸는 그러한 飛躍의 形態만을 취하여 이루어지는 대상이 있다. …… 그러나 對象·質을 단번에 바꾸지 않고, 漸次的으로 部分的으로 개개의 측면에 관

해서 바꾸는 식의 飛躍도 왕왕히 있다.

이런 경우에는 對象의 質的 變化는 낡은것의 제 요소의 漸次的인 死滅과 새로운 質의 제 요소의 漸次的인 增大라는 절차를 밟아서 실현된다.

예컨대 植物이나 動物의 發展에 있어서는 하나의 種으로 부터 다른 種에의 轉化過程의 複雜性에 제약된 가장 典型的인 形態는 漸次的인 質的 改造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의 것으로 부터 다른 것에의 明瞭한 移行의 形態에 부딪칠 경우도 있기는 하나 動物界로 부터 人間에의 移行, 人間의 발생과 형성이란 것과 같은 複雜한 過程은 단번에는 실현되지 않고, 일련의 단계로 되어 있으며, 過渡的인 諸 形態를 그 가운데 包含하고 있다”. (같은 책)

즉, “教程”은 飛躍을 瞬間的 및 漸次的의 두 形態로 나눈 다음 動物이나 植物의 發展과 같은 複雜한 過程에 있어서는 突然變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漸次的 飛躍이야말로 典型的 形態라고 언명함으로써, 스탈린과의 差異點을 더 없이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첫째로, 飛躍에 瞬間的 및 漸次的이란 두 가지 形態를 認定하고 있는 “教程”의 해석은 瞬間的(즉 革命的) 形態만을 인정해온 스탈린과는 달리 理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이 法則(따라서 弁証法)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革命 一般과 그리고 共產主義革命에 의한 資本主義의 滅亡이라는
저들의 주장을 시인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이 法則을 認定·援用할 때는 民主的 方式에 의한 資
本主義의 前進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지금 民主主義의 發展을 통한 福祉社会에의 移行의
길을 걸어 나아가고 있는 바 이것이 바로 漸次的 形態의 飛躍…
“낡은 것(資本主義)의 要素(矛盾·病弊)의 漸次的인 死滅과
새로운 質(福祉社会)의 要素(福祉制度와 政策)의 漸次的인
増大라는 절차를 밟아서 실현되는” 社会改造 —— 인 것이다.

또 우리의 祖國近代化作業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韓國社会를
“단번에 바꾸지 않고, 漸次的으로, 部分的으로, 개개의 측면에 관해
서 바꾸는 식의 飛躍”에 의하여 바꾸어 말하면 “낡은 것(前近
代的祖國)의 要素(後進性)의 漸次的인 死滅과 새로운 質(近
代的祖國)의 要素(近代的 諸制度 및 政策들)의 漸次的인
増大란 절차를 밟아서 실현해 가는” 社会改造 —— 이것이 바로 우
리의 祖國近代化作業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法則은 덮어놓고 부정·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社会改造 노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肯定·活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된다.

2. 對立物의 統一과 鬭爭의 法則 批判

“教程”에 따르면 앞의 法則은 “質的 變化의 과정의 메카니

음을 밝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모든 發展의 源泉이나 하는 문제에는 答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문제에 對해서는 弁証法의 다른 法則——對立物의 統一과 鬭爭의 法則, 發展의 源泉으로서의 矛盾의 法則——이 大答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法則은 어떤 法則인가.

“우리는 對立物의 統一과 鬭爭의 法則을 다음과 같이 定式化할 수 있다. 對立物의 統一과 鬭爭은 이 法則에 의해서 모든 事物·現象·過程에 鬭爭 상태에 있는 內的으로 矛盾하는 측면·경향이 본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法則이다. 對立物의 鬭爭은 發展에의 內的衝動을 주며 矛盾의 增大에로 이끈다.

이 모순은 일정 단계에서 낡은 것의 消滅과 새로운 것의 出現에 의하여 해결된다”. (哲學教程)

이 法則에 對하여 스탈린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形而上學과는 반대로 弁証法은 自然物과 自然現象에는 內在的 矛盾이 본래 고유하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왜냐하면 그것들 모두는 그 否定的인 면과 肯定的인 면을 갖고 있으며 그 생명을 마치며 있는 것과 發展하며 있는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 對立物 사이의 鬭爭,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鬭爭 死滅해 가고있는 것과 發展하고 있는 것 사이의 鬭爭, 生命을 마치며 있는 것과 發展하고 있는 것 사이의 鬭爭이 發展過程의 內的 內容을 이루는 것이란 사실로 부터 출발하고 있다”. (스탈린: 前揭書)

그러하여 이것을 토대로 삼고, 스탈린은 다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內的 矛盾을 들추어내는 형식으로, 이 矛盾을 克服하기 위하여 이 모순의 토대 위에서 對立的 勢力들이 衝突하는 方式으로 發展이 進行되는 이상, 프롤레타리아아트의 階級鬭爭이야 말로 전혀 自然스러운 것이며 또 必然的인 現象이란 것이 명백하다. 즉, …… 階級鬭爭을 消滅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治에서 誤謬를 범하지 않으려면, 프롤레타리아아트의 부르주아지의 利害關係를 調和시키려는 改良主義的 政策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和解 없는 階級的 프롤레타리아의 政策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책)

한 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물은 矛盾의 統一體이며, 이 矛盾의 鬭爭에 의하여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니, 이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對立物의 鬭爭은…… 創造力이다”. (哲學教程)

“矛盾은 發展의 內的 源泉이며 衝動이다”. (같은 책)

“矛盾은 發展의 源泉이며 起動力이다”. (같은 책)

“發展은 對立物의 鬭爭이다”. (레닌: 哲學노오트)

그런데 共產主義의 文獻을 깊게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눈에 뜨인다.

“이들 對立物의 各개의 一側面은 他者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

는 것이며 그것들은 서로서로 타자를 補足한다”。(哲學教程)

“社會의 物質的 生産力은 그 發達의 일정한 단계에서 종래 그 것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던 바 現存의 生産關係와 衝突하게 된다. 이들의 關係는 生産力의 發展形態로 부터 그 桎梏에로 변한다”。(마르크스: 經濟學批判 序言)

“각기 社會構成體의 存在는 그 構成體가 社會의 進步的 發展을 促進하는 동안은 역사적으로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現存하는 社會體制가 發展의 브레이크로 변할 때 그 滅亡은 피할 수 없이 된다”。(哲學教程)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물에 內在하는 두개 側面의 關係는 처음부터 矛盾하는 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서로서로 調和되고 補足하는 關係에 있다가 發展의 어느 단계에 가서 비로소 서로 排斥·否定하는 關係에로 轉化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教程”도 이것을 시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矛盾은 반드시는 갑자기 날카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그것은 다만 差異란 性格을 띠고 있어서 이것이 矛盾의 最初의 形態이다.

發展의 과정에서 “差異”가 “對立物”로 轉化한다. 즉, 한층 發展한 矛盾에로 轉化한다.

그 때에 矛盾의 두개 측면이 날카롭게 부정하는 것이다”.

(같은 책)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된다.

첫째로, 共產主義의 弁証法은 矛盾이란 말을 濫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원래 兩立할 수 없는 관계를 뜻하는 것인데 이 法則에서 말하는 바 事物의 두 개 측면은 처음부터 矛盾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단순한 “差異”만을 보일 뿐으로 도리어 서로 돕고 서로 調和·補足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矛盾이 아닌 것이며 따라서 이 法則은 “矛盾의 法則”이 아니라 “相補의 法則”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教程”은 “부르조아哲學者나 經濟學者들은…… 對立物 사이의…… 統一·同一을 강조하고, 다른 측면——그들의 相互否定·矛盾——을 입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偏狹을 비난하고 있으나 저들 역시 矛盾의 일면만을 강조하는 偏狹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發展의 原因과 結果를 뒤바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共產主義者들은 “矛盾은 發展의 內的 源泉이며 起動力”이라느니 “발전은 對立物의 鬪爭”이라느니 “對立物의 鬪爭은 創造力”이라느니 말함으로써, 마치 鬪爭 자체가 發展의 原動力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人間社會의 역사적 발전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볼 때 社會의 발전은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모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生産力의 發展에서 오는 것이며, 이 生産力의 發展의 “결과”로서 그들의 衝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鬪爭 자체가 發展의 原動力인 것처럼 말하는 저들의 주장은 原因과 結果를 뒤바꾼 것이며 職業的 革命家들에 의한 저

들 직업(즉 革命)에 對한 正當化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否定的 否定的 法則 批判

이 法則은 “ 出生하는 것과 死滅해 가는 것,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의 부단한 鬪爭에는 어떤 客觀的 傾向, 어떤 方向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教程”에 따르면 “ 弁証法的 唯物論은 無秩序하고 混沌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複雜하고 더구나 왕왕히 혼란된 運動 전체를 통해서 單純한 것으로부터 複雜한 것으로,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으로 전진하는 發展의 基本線이 길을 파헤쳐 나간다고 주장한다.

發展의 이 측면이 否定的 否定的 法則에 表現되어 있다.

이 法則의 地位와 意義는 실로 그것이 發展의 성격에 관한 가장 一般化된 概念을 주며 發展의 여러 단계의 內的인 關聯, 首尾一貫性, 繼承性을 밝히고 運動의 前進的 進行, 發展의 複雜한 “ 螺旋狀”의 형태를 제약하고 있는 연관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로써 규정되고 있다”. (哲學教程)

그러면 否定的 否定的 法則이란 어떤 것인가.

“ 否定的 否定的 法則이란 그 작용에 의해서 부정되는 것과 부정하는 것과의 사이의 關聯·繼承性이 조건지워지며 그것에 의하여 弁証法的 否定이 그 이전의 모든 發展을 내던지는 不毛의 浪費的인 부정으로서가 아니라 先行하는 여러 단계의 모든 積極的인 것

을 제 속에 維持하고 保有하며 보다 높은 기초 위에서 지나온 여러 단계의 무엇인가의 제 특징을 되풀이 하여, 전체로서 前進的·進步的인 성격을 갖는 발전의 조건으로서 나타나는 바 法則이다” .
(같은 책)

그러므로 “부정은 發展의 條件이며 그와 동시에 發展의 連續性·繼承性的의 표현이며 發展의 相異한 단계와 契機 사이의 부정되는 것과 부정하는 것과의 사이의 聯関의 표현이다. 이것은 부정의 극히 중요한 측면이다. 이것들 사이의 關係는 새것이 無로 부터가 아니라 낡은 것으로 부터서만 나온다는 바로 이 사실에 의해서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낡은 것은 새것을 產出하는 그 운동 가운데서 다만 내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새것에 의하여 “揚棄된다” .

양기 (또는 止揚)라는 哲學的 概念은 否定과 保存을 同時에 의미하며 先行하는 상태의 否定과 새것 속에 先行하는 發展에 의해서 達成된 모든 肯定的인 것을 保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같은 책)

이것이 이른바 부정의 부정의 法則에 關한 根本命題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토대로 삼고 스탈린은 다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資本主義制度가 일찌기 封建制度를 代置한 것처럼 資本主義 制度는 社會主義 制度에 의하여 代치될 수 있다. 지금은 우세한 힘을 이루고 있으나 이 이상 發展하지 않는 社會層의 立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세한 힘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나 그러나 發展하며 將來性

을 갖고 있는 社會層의 立場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政治에 있어서 誤謬를 범하지 않으려면 後方을 볼 것이 아니라 前方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 (스탈린: 唯物論的 弁證法과 史的唯物論)

그러나 前進的 運動이라고 해서 一時的 後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教程”은 여기서 이른바 “지그자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前進的 運動의 一般的 경향 밑에서 이 運動의 線의 개개의 斷片은 前方이 아니라 後方을 향하여 後方에의 運動 後退의 모멘트를 나타낼 경우도 있다. 예컨대 社會에 있어서 새로운 先進的인 勢力은 당장에 勝利하지 않는다. 왕왕히 이 勢力은 낡은 勢力으로 부터 敗北 당한다. 後者는 처음에는 갖 발생한 새 것보다도 훨씬 強固하다. 여기로 부터 發展에 있어서의 지그자그 一時的 後退는 不可避的인 것이다”. (哲學教程)

한 마더로 말해서 모든 사물의 運動과 變化는 끝 없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 運動은 지그자그와 一時的인 後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더 나은 데, 더 높은데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생각컨대 自然과 社會의 모든 사물이 끊임 없이 그리고 영원히 運動·變化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사실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運動의

결과가 어떻게 반드시 “낮은 것으로 부터 높은 것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教程”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發展은 어떤 현상의 肯定(存在)의 단계, 그에 이어서 그 否定의 단계, 그리고 끝으로 否定의 否定의 단계를 경과한다. 이보다 높은 단계에 있어서 처음 두 단계에 있었던 價值있는 것이 綜合되고 占取되고 改作되며 그리고 이들 처음의 제 단계의 壽命을 마친 요소가 사라지고 絶滅됨으로써 전체로서의 發展의 上向線을 더듬어서 單純한 것으로부터 複雜한 것에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같은 책)

그러나 부정에 처한 否定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부정된 것보다 언제나 새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언제나 더 높거나 더 價值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李朝의 磁器가 반드시 高麗磁器보다 더 좋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며, 오늘의 希臘 藝術이 古代의 그것보다 꼭 더 훌륭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러면 共產主義者들은 왜 이 法則을 내세우면서 “새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레닌이 말한 바 “資本主義는 中世主義에 비하면………
善이다. ……… 그러나 社會主義에 비하면 惡”이라는 주장 즉,
저들의 共產主義社會는 資本主義社會보다 다만 새로울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회라는 주장을 合理化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發展에 있어서의 지그자그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오늘의

共産主義社會가 資本主義社會에 비해서 꼭 더 훌륭한 社會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論理라 할 것이다.

第4節 史的唯物論 批判

史的唯物論은 “哲學的 唯物論과 唯物論的 弁証法을 社會의 인식에
로 확장한 結果로서” 만들어져 나온 理論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史的唯物論은 특수한 社會科學과는 달라서 社會生活의
개개의 측면…… 經濟的·政治的 또는 이데올로기의 과정의 發展
이 그에 따르고 있는바 부분적 및 특수적인 여러 法則이 아니라,
社會發展의 가장 一般的인 合法則性을 研究하는 것이다”. (哲學教
程)

바꾸어 말하면 “弁証法的唯物論의 여러 法則과 카테고리는 社會
에 적용할 경우에도 힘을 갖고 있어서” 史的唯物論은 그것을
“自然과는 質적으로 다른 物質的 世界의 특수한 한 영역”인 社會
에 적용함으로써 人間社會의 歷史的 發展에 關한 一般的 法則을
研究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史的唯物論의 主張

(1) 生産力·生産關係

史的唯物論은 人間 社會를 끊임 없는 發展 가운데 있는 하
나의 有機體로 보고 있다.

“史的唯物論은 人間 社會, 經濟的·社會構成體를 산, 끊임 없는
發展 가운데 있는 有機體이며 經濟的 關係와 政治的 關係와 精神

的 關係까지도 더구나 그것들을 內的 相互聯關 가운데 把握된 것으로서 제 속에 包含하고 있는바 有機體라고 보고 있다” . (같은책)

그런데 마르크스에 따르면 人間社會는 “ 극히 개략적으로 말해서 亞細亞的인 古代(그리샤·로오마)的인 封建的인 그리고 近代資本家的인 生産方法으로써…… 진보의 단계를 삼아 왔다 ” . (經濟學批判序言) 고하는 바 人間 社會를 이와 같이 전진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生産力이라는 것이다 .

“ 社會的 生産力의 增大가 결국 社會 生活에 있어서의 모든 變化의 根本原因이며 源泉이다 .

레닌은 生産力의 發展이야말로 社會 進步의 根本的 基準이라고 가르쳤다 ” . (哲學教程)

그러면 生産力이란 무엇인가 .

“ 社會的 生産力이란 社會에 依해서 만들어진 勞動手段, 生産用具 및 일정한 生産上의 經驗과 勞動의 訓練을 몸에 익히고 물질적 재화의 生産을 실현하는 人間을 말한다 ” . (같은 책)

(2) 社會의 土台와 上部構造

그런데 史的唯物論의 주장에 따르면 이 生産力의 性格에 照應하여 生産關係 —— 사람과 사람과의 經濟的 諸關係 또는 生産過程에서 직접으로 형성되는 사람들의 關係 —— 가 형성되고 이것들은 일체가 되어 生産樣式을 형성한다고 하는 바 이 “ 生産樣式이 發展하는 결과로서 社會體制, 社會思想, 政治的, 法的인 여러 기관들 각종 형태 등이 변화하는 것이 社會의 發展法則 ” 이라고 주장함으로써 人間社會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것을 마치

建築物에 견주어 土台와 上部構造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土台와 上部構造란 개념은 社會의 經濟體制와 그 사상 및 기관과의 實在的인 聯關關係를 또 그리고 후자의 변화의 制·法則을 표현하고 있다. 土台와 上部構造란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 마르크스는 社會를 말하자면 建物에 견주고 있다. 즉 社會 안에는 基礎·根底가 있고 그위에 社會思想과 이에 照應하는 기관이 성장한다는 것이다”. (같은 책)

“社會의 土台는 物質的 生産과 사람들의 生活의 再生産과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람들 사이의 經濟的 諸關係의 總體를 包含하고 있다. …… 生産關係는…… 生産力의 發展의 영향을 입어서 직접적으로 변화한다. 經濟的 諸關係는 生産力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자신이 모든 上部構造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책)

그러면 上部 構造란 어떤 것인가.

“社會의 上部構造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모든 社會思想과 이에 照應하는 여러 기관들 즉 國家, 法, 政黨, 政治思想, 道德, 藝術, 哲學, 宗教, 敎會 등이다. …… 上部構造의 모든 부분은 社會의 經濟를 反映하고 있으며 그 일정한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것이다”. (같은 책)

(3) 階級 및 階級鬭爭

그러나 이와 같은 照應關係에도 불구하고 토대의 發展에 따

라서 이들 사이에 不照應과 矛盾을 나타내게 되고, 이 矛盾은 階級鬭爭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주장하여, 여기에 階級鬭爭論을 내세우고 있다.

“上部構造의 土台上的 照應을 절대적 및 불변한 것으로서 形而上學的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 上部構造는 經濟體制와 그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나, …… 그것은 自動적으로 變化하는 것은 아니다. 階級社會에 있어서는 그것은 相異한 社會的 階級과 社會的 集團 사이의 鬭爭을 통해서 變化한다”. (같은 책)

그런데 史的唯物論에 따르면 “사람들의 각종 그룹이 生産手段에 대해서 각각 다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階級の 차이의 基礎”라는 것이며 “階級鬭爭은 經濟 狀態의 對立과 상이한 階級の 利害關係의 矛盾에 의해서 發生한다”는 것인데 共產主義者들은 이 階級鬭爭을 가리켜서 社會 發展의 動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敵對的 社會의 發展의 動因은 革命的인 階級鬭爭이다. 그것이 그리고 그것만이 生命을 마친 여러 기관의 분쇄에로 이끌며 따라서 社會를 前進시키는 것이다. …… 階級鬭爭은 階級 社會의 發展의 合法則性이며 그 原動力이다”. (같은 책)

(4) 國家論

史的唯物論은 이와 같은 階級鬭爭論에 입각하여 이번에는 저들 특유의 國家論을 주장하고 나선다.

“搾取者의 支配의 基礎는 그들의 經濟的 強大性이다. ……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지배를 유지하기에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다시 被搾取者들의 抵抗을 鎮壓하기 위한
그들을 복종시켜 두기 위한 조직된 힘이 必要하다.

이와 같은 힘이 國家이다.

國家란 특정한 階級の 支配의 經濟的 基礎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바 政治權力이라고 하는 階級的 組織이다”. (같은 책)

“國家는 階級 對立의 非和解性的 產物이며 그 표현이다. 國家
는 階級 對立이 客觀적으로 和解될 수 없게 된 데에, 그 때에
그 한에서 발생한다”. (레닌: 國家와 革命)

“近代 國家의 行政府란 전체 부르조아의 共同業務를 관리하는
委員會에 지나지 않는다”. (共産黨 宣言)

그런데 國家를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 共産主義者들은 저들
國家의 存在 理由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든 先行하는 支配階級과는 달라서 프롤레타리아아트는 자기의
階級 支配를 영구히 굳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社會의 階級的 分裂
을 絶滅하고 完全한 共産主義에의 國家가 없는 社會에의 이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政治權力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는 것이다”.

(哲學教程)

“階級の 發生이 불가피 했던 것처럼 그 消滅도 不可避할 것이
다. 階級이 消滅하면 國家도 不可避적으로 消滅한다. 生産자의
自由, 平等한 結合을 토대로 하여 生産을 새로 조직하는 社會는
國家機構 전체를 그것이 그 때 가서 소속될 곳에 즉, 불레와 靑

銅 도끼와 나란히 骨董品 博物館에 갖다 놓을 것이다”. (엔겔스: 家族·私有財産 및 國家의 起源)

2. 史的唯物論 批判

史的唯物論을 批判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 즉, (1) 生産力の 發展 原因과 그 役割, (2) 生産力과 生産關係와 의 關係, (3) 社會의 土台와 上部構造와의 關係, (4) 階級 및 階級鬭爭論, (5) 國家論 등등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生産力の發展 原因과 그 役割

史的唯物論은 人間 社會의 모든 變化의 根本原因을 生産力에서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生産力 자체의 發展 原因에 대하여 말하기를 “地理的 環境이나 人口密度, 사람들의 慾求의 증대, 科學的 知識의 成果等 많은 諸 要因이 生産力の 發展에 影響을 미친다. 그러나 이들 諸 要因 가운데 어느 하나도 生産力 發展의 根本的이고 主要한 原因으로 되는 것은 없다”고 부정한 다음 그 原因이 “주로 生産力과 生産關係와의 相互作用”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生産力에 대한 生産關係의 關係는 “生産力の 發展을 위한 여지를 주거나” 또는 그것을 “抑壓”하는 것, 즉, 外的 條件이지 原因 자체가 아니다. 마치 좋은길은 車를 빨리 달릴 수 있게 하고 나쁜길은 車의 速력을 낮춘다고 해서 車의 速력이 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길은 그 車로 하여금 車 자체의 速力

을發揮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外的 條件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生産力을 發展시키는 根本原因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哲學教程”은 또 “社會에 의하여 만들어진……”이란 표현을 쓸 때가 있다. 그러나 生産力이 社會 안에서 發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막연히 社會가 만든다는 말은 正確하지도 않고 옳은 대답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教程”은 또 勤勞大衆을 내세워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生産力을 創造·發展시키는 것은 이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勤勞大衆은 生産力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勤勞大衆이 生産力을 發展시킨다는 말은 生産力이 生産力을 發展시킨다는 말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生産力의 發展原因에 대한 史的唯物論의 설명은 어느 하나도 진실을 옳게 지적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生産力 자체를 創造·發展시키는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勤勞大衆이 使用함으로써 (1) 되도록 費用을 節減하고 (2) 時間과 勞動을 節約하면서 (3) 더 좋은 商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技術과 機械를 단순히 “生産”하는 것이 아니라 創造·發明해 내는 사람들——즉 創造的인 技術者·科學者·發明家들인 것이니 이들이 오늘의 生産過程 안에서 맡아 하는 創造的 役割에 대해서는 第4章 第2節에서 研究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生産力을 發展시키는 것은 勞動手段을 다만 “使用”하여 “勞動”하는데 그치는 勤勞大衆이 아니라 技術과 機械를 創造하고 發明함으로써 저들과는 그 機能을 根本적으로 달리하고 있

는 이들 科学·技術者란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그러면 生産力의 發展이 社会發展의 源泉이라는 주장은 어떠한가.

이 명제에 관한 한 우리들 자신의 實踐에 의하여 그 正当性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

즉, 우리는 지금 祖國의 近代化로 民族中興을 成就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 祖國近代化라는 社会 改造를 經濟開發로써 밀받침하고 다시 이것을 科学과 技術의 發展으로써 밀받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니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을 樹立·實踐하고 있는 政府가 다른 한편에서는 科学技術 勸를 創設하고 科学技術振興 5 個年計劃을 作成·實施하고 있으며 科学技術研究所를 設置하고 科学技術教育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모두 그것이다.

그러므로 生産力의 發展이 社会 發展의 原動力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종래의 批判者들이 보여온 반대와 부정은 명백한 現實 遊離이며 우리들 자신의 實踐에 대한 自己否定 또는 自己矛盾이 아닐 수 없다” . (尹元求：前揭書)

그러나 위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에는 다음 事項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로, 生産力이란 概念은 社会 發展의 原動力을 經濟的 次元에서 把握한 것일 뿐 그 內容은 어디까지나 科学과 技術이라는 사실이다.

둘째로, 生産力이 社会 發展의 原動力이란 말은 生産力이 社会

의 모든 부분을 직접으로 制約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 生産力이 직접 制約하는 것은 生産方法이며 生産力은 이 生産方法의 發展을 통해서 間接的으로 社會에 變化를 준다. “教程”이 生産力의 增大가 “결국”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모든 變化의 “唯一”이 아니라 “根本”原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역시 그것이다.

(2) 生産力과 生産關係와의 關係

史的唯物論의 주장에 따르면 “生産關係는 生産力의 성격에 照應한다”는 것 — 다시 말해서 “生産關係는 生産力의 發展에 依存해서 變化한다”는 것은 “客觀的인 經濟法則”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역시 이제까지의 많은 批判者들에 의하여 攻駁되어 왔다.

“이러하면 中國의 역사에서는 生産力은 100年 전쯤 까지에 이르는 약 2000年 間은 停滯狀態에 빠져 거의 變化가 없었으나 生産關係에서는 班田收受의 國家社會主義의 형태로 부터 封建制와 王權制가 번갈아 성립할 수 있었으며, 現在의 美·蘇는 거의 同一한 生産力 위에서 하나는 “資本主義” 하나는 “社會主義”라는 전혀 異質的인 生産關係가 성립하였다.

그 보다도 中共·北韓·東歐등 소위 “人民民主主義”로 알려진 共產國家들에서는 生産力은 先進資本主義의 그것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生産關係는 資本主義의 다음 단계라고 하는 “社會主義”의 生産關係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生産力의 進行에 적응하여 生産關係가 결정된다는 설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例証하는 것이다”。(梁好民：共產主義 理論과 現實 批判 全書①)

한 마디로 말해서 生産關係가 生産力의 發展에 依存한다 또는 照應한다는 史的唯物論의 주장은 法則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生産力은 어떤 方式으로 社會의 發展을 制約하는가. 그것은 직접으로 生産方法을 결정한다.

科學과 技術이 거의 없었던 原始時代에 있어서는 人間은 그들의 生存에 必要한 모든 것을 生産이 아니라 採集하는 採集經濟를 영위하였다.

自然環境에 대한 人間의 知識이 증대하여 季節의 秩序를 알게 되고 이것과 植物의 成長과의 關係를 이해하게 되며 불의 이용법과 간단한 冶金術을 익히게 되면서 人間은 農業과 手工業으로 그 生産 方法을 바꾸었다.

그러나 역사와 함께 축적되어 온 科學과 技術이 近代的 機械를 만들어 냈을 때 人間의 生産 方法은 다시 오늘날의 工業時代에로 전진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生産 方法은 生産力의 發展에 의하여 직접으로 制約되어 變化하는 것이므로 生産力의 일정한 發展이 없이는 그것을 전제하는 生産方法이 發生할 수 없는 것이니 生産力의 성격에 照應하여 變化하는 것은 生産關係가 아니라 바로 生産方法임을 알 수 있다.

(3) 社会的 土台와 上部構造와의 關係

史的唯物論은 人間 社会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것을 土台와 上部構造의 두 부분으로 나눈 다음 後者は 前者 위에 成長하고 조건지워지며 그 産物이고 反映이라고 말 함으로써 이른바 上部構造에 對한 土台의 規定性이란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土台의 규정적 역할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일단 주장한 史的唯物論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부르주아적 批判家들은, 마르크스主義는…… 역사의 “一面的” 經濟的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史的唯物論은 上部構造의 能動的 役割 土台에 對한 그 反作用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며 社会의 發展 過程에 있어서의 土台와 上部構造의 相互作用을 고려하는 것을 부정하기는 커녕 반드시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哲學教程)

“史的唯物論은 土台의 優位를 확립하지만 이와 同時에 俗된 經濟的 唯物論과는 달리 上部構造의 積極的 역할 土台에 對한 그 反作用을 강조하고 밝힌다. …… 上部構造는 土台의 受動的인 결과인 것이 아니며 또 社会라고 하는 建物の 어떤 外的인 裝飾과 같은 것도 아니다”. (같은 책)

“資本主義社会의 革命的 改造와 社会主義社会의 創造 및 擁護에 있어서 社会主義的 上部構造의 積極的·改革的·創造的 역할은 특히 크다.

社会主義 國家들의 共産黨의 활동은 社会主義的 上部構造가 社会의

發展에 있어서 어떻게 커다란 變革的 役割을 맡아 하느냐 하는
明白한 確證이다. 社會主義 國家들의 共產黨은 社會主義 國家의
指導的인 先導的인 힘이다. 마르크스主義黨의 理想을 이루기 위한 政策은
새로운 上部構造의 諸 기관의 活動 뿐만 아니라 經濟建設 人民
대중의 모든 역사적 創造를 組織化하고 方向짓는다”. (같은 책)

“上部構造에 對한 土臺의 規定的 役割 및 上部構造의 土臺에
對한 反作用, 上部構造의 積極的인 역할에 關한 史的唯物論의 命題
는 資本主義로 부터 社會主義에의 移行의 시기에 도 社會主義社會에
있어서도 自기의 힘을 全面的으로 保有하고 있다. 이 때에 上部
構造의 役割은 增大한다. 왜냐 하면 社會主義的 經濟는 自然發生
的으로는 發展하지 않고…… 共產黨과 社會主義國家의 指導 밑에
計劃的으로 意識的으로 建設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共產黨은 社會
主義經濟 및 그 위에 성장하는 社會主義的 上部構造의 建設과 發
展에 있어서의 指導的인 그리고 方向짓는 역할을 맡아하고 있다.

그것은 勤勞者의 共產主義的 教育에 關한…… 모든 기관의 活
動을 指導하고 있다.

그것은 社會主義的 理想을 이루기 위하여 發展시키며, 社會主義的 藝術의 發
展을 方向지으며, 共產主義的 道德의 精神으로 대중을 教育한다”.

(같은 책)

한 마디로 말해서, 土臺의 規定性이라는 史的唯物論의 根本命題와
는 正반대로 共產主義革命과 共產主義 建設의 과정에서는 상부구조
가운데 하나인 共產黨이 理想, 藝術, 道德, 教育, 諸機關의 活

동 방향, 인민 대중의 모든 歷史的 創造등을 지도하고 先導하며 결정할 뿐만 아니라 社會의 土台라는 共產主義經濟 자체의 創造까지도 共產黨이 맡아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래 “人類의 意識이 그들의 存在를 規定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人類의 社會的 存在가 그들의 意識을 규정한다”고 주장함으로써 土台의 一方的인 規定性을 강조했던 마르크스의 理論은 批判者들의 正當한 反論 앞에서 상부구조의 反作用 및 能動的 역할을 보충·수정하는 量的變化를 거듭하던 끝에 결국에는 共產黨의 創造的 役割을 인정·강조하게 까지 됨으로써 마침내 經濟史觀으로서 특징지을 수 있었던 史的唯物論은 여기에 하나의 質的 變化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따라서 土台의 規定性과 上部構造의 創造的·先導的 역할을 同時에 주장하고 있는 史的唯物論은 明白한 自己矛盾에 빠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4) 階級 및 階級鬭爭論

史的唯物論은 生産手段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階級の 差異가 생긴다고 주장함으로써 階級을 오직 經濟的 階級으로서만 보고 있다.

그러나 저들의 주장과 같이 “原始共同體가 崩壞한 時期 이래의 社會歷史의 全体를 통하여 階級과 階級과의 사이에서 鬭爭이 있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그러나 이것은 勿論 鬭爭만이 있어 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鬭爭의 主体인 階級이 과

연 언제나 經濟的 階級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客觀的 사실들은 이와 같은 階級論을 명백히 反証하고 있다. 예컨대 封建社會의 支配階級이 그 시대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土地라는 生産手段을 所有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貴族 또는 兩班이라는 “身分” 때문이었던 것이다. 土地없는 兩班이 土地있는 常民 위에 君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무엇보다도 잘 말해 주고 있다.

共產主義社會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社會에서 絶對的 支配勢力으로 되고 있는 共產黨은 生産手段을 지배하고는 있으나 분명히 “所有”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이들이 지배 階級으로 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共產黨員이라고 하는 政治的 身分을 갖고 있기 때문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階級の 차이의 基礎는 모든 社會에 있어서 同一한 것이 아니라 社會마다의 本質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生産手段의 所有가 階級的 차이의 기초로 되는 것은 資本主義社會의 경우 뿐임을 또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여기서 史的唯物論이 그와 같은 階級論을 주장하는 속셈을 또 알게 된다.

즉, 그것은 生産手段의 私有制度 위에서 나타난 資本家 階級을 廢絶하려면 資本主義 制度 자체를 廢止해야 한다는 저들의 주장을 合理化하는 한편 生産수단이 이미 社會的 所有로 되어 있는 共產主義 社會에서는 階級 발생의 原因자체가 제거됨으로써 階級이 없

어졌으며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共産黨의 独裁權力이 아무리 独占的이고 또 強力하더라도 그것은 生産手段을 所有하지 않은 支配이기 때문에 階級的 支配가 아니라는 詭弁을 뒷받침하기 위한 政略的 解釋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史的唯物論은 위와 같은 經濟的·一面的인 階級論의 基礎 위에서 “階級鬭爭은 階級 社會의 發展의 合法則性이며 그 原動力”이라는 주장을 또 내세움으로써 하나에도 鬭爭, 둘에도 鬭爭으로 오로지 階級鬭爭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階級이 弁証法의 對立物에 해당되는 데 대하여 階級鬭爭은 이 對立物의 鬭爭에 해당되는 것인 바 이 階級鬭爭을 가리켜서 社會發展의 原動力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주장은 저들의 弁証法에 비추어 보더라도 잘못된 것임이 分明하다.

즉 앞의 弁証法 批判에서 본 바와 같이 사물에 內在하는 對立物이 矛盾의 關係에 서게 되는 것은 사물의 發展이 훨씬 진행된 단계여서 처음에는 다만 差異란 성격을 갖고 있을 뿐 그들은 도리어 서로 補足하는 關係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弁証法의 理論 자체가 이러함에 불구하고 “矛盾은 發展의 源泉”이니 “對立物의 鬭爭은…… 創造力”이니 “敵對的 社會의 發展의 動因은 階級鬭爭”이니 주장함으로써 마치 鬭爭 자체가 發展의 原動力인 것처럼 말하여 예찬하고 있는 것은 職業的 革命家들에 의한 反弁証法的인 한낱 革命 煽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 國 家 論

國家의 本質을 “階級 對立의 非和解性的 산물” 또는 “暴力 機構”로서 규정하고 있는 共產主義의 國家論은 앞의 階級 鬪爭論과 마찬가지로 弁証法의 理論에 違背되고 있다.

즉, 이른바 對立物의 統一과 鬪爭의 法則에 따르면 모든 사물은 제 속에 두 개의 측면 또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한 편으로는 서로 否定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 補足하는 관계——닐알스·보아의 이른바 相補的 關係에 있어서 “教程”의 말과 같이 “이들 對立物의 各개의 一側面은 他者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哲學教程”과 함께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시인하고 있다.

“革命的 階級은 그것이 하나의 階級에 對하여 對立한다는 이유에서 이미 階級으로서가 아니라 도리어 全社會의 代表者로서 원래 등장한다. ……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당초에는 이 革命的 階級의 利害가 …… 非支配階級의 共同의 利害와, 關連되어 ……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階級의 승리는 支配的 地位에 올라가지 않는 나머지 階級들의 多數의 人口에게도 역시 이익이 된다”.

마르크스: 도이체·이데올로기)

“어떤 生産樣式이 發展의 上向線을 더듬고 있는 동안은 이 생

산양식에 照応하는 分配樣式 밑에서는 수지가 안 막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生産樣式을 歡呼로써 맞아 들인다.....

이 生産樣式이 어느 정도의 下向으로 變하고 그 壽命을 折半이나 지나게..... 되었을 때, 그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시대에 뒤 떨어지게 된 여러가지의 사실에 異議를, 부르짖게 된다”. (엔겔스: 反뒤이령論)

“18世紀의 부르주아의 대표자들은, 어떤 특수 階級の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苦惱하는 人類 전체의 代表者로서 자처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보아서 市民階級은 貴族과의 鬪爭에 있어서 그 시대의 여러 勞動하는 階級들의 利害까지도 동시에 대표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었다”. (같은 책)

“資本主義의 발생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아트 사이의 矛盾의 發生을 뜻한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아트는 처음에는 부르주아에 對한 자기의 根本的인 階級的 對立을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로소 그들은 부르주아라고 하는 그들에 對立하는 階級과 和解할 수 없는 矛盾 가운데 있는 獨自的인 階級으로서의 자기를 의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哲學敎程)

따라서 支配勢力의 政治權力인 國家의 성격 역시 처음부터 언제나 반드시 暴力機構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럴 必要도 없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말과 같이 革命階級の 利害가 非支配階級の 共同의 利害와 관련되어 있고 지배 階級の 승리가 나머지 階級들의 多數

의 人口에게도 역시 이익이 됨으로써 一般大衆이 그것을 歡呼로써 맞아 들이는 그러한 단계의 國家가 그 大衆에 대하여 暴力을 휘둘러 抑壓할 必要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각기 社会構成体の 存在는 그 構成체가 社会의 進歩的 發展을 促進하는 동안은 역사적으로 옳은 것으로서 是認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니 그것의 “滅亡이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現存하는 社会体制가 發展의 브레이크로 變했을 때”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첫째로, 弁証法에서는 對立物의 “統一”과 “鬭爭”의 양면을 다같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階級間의 抑壓과 非和解的 對立만을 앞세우고 있는 共產主義의 國家論은 弁証法의 옳은 論理에 對한 歪曲이고 일면적 偏向이며 我田引水라는 사실이다.

둘째로, 國家를 暴力에 의한 抑壓의 機構(惡)라고 말 함으로써 이것을 破壞하는 것이 마치 無條件的인 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저들의 國家論은 現存 秩序의 破壞에 의해서만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職業的” 革命家들에 의한 革命의 美化이며 破壞의 正當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第4章 共產主義 經濟學 批判 (1)

— 資本主義的 生産樣式論 批判 —

第1節 共產主義 經濟學的 任務·本質·構造

1. 任 務

공산주의의 理論 体系는 저들의 根本主張을 核으로 삼고 이것을 展開·證明하도록 그 理論이 嚴格히 調整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에게는 처음부터 일정한 任務가 주어져 있다.

그리하여 共產主義의 經濟學은 저들의 根本主張을 經濟學의 形態로서 전개하되 가장 具體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 社會的인 여러 가지 矛盾이 現存하는 生産樣式的 필연적인 결과이고, 그와 同時에 이 生産樣式的 分解가 臨迫했다는 徵兆라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分解되어 가고 있는 經濟的 運動形態의 내부에 이들 弊端을 除去할 수 있는 장래의 새로운 經濟 組織의 여러 要素를 發見해 내는 일까지도 經濟學의 任務가 아니면 안된다. (엔겔스: 反뒤이링論)

· 政治經濟學은 우리에게 人類社會가 어떻게 發生, 發展하여 왔으며, 그가 어떠한 法則에 의해서 發展하여 왔는가, 資本主義—帝國主

義는 왜 반드시 滅亡하며 社會主義는 왜 반드시 勝利하는가를…… 밝혀준다.” (政治經濟學 上卷)

2. 本 質

위의 임무로부터 이번에는 共產主義 經濟學의 本質이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客觀的인 經濟’ 科學’이 아니라 政權의 掌握이라고 하는 저들의 政治的 目的을 위해서 쓰여지는 政治的 道具인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 政治經濟學은 노동계급의 政治經濟學이며 勞動階級의 利益을 철저히 擁護하는 科學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政治經濟學은…… 勞動階級의 革命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強力한 思想的 武器이다.」 (같은 책)

3. 構 造

共產主義의 經濟學은 資本主義에 關해서 研究하는 前半部分과 共產主義를 研究하는 後半部分의 두 部分으로 되어 있으며 전자는 資本主義的 生産樣式論, 후자는 社會主義的 生産樣式論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1) 資本主義的 生産樣式論

이 部分의 理論은 勞動價値說로부터 시작하여 資本主義의 必然的 滅亡論으로 끝나고 있으며 일찌기 마르크스에 의하여 ‘資本論’ 가운데서 이미 거의 다 論及·展開된 것을 토대로 삼고, 여기에 레닌의 帝國主義論과 그 後半世紀의 資本主義論이 添加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2) 社會主義的 生産樣式論

이 部分은 共產主義革命의 必然性으로부터 시작하여 共產主義的 理想社會의 建設論에 이르고 있으며,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있어서는 다만 이상적 社會의 輪廓만이 暗示되고 있을 뿐이던 것을 現代 共產主義者들에 의하여 體系화된 것이다.

第2節 勞動價值說 批判

1. 勞動價值說의 主張

勞動價值說은 共產主義 經濟學의 토대이며 說明原理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만일 이 理論이 무너지게 되면 그 위에 세워지고 있는 共產主義 經濟學의 全体 理論도 허물어지게 된다.

“마르크스가 發展시킨 近代的 生産方法에 関한 全体 見解는 마르크스의 價値說과 가장 密接한 關係에 있다. 만일 마르크스의 價値學說이 하나의 變化를 입는다고 한다면 이 全体 思想은 旧來의 形態로서는 衰滅하고 訂正이 必要하게 될 것이다.” (칼·카우츠키 : 마르크스主義 修正의 駁論)

共產主義 經濟學의 擁護者와 批判者의 양쪽이 이 勞動價値說을 놓고 深刻한 攻防戰을 되풀이해 오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勞動價値說 自体는 마르크스가 처음 主張한 것은 아니며 서 윌리엄·페터(1623 ~ 87), 존·록크(1632 ~ 1704)로부터

시작되어 아담·스미드(1723 ~ 90), 대비드·리카아도(1772 ~ 1823)에 이어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것을 리카아도로부터 이어받은 다음 여기에 특별한 역할을 賦與함으로써 이것을 오늘과 같이 著名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 學說의 要旨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資本主義的 生産樣式論을 研究함에 있어서 共產主義의 經濟學은 먼저 商品의 分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資本主義의 生産은 商品生産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商品이란 무엇인가.

“商品이란 남에게 팔기 爲하여 生産한 物件이다. ……物件이 팔리기 위하여는 반드시 쓸모가 있어야 한다. ……商品의 이러한 쓸모—有用性을 商品의 使用價值라고 한다.

그러나 使用價值가 있는 物件이라고 해서 다 商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勞動 生産物이 商品으로 되기 爲해서는……使用價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販賣하기 위해서 生産되는 勞動 生産物이어야 한다.

商品은 다른 商品의 일정한 量과 交換하게 된다. ……한 使用價值가 다른 한 使用價值와 交換되는 量的 比率을 交換價值라고 한다. ……이와같이 物件이 商品으로 되기 위해서는 使用價值 뿐만 아니라 交換價值도 가져야 한다.” (政治經濟學 上卷)

그러면 物件들이 交換되는 比率은 무엇에 의하여 決定되는가.

▪ 그것은 서로 交換되는 物件들을 만드는데 들인 勞動에 의해서 決定된다. ▪ (같은 책)

그리하여 商品을 만드는데 들인 이 勞動을 勞動價值說에서는 '價值의 實體'라 부르고, 商品이 交換되는 것은 그들의 使用價值가 아닌 이 勞動이 그들 商品속에 包含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여 이것을 '第3의 것' 또는 '共通物'이라고 마르크스는 부르는 한편 使用價值를 經濟學의 研究 範圍에서 除外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商品이 使用價值와 價值를 가지게 되는가.

▪ 商品이 使用價值와 價值라는 二重性을 가지는 것은 商品을 生産하는 人間의 勞動이 二重性을 가졌기 때문이다. ……商品의 使用價值를 만드는 勞動을……具體的 勞動이라고 하며……商品의 價值를 만들어내는 勞動을……抽象的 勞動이라고 한다. ▪ (같은 책)

그런데 마르크스에 따르면, ▪ 勞動의 量은 勞動의 時間的 繼續에 따라 재고, 勞動時間은 다시 時·日 등과 같은 일정한 시간 부분을 尺度로 삼는다 ▪ 는 것인데, 商品의 價值를 形成하는 것은 個別的 勞動時間이 아니라 社會的인 必要勞動時間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 社會的 必要勞動時間이란 社會적으로 普通 水準의 生産條件 즉 平均的인 技術水準, 平均的인 熟練程度, 平均的인 勞動強度로써 商品을 生産하는데 必要한 勞動時間을 말한다 ▪ 는 것이다.

(같은 책)

2. 從來의 批判

勞働價值說에 對한 從來의 批判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非勞働生産物을 商品에서 除外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둘째로, 勞働에 의해서 生産된 物件이라 하더라도 獨占·不完全 獨占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交換 比率이 勞働의 量에 關係없이 決定된다는 것

셋째로, 使用價值를 經濟學의 研究 範圍로부터 除外해 버린 것은 잘못이라는 것

넷째로, 複雜勞働을 單純勞働으로 換算하는 基準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

다섯째로, 第3의 것(共通物), 勞働의 二重性, 社會的 必要勞働時間 등은 思弁的 虛構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등등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勞働價值說은 하나의 科學的인 經濟 理論으로서 成立될 수 없거나 아니면 不完全 또는 不充分하다는 批判이다.

3. 우리의 批判

勞働價值說을 마르크스主義의 研究方法인 弁證法과 關聯시켜서 깊이 檢討해 보면 여기에 全혀 새로운 事實이 드러나게 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共產主義 經濟學의 研究方法 역시 弁證法이며 經濟學에 있어서의 이 見解는 다음과 같다.

• 歷史的인 각 時代는 그 自体의 法則을 가지고 있다. ……人類의 生活이란 것은 일정한 發達期를 넘어서자마자 즉 하나의 단계

로부터 다른 단계에 들어서자마자 종래에 있어서와는 다른 法則에 의하여 支配되기 시작한다. ” (資本論)

”사람들이 生産하고 交換하는 諸條件은 나라에 따라서 다르고 같은 國家라도 世代에서 世代에로 變해간다. 그러므로 經濟學도 모든 나라 모든 歷史的 時代에 對하여 같을 수는 없다. ……經濟學은 그 本質에 있어서 歷史的 科學이다. ” (엔겔스:反뒤이링論)

”모든 社會形態에는 어떤 일정한 生産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生産에 關해서 말할때는 언제나 일정한 社會的 發展段階에 있어서의 生産에 關해서 말하는 것이다. ” (마르크스:經濟學 批判 序言)

그러면 마르크스의 經濟學은 어느 ‘社會的 發展段階’를 研究 對象으로 하고 있는가.

”近代社會의 經濟的 運動法則을 밝히는 것이 이 책의 窮極的 目的이다. ” (資本論)

즉, 마르크스의 經濟學은 近代 資本主義社會의 經濟的 生産을 그 研究 對象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마르크스主義 經濟學의 說明原理인 勞動價值說은 어느 時代의 價值說인가.

勿論, 그것은 産業革命 이전의 段階—즉 自動的 機械에 의하여 生産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道具의 ‘도움’으로 人間 自身이 中心이 되어 生産을 하던 農業 및 手工業的 段階의 價值說 또는 價值法則이다. 우리나라의 農村에 아직도 남아있는 ‘하루품’

‘이름’이니, ‘하루같이’, ‘이틀같이’니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마르크스가 分析한 19世紀의 生産過程에서도 勞動者의 勞動이 商品을 生産하는 中心的 要素였을까.

그러나, 마르크스는 分明히 이것을 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매뉴팩처 및 手工業에 있어서는 勞動者가 道具를 使用하는 것이지만 工場에 있어서는 機械에 勞動者가 시중드는 것이다. (資本論)

▪ 大工業에 있어서는, 機械가 人間의 도움없이 原料의 加工에 必要한 일체의 運動을 한다. (같은 책)

▪ 大工業에 있어서는 最大 熟練工의 손의 어떠한 蓄積 經驗으로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容易성과 正確성과 迅速성을 가진 機械裝置에 의해서 人間의 손 그 自体가 代替되는 것이다. (같은 책)

▪ 한 마디로 말해서 工場의 總運動의 起點이 되는 것은, 勞動者가 아니라 機械인 것이다. (같은 책)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人間의 勞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代身하는 것’인 이 機械를 가리켜서, ‘自動機械體系’ 또는 ‘純客觀的인 生産組織體’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主義의 經濟學은 弁証法을 研究方法로 삼아서 産業革命 ‘이후’인 19世紀의 資本主義를 分析하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産業革命 ‘이전’의 價值說인 勞動價值說을 그 說明原理로

삼고 있는 것이니, 이것은 歴史的 科学으로서의 經濟學의 本質에 對한 부정이며 자신의 研究方法인 弁証法에 對하여는 明白한 自己 矛盾이 아닐 수 없다.

4. 機械에 對한 經濟學的 考察

마르크스도 부정하지 못했던 바와 같이 産業革命 이후의 生産 過程에서 주로 生産活動을 하고 있는 것은 勞動者가 아니라 바로 機械이다. 그러므로 近代資本主義의 經濟的 運動法則을 올바르게 알 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機械에 對하여 깊이 알지 않으면 안된다.

(1) 機械의 構造

'機械와 大工業'이란 題目으로 되어 있는 '資本論' 第1 卷 第13章에서, 마르크스는 機械의 構造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모든 發達한 機械는 本質的으로 3部分으로써 構成된다. 發動機와 配力機와 끝으로 道具機 즉 作業機가 그것이다.

發動機는 全 機具의 動力으로서 作用하는 것이며, ……配力機는 運動을 調節하고 必要할 때는 運動의 形態를 轉化하며 또 道具機에 運動을 配傳하는 것이다. ……

그런데 道具機 즉 嚴密한 意味의 作業機를 다시 깊이 들어가서 觀察할 때 우리는 거기에 形態가 顯著히 變化되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기는 하지만 대체에 있어서 手工業者 또는 매뉴팩처勞動者

가 使用하던 裝置나 道具가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에는 人間의 道具로서 使用되던 것이 이제야 機械의 道具로서 바꾸어 말하면 機械的인 道具로서 使用된다는 점은 다른 것이다. * (資本論)

* 要컨대 道具機關 것은 적당한 運動이 傳達된 後에 그 道具로써 前에는 勞動者가 비슷한 道具로 하던 같은 일을 하는 한 機械인 것이며, 動力이 人間으로부터 오느냐 또는 그 自体가 또 하나의 機械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은 問題의 本質에 있어서 아무런 變化도 주지 않는 것이다. 嚴密한 意味의 道具가 人間의 손으로부터 機械에로 옮겨졌을 때, 여기에 단순한 道具에 代身해서 機械가 나타나는 것이다. * (같은 책)

(2) 機械의 特徵

近代的 大工業에 있어서의 機械란 그 特徵이 '自動的'이란 點에 있는 것이며, * 勞動者로부터 獨立해서 存在하고 일한다 * 는 點에 있는 것이니, * 近世에 있어서의 機械 改良의 特徵이란 것은 自動作業機를 採用하게 되었다는 事實 * 이라고 말한 蒸氣해머의 發明者 네스미스의 말도 이 事實을 두고 한 말이다.

機械가 갖고 있는 이 自動的·獨立的 特徵에 關해서 마르크스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作業機가 人間의 도움없이 原料의 加工에 必要한 일체의 運動을 하고, 사람은 다만 그 길에 붙어있는데 지나지 않게 되었을 때, 여기에 * 機械의 自動體系란 것이 成立하게 된다. * (같은 책)

「機械組織이란 것은 自動的 原動機에 의해서 運轉될 때, 그 自体에 있어서 一大 自動機를 構成하게 된다.」(같은 책)

「大工業 하에 있어서의 機械體系는 純客觀的인 生産組織體인 것이고, 그것은 完成된 物質的 條件으로서 勞動者에 對立하는 것이다.」(같은 책)

(3) 機械는 能率增大의 手段

機械, 역시 이것을 經濟學的 見地에서 볼때는 하나의 商品이며, 따라서 이른바 使用價值와 交換價值(正確하게는 價格)의 양면을 갖고 있다. 즉 一定한 쓸모와 價格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機械는 一定한 쓸모—예컨대 織造機는 옷감을 짜고 印刷機는 印刷을 하는 등—를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쓸모, 말하자면 機械의 一般的 目的 또는 一般的 使用價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쓸모를 갖고 있는 바 能率 增大의 目的이 곧 그것이다.

그러므로 機械란 것은 物件을 만들고 일을 하기만 하면 能率이야 아무래도 상관없는 그런것이 아니라, 되도록 높은 能率으로써 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使用價值'인 것이다. 마르크스의 말로는 '높은 作用力'이란 것인데, 그는 '資本論' 第1卷의 第13章에서 이것을 (1)「보다 적은 費用」(2)「同一 時間에 있어서의 生産量의 增大」(3)「製品의 改善」등 세가지로 說明하는 한편 이 目的을 위해서 機械는 (1) 獨立性(또는 容易性) (2) 迅速性 (3) 精密性(또는 正確性)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機械란 것은 (1) 費用의 節減 (2) 生産量의 增大 (3) 品質의 改善을 위해서 使用되는 自動的 生産裝置인 것이다.

그러나 技術者나 發明家가 機械의 能率을 높이려고 아무리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有効性を 審判하는 檢査의 過程에서 그 '보다 높은 能率을 立証하지 않고서는 絶대로 하나의 發明品으로서의 價値를 認定받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의 發明品 또는 改良品으로 認定되어 商品으로서 등장한 모든 機械는 在來의 것에 比하여 반드시 '더 높은 能率'을 갖고 있는 것이다.

(4) 機械의 發展法則과 本質

機械의 發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法則이 지배하며, 作用한다.

첫째로, 累進的 前進의 法則이다.

“옛날에 熱帶의 原始林 속에서 樹上生活을 하고 있던……天才 動物들이 道具의 새 發明과 生産을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없어지지를 았았던 것이다. 즉 이 集團은 그 發明을 이어 받아서 保存했을 뿐만 아니라 後日에 그 集團 가운데 나타난 다른 天才가 그것을 다시 完成하였다.” (갈·카우츠키 : 倫理와 唯物史觀)

“過去의 諸王國은 湮滅하였으나 技術은 남아 있다. ……天才들의 成果는 歷史적으로 차례차례 繼承된다.” (멧사우엘 : 技術의 哲學)

“科學者라고 불리우기 위하여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아는 것 만으로는 充分하지 못하며, 全體의 蓄積에 對하여 무엇이든 自己

自身の 것을 追加하지 않으면 안된다. ” (버어날 : 歷史에 있어서의 科學)

▪ 諸科學이 가지는 特徵은 그 累積的인 性格이란 點이다. ” (같은책)
한 마디로 말해서 機械는 人사람 式으로 發展되어 가는 것이다.
둘째는, 進歩의 法則이다.

위의 첫째 法則으로부터 이번에는 進歩의 法則이 發生 作用한다.
즉 機械는 一時的인 停滯도 있을지언정 後退가 없으며 여기에는
언제나 進歩, 前進, 向上이 있을 뿐이다.

▪ 科學 (따라서 機械)은 逆行하지 않는다. ……進歩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 (로버어트.오펜하이머 : 社會 안의 科學者)

▪ 그 法則 (즉 科學 發展의 法則)은 進歩인 것이다. ” (버어
날 : 科學의 社會的 機能)

이리하여 여기에 機械의 本質이 밝혀지게 된다.

첫째로, 機械란 것은 時間과 空間을 뛰어 넘어서 이루어진 協同
的 創造의 產物이라는 事實이다.

둘째로, 機械가 갖고 있는 生産能力은 社會的인 것, 즉 어떤 한
사람의 個人에게도 歸屬시킬 수 없는 것이란 事實이다.

▪ 勞動生産力의 發達은 自然의 所産인 것이 아니라 몇 萬년에 걸친
歷史의 所産인 것이다. ” ……만일 批判的인 工藝史가 쓰여진다면
18世紀의 어떤 發明도 단 한 사람의 個人의 功으로 돌려져서는
안된다는 事實이 總體的으로 論證되게 될 것이다. ” (資本論)

第3節 剩餘價值論 批判

1. 剩餘價值論의 課題와 重要性

共産主義 經濟學의 主張에 따르면, "剩餘價値의 生産은 資本主義의 基本的 經濟法則"이라고 되어 있는 바, 그것은 "剩餘價値의 生産이 資本主義 生産의 直接的인 目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資本主義的 生産은 그 本質上 剩餘價値의 生産이다." (資本論)

"資本主義的 生産의 直接的 目的은 剩餘價値를 生産하는 것이다."

(經濟學教科書)

"剩餘價値의 生産은 資本主義의 基本的 經濟法則이다. 그것은 剩餘價値의 生産이 資本主義 生産의 直接的 目的이기 때문이다."

(政治經濟學 上卷)

그러면 이 剩餘價値는 누구에 의하여 어디서 어떻게 生産되는가—이 問題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곧 剩餘價値論의 課題이다.

그러나 共産主義者들은 이 剩餘價値論을 극히 重要視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剩餘價値論은 마르크스 經濟理論의 柱礎들이다." (레닌: 마르크스主義의 세계의 源泉과 세계의 構成部分)

"社會主義는 唯物史觀과 剩餘價値論의 發見으로 科學이 되었다."

(엔겔스: 空想的 社會主義와 科學的社會主義)

"剩餘價値에 對한 마르크스의 學說은 資本家들이 勞動者들을 어떻게 榨取하는가 하는 것을 明白히 밝혀 놓았고, 勞動階級에게 資

本家들의 搾取로부터 解放되기 위한 強力한 思想・理論的 武器를 주었다. * (政治經濟學 上卷)

2. 剩餘價值論의 主張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剩餘價值論은 剩餘價值가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生産되는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生産되는가에 대하여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流通 또는 商品의 交換은 아무런 價值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순수한 形態에 關해서 말한다면 商品의 交換이란 것은 等價와 等價와의 交換이어서 아무런 價值 增加의 수단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資本論)

그러나 * 우리 貨幣 所有者는 다행히 流通部門의 內部에서 즉 市場에서 使用價值 그 自体가 價値의 源泉이 되는 특수한 性質을 가진 하나의 商品, 즉 現實的인 소비 그 自体가 勞動의 體化이며 價値의 創造인 그런 하나의 商品을……發見하는 것이다. 勞動能力 바뀌 말하면 勞動력이 곧 그것이다. * (같은 책)

그러나, * 勞動者가 파는 것은 直接으로 그의 勞動이 아니라 勞動力 * 이라고 하여, 마르크스는 이 勞動力과 勞動을 區別하도록 注意를 促求하고 있다.

그러면 이 勞動力の 價値는 무엇에 의하여 決定되는가.

* 勞動力の 價値는 다른 모든 商品의 價値와 마찬가지로 이 특

殊 商品의 生産 따라서 또 再生産에 必要한 勞動時間에 의하여 決定된다. ……結局 勞動力の 價値는 일정 量의 生活資料의 價値로 서 ……平均的 勞動者의 生存上 習慣的으로 必要한 生活資料의 價値에 의해서 決定된다. ” (같은 책)

이리하여 勞動力을 사들인 資本家は 商品을 生産하게 되는데 여기서 마르크스는 資本을 不變資本과 可變資本의 둘로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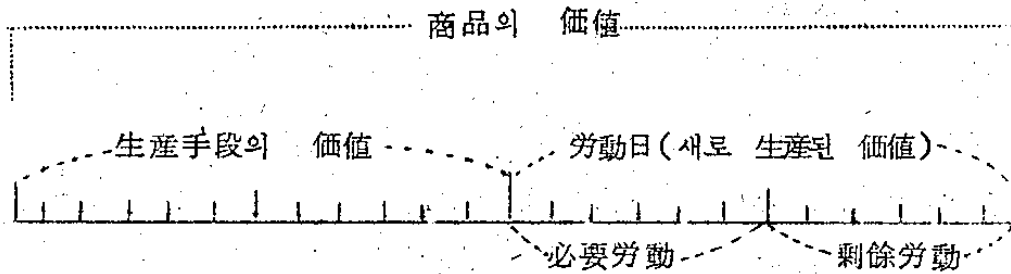
“ 生産手段인 原料, 助成材 및 勞動手段 등에 轉化된 資本部分은 生産過程 안에서 그 價値의 크기를 變化하지 않는 것이어서 …… 나는 이것을 不變의 資本部分 또는 간단히 不變資本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勞動力에 轉化된 資本部分은 生産過程 안에서 그 價値를 變化하며 …… 剩餘價値를 生産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可變의 資本部分 또는 간단히 可變資本이라고 부른다. ” (같은 책)

共產主義의 經濟學은 勞動者가 生産過程에서 剩餘價値를 生産하는 데에는 絶對的 및 相對的의 두가지 方法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1) 絶對的剩餘價値論

“ 絶對的剩餘價値의 生産이란, 必要勞動時間은 그대로 두면서 勞動日의 길이를 絶對적으로 延長하여 剩餘勞動時間을 延長함으로써 剩餘價値를 더 많이 짜 내는 方法이다. ” (政治經濟學 上卷)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의 必要勞動時間이 6時間이라고 할 때 그가 12勞動時間 어치의 生産手段을 가지고 12時間 勞動했다고 하면 이 경우의 剩餘價値 生産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즉 12 勞動時間 어치의 生産手段을 소비해서 12 時間 일했으므로 여기서 生産된 商品의 總價值는 $12 + 12 = 24$ 로 24 勞動時間이 되는데 資本家가 실지로 支拂한 것은 生産手段과 勞動力의 價值인 18 勞動時間 뿐이므로 여기에 6 勞動時間이 남는다. 이것이 곧 剩餘價值란 것으로서 勞動者가 必要勞動을 초과해서 일한 剩餘勞動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勞動에 對한 報酬와 勞動量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란 點에 注意를 喚起시킨 다음 이 事實에 입각하여 剩餘價值率 (必要勞動에 對한 剩餘勞動의 比率) 이란 것을 算出하고 있는데 그는 이것을 $\frac{m}{v}$ 이란 公式으로 나타내어 앞의 예로는 $\frac{6}{12}$ 즉 100% 라는 數值를 얻게 된다.

이리하여 共產主義의 經濟學에 있어서는 「剩餘價值는 資本의 可變部分에만 起因하는 것」이 되므로써 勞動은 「산 勞動」 또는 「創造的인 힘」인 反面에 機械는 「죽은 機械」로서 「아무런 剩餘價值로 生産하지 않는 것」 즉 「조금치도 收入을 形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相對的剩餘價值論

資本家が 勞動力을 아무리 온갖 方法으로 搾取해 보아도 結局에는 限界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이다.

• 婦人이나 未成年者의 勞動力을 濫用하는 것, 勞働 및 生産上의 온갖 標準的 條件을 盜掠하는 것, 過度의 勞働 및 夜間勞働의 殘虐을 強行하는 것—다만 이들 手段만으로써 이루어지는 勞動力의 低廉化는 드디어 밟고 넘어갈 수 없는 一定한 限界에 逢着한다. •

(資本論)

• 勞働者들은 하루종일 일할 수는 없다. 그가 매일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24時間 중에서 一定한 時間 休息해야 하며 먹어야 한다. ……이러한 時間을 고려한 勞働時間이 勞働日의 肉體的 限界이다.

또 勞働階級에게는 最少限度의 文化的 및 社會的 要求가 제기된다. 이 要求를 最少限度라도 充足시키려면 一定한 時間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時間까지도 고려한 勞働日의 限界를 道德的 限界라고 한다.

(政治經濟學 上卷)

이와같이 絶對的剩餘價値의 生産에는 肉體的 및 社會的인 限界가 따른다. 그러므로 資本家は 여기서 다른 方法 즉 相對的剩餘價値의 生産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 相對的剩餘價値의 生産이란 勞働日의 延長이 없이 必要勞働時間을 短縮시킴으로써 剩餘勞働時間을 延長하여 剩餘價値를 더 많이 짜내는 方法이다. • (같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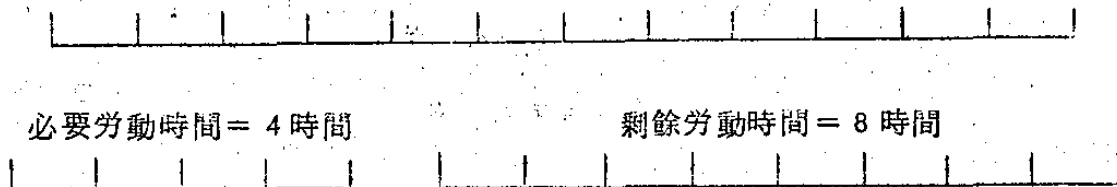
이것을 圖式으로써 說明해 보자. 가정 勞動日이 12時間인데 이 中에서 必要勞動時間은 6時間이고 剩餘勞動時間도 6時間이라고 하자.

$$\text{勞動日} = 12 \text{時間}$$



이 경우에 하루의 勞動時間은 그대로 두고 必要勞動時間을 2時間만 短縮한다면, 必要勞動時間은 4時間으로 되며 剩餘勞動時間은 2時間 延長되어 8時間으로 될 것이다. 이것을 圖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text{勞動日} = 12 \text{時間}$$



이리하여 必要勞動時間은 短縮되고 반면에 剩餘勞動時間은 더 延長되어 結局 2時間의 剩餘價值를 더 얻게 된다.

그러면 剩餘價值率은 어떻게 變하겠는가.

$$\text{첫 경우의 剩餘價值率은 } \frac{6 \text{時間}}{6 \text{時間}} \times 100 = 100\% \text{이다.}$$

$$\text{그러나 두번째 경우에는 } \frac{8 \text{時間}}{4 \text{時間}} \times 100 = 200\% \text{이다.}$$

결국 搾取 정도는 2倍로 強化되었다. (같은 책)

그러면 必要勞動時間은 어떻게 短縮하는가.

「勞動力の 價值……즉 勞動者 自身과 그의 扶養家族을 부양하는 데 要求되는 消費財의 價值를 低下시키면 될 것이다.…… 이것은 새 技術이 導入되어 勞動生産能率이 높아지면 될 것이다.」 (같은책)

한 마디로 말해서 相對的剩餘價值를 늘리려면 必要勞動時間을 줄여야 하고 必要勞動時間을 줄이려면 새로운 技術을 導入해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生産過程에 새로운 技術이 導入되면 必要勞動時間이 短縮되므로서 相對的剩餘價值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3. 剩餘價值論 批判

(1) 道具와 機械의 混同

剩餘價值論을 비판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밝혀두어야 할 것은 마르크스主義의 經濟學은 道具와 機械를 混同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앞의 第1節 4에서 본 바와 같이 마르크스는 '資本論' 第1卷의 第13章에서는 分明히 말하기를 機械는 「人間의 손 그 自体를 代置하는 것」이며 「人間의 도움없이 原料의 加工에 必要한 일체의 運動을 하는」 一大 自動機構 또는 純客觀的인 生産組織體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機械는 다만 人間의 勞動을 도와주는데 지나지 않는 道具와는 根本的으로 다른 것이며 따라서 絶대로 混同될

수도 없는 것이다. 道具를 使用해서 人間이 生産하던 方法으로부터 機械가 生産하게 된 變化를 가리켜 産業'革命'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機械에 對하여 이처럼 잘 알고 있는 마르크스 自身이 剩餘價值論을 展開하고 있는 '資本論' 第1卷 第5章에서는 이 機械를 道具와 混同함으로써 勞動手段이란 概念 속에 區別없이 들어넣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機械는 바로 能率增大의 目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생각할 때, 이 機械와 道具의 混同은 剩餘價值論이 범한 致命的 誤謬라 아니할 수 없다.

(2) 不變資本論은 減價償却法の 誤用

剩餘價值論을 展開함에 있어서 마르크스主義의 經濟學은 機械와 道具를 한데 묶어서 不變資本 가운데 包含시키고 있다.

그러면 機械의 不變性を 어떻게 說明하고 있는가.

原料 및 助成材는 그것이 使用價值로서 勞動過程에 들어갔을 때의 獨立된 形態를 喪失하게 된다. ……그러나 器具나 機械나 工場 建物이나 容器 등은 그 本來의 形態를 유지한다. ……지금 이와 같은 勞動手段이 소용되는 全 期間을……생각해 보건대 이 期間 中에 그 使用價值는 勞動에 의해서 完全히 消費되고 따라서 交換價值는 完全히 生産物에 移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은 價值 移讓은 하나의 平均 計算에 의해서 測定된다.

(資本論)

이것을 '政治經濟學'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說明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不變資本은 生産過程에서 많아지지도 않으며 적어지지도 않는다. 즉 機械를 사는데 支出한 資本은 生産過程에서 機械가 磨滅되는 것만큼 새로 生産되는 製品에 자기 價值를 移轉시킬 따름이다.

예컨대 양말 1만 켤레를 짤 수 있는 양말 機械를 1만 달러에 사왔다면 양말 한 켤레에 機械 消耗費 1달러가 轉嫁된다. 이 機械로 1만 켤레의 양말을 짜면 機械 값 1만달러는 다 回收된다.

그러므로 生産手段 購入에 투하된 資本은 生産過程에서 變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政治經濟學 上卷)

그러면 共產主義 經濟學의 이와같은 說明은 옳은가.

앞에서 지금 機械의 不變性을 說明하기 위하여 저들이 使用한 方法은 이른바 減價償却法(또는 價格消却法)이란 것으로서 여기에는 定額償却法, 一時償却法, 定率遞減法, 年利金法, 評價償却法 등이 있는데 政治經濟學이 쓰고 있는 것은 定額償却法이란 것이다.

그러면 減價償却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機械의 使用에 따르는 磨滅價值를 算出하는 方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음 事實을 알게 된다. 즉 이 方法은 機械의 使用에 따른 價值의 磨滅이 資本家에게 주는 負擔(費用)을 計算하는 方法이지 機械의 生産能力과는 關係가 없다는 事實이다. 왜냐하면 적은 費用으로 많은 일을 하는 機械도 있고

그 反對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서 機械의 生産能力과 費用은 別個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共產主義의 經濟學이 機械를 不變資本으로 說明하기 위하여 減價償却法을 썼다는 것은 마치 物件의 길이를 저울로 재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니 不變資本論이 거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機械의 磨滅에 의해서 發生하는 費用의 總額은 機械의 價格에 一致한다는 事實이다.

4. 機械가 可變資本이다.

(1) 마르크스의 証言

마르크스의 不變資本論이 物件의 길이를 저울로 재는 것과 같은 誤謬를 범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우리는 적어도 機械를 不變資本이라고 規定하는 主張은 根拠가 없다는 事實을 알았다.

그러면 機械는 과연 剩餘價值를 生産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데 이 問題에 대해서 마르크스 自身이 資本論 第1卷의 第13章에서 分明히 다음과 같이 肯定하고 있다.

「機械는 剩餘價值 生産의 手段이다.」 (資本論)

「機械의 直接的인 結果란 것은 剩餘價値의 增大와 同時에 그것을 代表하는 生産物의 量도 增大시키는 것이다.」 (같은 책)

즉 '資本論' 第1卷 第5章에서는 機械를 不變資本으로 꾸미기에 것처럼 열증했던 마르크스 本人이 같은 책의 第13章에서는 機械를 가리켜서 「剩餘價值生産의 手段」 (즉 可變資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결음 더 나아가서 그는 다음과 같은 一連의 事實들을 밝혀 말함으로써 機械가 剩餘價值生産의 手段이라는 자기의 말을 후시나 믿지 못해 할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듯이 이모 저모로 說明을 되풀이하고 있다.

▪ 만일 새로운 方法을 應用하게 되는 資本家は……特別한 剩餘價值가 그의 手中에 實現되게 된다. ▪ (資本論)

▪ 改善된 生産方法을 應用하는 資本家は 같은 營業에 從事하는 다른 資本家에 비하여 보다 큰 勞動日部分을 剩餘勞動(즉 剩餘價值)으로서 占有하게 된다. ▪ (같은 책)

▪ 生産力의 增進에 의하여 商品의 價值를 싸게 할려고 하는 것이 각 資本家の 動機로 되어 있다. ▪ (같은 책)

▪ 機械가 生産의 經營上(勞動者에 비해서) 훨씬 重要的 役割을 맡아 하는 것이다. ▪ (같은 책)

▪ 資本家は 서로 다투어 가면서 勞動力에 代身할 改良機械와 새로운 生産方法을 採用하게 되는 것이다. ▪ (같은 책)

▪ 筋肉勞動을 減少시키는 것이 目的인 機械의 改善가……거의 每日 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같은 책)

한 마디로 말해서 機械가 剩餘價值를 生産한다는 것이다. 事實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마르크스의 말과 같이 ▪ 剩餘價值에 對하여 嗜慾이처럼 渴求하는 ▪ 資本家가 무엇 때문에 큰 資本을 들여가면서 ▪ 勞動力에 代身할 改良機械를 採用하는데 앞을 다툰 ▪ 것인가.

(2) 어떻게 利潤을 生産하는가.

여기서 먼저 밝혀 두어야 할 것은 利潤이란 것은 剩餘價值와 別個의 것이 아니라는 事實이다.

• 여기에 利潤이란 剩餘價值와 同一한 것이다. • (資本論)

• 여기에 利潤이란 剩餘價值 自体의 別名에 지나지 않는다. •

(같은 책)

• 마르크스는 利潤을 剩餘價值가 形態를 바꾸어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 (政治經濟學 上卷)

그러면 機械는 이 利潤을 어떻게 生産하는가.

第2節 4의 (3)에서 본바와 같이 機械는 (1) 費用의 節減 (2) 生産量의 增大 (3) 品質의 改善으로 能率을 增大시키기 위하여 發明 또는 改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機械가 資本家에 의해서 그의 生産過程에 導入되게 되면 그것은 自身の 特殊한 使用價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가) 生産物의 質에 變化가 없다면 그 個當 費用을 줄이거나

(나) 生産物의 個當 費用에 變化가 없다면 그 質을 높이거나

(다) 生産物의 質을 높이는 同時에 個當 費用도 줄인다.

그러나 費用의 減少란 곧 利潤의 增大이다. 왜냐하면 • 商品價值 = 費用 + 利潤 (資本論) 이기 때문이다. 또 品質의 向上 또한 利潤의 增大 以外の 아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費用의 減少나 品質의 改善은 다같이 利潤의 增大를

뜻하는 것이니 機械가 위의 세가지 方法 가운데 어느 하나에 따라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利潤의 生産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機械를 規定하여 不變資本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마르크스가 '資本論' 第1卷 第13章에서는 機械가 利潤 生産의 手段임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 方法까지도 밝히고 있다는 事實이다.

「機械는 勞動過程 위에는 언제나 全部的으로 關係하고, 價值 增殖의 過程에 있어서는 언제나 斷片的으로만 關係한다.」(資本論)

「이 機械는 그 活力이 遞減한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전체로서 勞動過程 안에 作用하고……價值 形成의 요소로서는 다만 斷片的으로만 關係한다.」(같은 책)

「機械란 것은 그 移轉하는 價值(費用)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더 生産的인 것으로 되며, 이리하여 그 奉仕는 더욱 더 自然力의 그것을 받아간다.」(같은 책)

「機械란 것은 人間 勞動의 關係없이 存在하는 自然力과도 같이 無償으로 作用하는 것으로서, 生産에 있어서의 道具의 作用 範圍에 비하여 機械의 作用範圍가 커질수록, 機械의 無償奉仕는 道具의 그것에 비하여 더욱 더 커지는 것이다.」(같은 책)

즉, 機械는 自然力과도 같이 費用이 거의 안들기 때문에 機械를 많이 쓰면 쓸수록 費用이 節減되어 利潤이 增大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機械가 利潤을 生産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도 없는 것이니, 機械야말로 現代的 生産過程에 있어서의 可變資本

이런 것 역시 더없이 明白하다 할 것이다.

(3) 相對的剩餘價值論이 뜻하는 것

資本家가 絶對的剩餘價値의 生産에서 相對的剩餘價値의 生産으로 옮겨가게 되는 까닭에 對하여 共產主義 經濟學은 勞動者에 對한 搾取가 “ 밝고 넘어갈 수 없는 限界에 逢着하기 때문 ” 이라고 說明하면서 이 限界를 肉體的 限界와 社會的 限界의 둘로 나누어 들었다.

그러면 勞動者에 對한 搾取가 限界에 逢着했을 때 資本家는 어떻게 했는가.

“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의 交叉點에 도달한다. 勞動者를 亂暴하게 搾取하는……方法으로써는 벌써 擴大一路에 있는 市場과 더욱 더 增進되어 가고 있는 資本家들 사이의 競爭을 滿足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서 機械의 採用을 알리는 鐘이 울렸다.”

(資本論)

“ 勞動者階級의 反抗이 점점 增進하기 때문에……勞動日의 延長에 의한 剩餘價値生産의 增進이 資本家에게 마침내 不可能하게 되자마자 이때서부터 은 힘과 充分한 自覺을 가지고 機械體系 發達의 促進에 의한 相對的剩餘價値의 生産에 몰두한다. ” (같은 책)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勞動者에 對한 搾取가 限界點에 到達한 이후에 있어서 生産된 利潤은 勞動者가 아니라 機械가 生産했다는 것, 따라서 產業革命 이후의 時期에 있어서 生産된 利潤의 決定的인 部分은 勞

動者가 아니라 바로 機械가 生産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相對的剩餘價值論은 結局 機械가 現代의 可變資本이라는 우리의 見解를 確認해 준데 지나지 않는 것이니 共產主義 經濟學의 礎石은 여기에 完全히 뒤집힘으로써 코페르니쿠스의 轉回를 끝마친 것이다.

第4節 資本蓄積의 法則 批判

1. 이 法則의 主張

마르크스에 따르면 "資本家は 剩餘價値의 일부는 收入으로서 消費하고, 나머지 部分은 資本으로서 充用한다"는 것인데 "剩餘價値를 資本에 再轉化시키는 것—이것이 곧 資本의 蓄積"이라고 한다.

그러면 資本家は 왜 剩餘價値의 一部를 蓄積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될수록 더 많은 剩餘價値를 얻기 위해서이다. ……蓄積을 增大하여 生産規模를 擴大할수록 더 많은 剩餘價値를 搾取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資本家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猛烈한 競争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다. (政治經濟學 上卷)

그런데 "資本制 生産方法이 發達함에 따라서 不變資本에 비하여 可變資本이 相對的으로 減少하는 것은 이 生産方法의 하나의 法則" (資本論) 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2. 이 法則의 批判

이 法則은 事實을 事實대로 지적한 것이어서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런데 共產主義 經濟學은 이른바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高度化를 지적함으로써 結果적으로 機械가 利潤을 生産한다는 우리의 見解를 確認해 주는 꼴이 되고 있다.

즉 마르크스에 따르면 資本制 生産方法이 發達함에 따라서 不變資本에 비하여 可變資本이 相對적으로 減少하는 것 이 法則이라는 것이니 바꿔 말하면 資本主義的 生産이 發達할수록 勞動力의 購入에 투하되는 資本보다도 機械의 購入에 투하되는 資本의 比重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만일 剩餘價值論의 不變資本論이 말하듯이 이 機械가 利潤을 生産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利潤 自体가 目的인 資本家가 무엇 때문에 앞을 다투어 가면서 이 機械를 사들이기 위하여 巨金を 投入할 것인가.

利潤만이 目的인 資本家가 巨額을 投資하여 機械를 導入하는데 앞을 다투는 事實 그리하여 利潤 生産에 이끄는 資本主義的 生産이 發達할수록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높아진다는 이 事實이야말로 機械가 利潤을 生産한다는 事實의 더없이 明白한 証拠라 할 것이다.

第 5 節 資本集中의 法則 批判

1. 이 法則의 主張

政治經濟學에 따르면 "資本의 集中이란 이미 있는 몇개의 資本이 統合되어 하나의 큰 資本으로 되는 것"을 말하며 이 法則은 "少數 資本家の 수중에 巨大한 資本이 掌握되는 結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資本의 集中에 關한 마르크스의 主張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私有者로 부터의 더욱 進行된 収奪은 하나의 새로운 形態를 取하게 된다. 이제야 収奪을 당하는 者는 이미 自家經營的인 勞動者가 아니라 資本家인 것이다. 이 収奪은 資本의 集中에 의하여 完成된다. 항상 한 사람의 資本家が 여러 사람의 資本家を 때려 죽인다. 이 轉形過程에 따르는 일체의 利益을 橫奪·獨占하는 大資本家の 數가 더욱 減少한다." (資本論)

"中流階級の 下層—즉 小商人과 小店主, 一般 隱退商人, 手工業者, 農民들—이들은 점차로 프로레타리아로 零落하는 바 그 一部 原因은 그들의 小資本이 近代的 産業 經營의 規模에는 不足하여 大資本家들과의 競爭에서 敗退하기 때문이며 또 一部 原因은 그들의 專門化한 技術이 새로운 生産方法에 의하여 無價值하게 되기 때문이다." (共產黨宣言)

2. 이 法則의 批判

이 法則은 그 內容上에 있어서 (1) 資本의 集中과 (2) 中小資

本의 沒落이라는 두개 問題로 나누어진다.

近代的 産業이 發達함에 따라서 産業의 어떤 部門 주로 1, 2次産業에서는 資本의 集中이 실지로 나타났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1870年代에 獨逸에서 發生한 갈텔, 트리스트 등 그것이며, 美國에서는 그 때문에 셔어만法이 制定되었고, 기타 先進資本主義國家들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資本의 集中은 모든 産業部門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規格에 의한 大量生産이 可能하고 生産物을 貯藏할 수도 있고 輸送할 수도 있어서 大資本이 必要하고 또 有利한 경우에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産業의 어떤 部門은 이것이 거의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즉, 셔어비스를 生産하는 第3次産業의 경우를 보면 그 生産의 內容이 一定한 形体를 가진 物件이 아니라 便益의 提供 또는 個別的 및 具體적인 技術의 提供이어서 이것들은 規格生産도 안되고 大規模生産도 잘 안되며 貯藏도 할 수 없고 輸送할 수도 없는 것이니 따라서 大資本의 必要나 利點도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 部門에서는 中·小資本으로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라스키의 말과 같이 "다수의 小産業 예컨대 寫眞業이라든가 自動車 修理業 등에는 大會社로 發展하는 것보다 小商會가 증가하는 傾向이 있다." (라스키: 갈. 마르크스)

그러면 이들 中·小資本은 왜 增加의 傾向에 있으며 또 그것은 어떤 確固한 根拠를 갖고 있는가.

첫째로 3次産業이 生産하는 서비스에 對한 需要 自体의 性質
로 말미암아서 增加한다. 즉 人間의 慾望의 飽和度는 먼저 食料
品에 對하여 나타나고 다음에는 加工品에 대하여 나타나지만 서비스에 對한 慾望
에는 飽和點이 거의 없어서 이에 對한 需要는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增加一路에 있다.

둘째로 勤勞大衆의 所得水準이 向上되어 가기 때문에 增加한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에 對한 需要는 먹고 남는 部分의 收入에
의하여 充足될 수 있는 것인데 現代의 生産力은 '非無產者化를
可能하게' 함으로써 이 需要를 彌補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法則은 일면 集中 일면 分散을 나타내는 資本의
集中=分散의 法則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第 6 節 利潤率低下 傾向의 法則 批判

1. 이 法則의 主張

이 法則을 '政治經濟學'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 資本主義가 發展함에 따라 資本家들의 資本은 계속 增大한다.
그런데 그때의 資本 總額 中에서 可變資本보다도 不變資本이 相對
적으로 보다 急速히 增大한다.

그런데 利潤率이라는 것은 剩餘價值率이 같다면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높으면 높을수록 낮아진다.

예를 들어보자. 剩餘價值率이 다같이 100%인 경우에 資本
1,000萬 달라가 不變資本과 可變資本에 각각 500萬 달라씩 투

하 될 때에 利潤率은 50%이다.

$$\left(\text{利潤率} = \frac{\text{剩餘價值 } 500 \text{ 万달라}}{\text{資本總額 } 1,000 \text{ 万달라}} \times 100 = 50\% \right)$$

이제 資本이 1,500 万달라로 增大되고 그 中에서 不變資本으로 900 万 달라 可變資本으로 600 万 달라가 각각 투하된다면 그 경우에 利潤率은 40%로 된다.

$$\left(\text{利潤率} = \frac{\text{剩餘價值 } 600 \text{ 万달라}}{\text{資本總額 } 1,500 \text{ 万달라}} \times 100 = 40\% \right)$$

보는바와 같이 資本은 많아졌으나 有機的 構成이 높아진 結果에 (1:1에서 3:2로) 利潤率이 낮아졌다. 그런데 資本家는 저마다 보다 많은 利潤을 얻기 위하여 즉 超過利潤을 얻기 위하여 자기 企業所의 技術을 改善하려고 努力한다. 이에 따라 有機的 構成은 높아진다. 結果 보다 많은 利潤을 獲得하려는 매개 資本家의 主觀的 慾望과는 달리 平均的(一般的) 利潤率이 低下하게 된다. (政治經濟學 上卷)

이리하여 '活氣에 가득찼던 生産의 불꽃은 모두 꺼져버리고 生産은 잠들어 버린다'고 마르크스는 主張하고 있다.

2. 이 法則의 批判

結論부터 말하면 이 法則은 하나의 反現實的인 假定위에 세워진 臆說으로서 現實의 利潤率은 上昇하고 있는 것이 그 法則인 것이다.

즉 이 法則을 說明할 때 '政治經濟學'은 앞에서 말하기를
'剩餘價值率이 같다면'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剩餘價值率이 不變
이라고 하는 한'이라고 되어 있다)이라는 假定을 붙이고 있는데
'剩餘價值의 生産을 絕對律'로 삼고 있는 資本主義的 生産의 現
實에 있어서는 利潤率이 '不變'이거나 '一定'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그것은 實地에 있어서 끊임없이 增大하고 있는 것
이니, 말하자면 利潤率의 增大가 곧 資本制 生産의 進行過程 自体
인 것이다.

그라기에 마르크스도 '反對로 作用하는 諸原因'의 첫째로서
'勞動搾取程度의 增進'을 들고, 이때에는 '이 法則이 反對로 作
用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勞動 搾取程度란 곧 利潤率 以外の 아
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法則은 '끊임없이 增大하는 利潤率이 不變이라고
하는 한' 低下한다는 것으로 되어 한낱 思弁의 所産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第7節 貧困增大의 法則 批判

1. 이 法則의 主張

共產主義 經濟學의 主張에 따르면 '資本主義가 發展함에 따라
서……少數의 搾取階級의 수중에는 巨大한 財富가 集中되지만……다
른 편에 있어서는 社會의 貴중한 財富를 創造하는 勞動階級의 처지

가 더욱 惡化되고 그들은 더욱 苛酷한 搾取를 받으며 失業과 貧窮과 苦痛에 시달리게 된다. 는 것이며, 이것이 곧 資本主義의 蓄積의 一般의 法則이라고 한다.

“ 그리하여, 資本主義가 發展함에 따라 勞動階級은 相對的으로나 絶對的으로 貧窮化 된다. ” (政治經濟學 上卷) 는 것인데 이것이 이른바 貧困增大의 法則이다.

(1) 絶對的 貧困增大의 法則

이 法則에 對한 ‘政治經濟學’의 主張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러면, 勞動階級の 絶對的 貧窮化란 어떤 것인가.

勞動階級の 絶對的 貧窮化란 그들의 生活水準이 絶對的으로 低下되는 것을 말한다. ” (政治經濟學 上卷)

“ 그러면 왜 資本主義가 發展함에 따라 勞動階級の 生活이 絶對的으로 惡化되는가. 그것은 (1) 實質賃金이 低下되기 때문이다.

(2) 勞動強度가 強化되고 勞動條件이 惡化되기 때문이다. (3) 失業者 數가 急激히 增加하기 때문이다. (4) 經濟恐慌이 자주 일어나며 帝國主義者들이 戰爭을 挑發하고 經濟를 軍事化하기 때문이다.

(5) 植民地 및 隸屬國家들에서의 勤勞者들의 生活 狀態가 極度로 惡化되기 때문이다. ” (같은 책)

“ 解放 前 朝鮮 勞動階級은 世界 어느나라 勞動階級 보다는도 酷甚한 搾取와 賤待를 받았다.

오늘 南朝鮮 勤勞者들의 勞動條件과 生活形便은 다른 資本主義

나라에 比하여서는 勿論, 日帝 時期보다도 甚하다. (같은 책)

▪ 南朝鮮 勞動者들은 하루에 10~18 時間까지의 高된 勞動을 强요 당하면서도 最低 生活費의 3 分の 1도 못되는 賃金を 받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南朝鮮 人民들은 '4 千年来의 民生苦'를 겪고 있으며, 그들의 生活은 날이 갈수록 더욱 沈沈해지고 있다. (같은 책)

또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資本의 蓄積이 進行하는데 比例하여 勞動者의 位置는……더욱 더 惡化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結論이 나오게 된다. ……이리하여 한편의 極에 있어서의 富의 蓄積은 同時에 또 그 對極에 있어서의 貧困, 勞動苦, 奴隸狀態, 無知, 凶暴, 道德的 墜落 등의 蓄積으로 된다. (資本論)

▪ 近代 勞動者는 産業의 進歩에 따라 向上하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階級의 生活條件 以下로 더욱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이다. 勞動者는 貧民이 되고 그 貧困은 人口와 富力보다도 한층 더 急速히 發展한다. (共産黨宣言)

▪ 勞動者가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더욱 더 적게 賃金を 받는다. (마르크스: 賃金勞動과 資本)

(2) 相對的 貧困增大의 法則

▪ 그러면 勞動階級의 相對的 貧窮化란 무엇인가.

勞動階級의 相對的 貧窮化란 社會的 富가 長成함에 따라 資本主

義的 企業에서 生産된 國民所得 中에서 勞動階級이 차지하는 몫은 低下되며 資本家階級이 차지하는 몫은 增大되는 것을 말한다. (政治經濟學 上卷)

「勞動力の 價格이란 것은 生産力の 增進에 따라서 끊임없이 低落한다고는 하지만 勞動者의 生活資料는 同時に 끊임없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相對的으로 바꾸어 말하면 剩餘價值와 比較해서 생각할 때는 勞動者와 資本家の 生活水準 사이의 距離는 擴大된 셈이 될 것이다.」 (資本論)

2. 이 法則의 批判

(1) 絶對的 貧困增大의 法則

資本主義가 發展하고 資本家の 資本이 蓄積될 수록 勞動者階級이 絶對的으로 貧窮化되어 간다는 이 主張은 오늘의 明白한 現實에 의하여 이미 反證되고 있다.

만일 이와같은 主張이 옳다면 資本主義의 歷史가 오래 된 先進 資本主義國家의 勞動者일 수록 資本主義의 歷史가 짧은 나라의 勞動者보다 훨씬 더 가난해야 할 것인데 오늘의 明白한 現實은 그와는 正反對인 것이다.

그러기에 東獨의 國民賞게 빛나는 쿠친스키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實質賃金の 上昇은 부르자 學者들의 臆懼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 보았댜자 그것으로써 勞動者들을 결코 納得시킬 수는 없다.

그들은 實質賃金の 上昇이란 事實을 充分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쿠친스키 : 資本主義下의 勞動者의 狀態史)

그러면 마르크스는 왜 그와 같이 明白한 反現實的 主張을 되풀이하는 것일까.

그는 이 主張의 根拠로서 이른바 ‘賃金과 利潤의 下落과 騰貴를 決定하는 普遍的 法則’이란 것을 내세우고 있다.

• 相互的 關係에 있는 賃金과 利潤의 下落과 騰貴를 決定하는 普遍的 法則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서로 서로 反對의 關係에 선다. ……利潤은……賃金이 低落하는 것과 同一한 比率로 오른다.

또 이와 反對의 경우에는 역시 반대이다. 利潤은 賃金이 低落하는 것과 같은 程度로 騰貴하고, 賃金이 騰貴하는 것과 같은 程度로 下落한다. ” (마르크스 : 賃金勞動과 資本)

” 勞動力의 價值와 剩餘價值의 絕對量은 그 相對量을 變化시키지 않고서는 變化할 수 없는 것이니 양쪽을 同時에 減少 또는 增大시키는 일은 不可能한 일이다. ” (資本論)

그러나, 이와 같은 相反關係에는 條件이 있다. 마르크스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 勞動力의 價值와 剩餘價值의 總和가 不變量 ” 일 때에 限해서만 그런 것이니 이 ‘總和’ 自体가 增大할 때는 勞動力의 價值와 剩餘價值는 同時에 增大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0 萬원이란 金額을 不變量으로서 前提할 때는 資本家가 50 萬원을 차지하면 勞動者도 50 萬원을 차지하게 되고 資本家가 60 萬원을 가지면 勞動者는 40 萬원을 갖게 되며 資本家가

40 萬圓만 가지면 勞働者는 60 萬圓을 갖게 된다.

그러나 '總和'가 만일 150 萬圓으로 增大하게 되면 資本家가 80 萬圓을 차지하더라도 勞働者는 70 萬圓을 갖게 됨으로써 양쪽은 同時에 增大한다. 마르크스는 바로 이 경우를 外面했던 것이니 이 이치에 의하여 成長하는 經濟 밑에 있는 勞働者階級은 資本의 蓄積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와 同時에) 生活水準을 向上시켜 갈수가 있는 것이다.

(2) 相對的 貧困增大의 法則

英國의 존·스트레이치의 다음과 같은 見解一즉 "마르크스가 資本主義體制는 賃金取得者의 生活水準을 生存費水準에 밀어내리고 따라서 또 부단히 增大하는 剩餘의 全體를 富裕階級을 위하여 保留·支出·蓄積한다고 생각한 것은 옳았다"고 말하는 그의 見解는 事態를 經濟的 領域에만 局限시켜서 본다면 결코 根柢없는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이치도 말하고 있는바와 같이 "全體的으로는 相對的 貧窮化 조차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現代의 資本主義)

그러면 마르크스의 主張과는 달리 "相對的 貧窮化 조차도 나타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民主主義의 德澤인 것이니 만일 (民主主義가)……없었다라면 經濟的 發展은 마르크스가 豫見한 대로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스트레이치 혼자만의 意

見이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 '民主社會主義宣言'은 "政治的 民主主義를 지키는 것은 人民의 生死에 關한 重大問題이고 이것을 堅持하는 것은 經濟的·社會的 民主主義의 實現을 爲한 條件"이며 "勤勞하는 사람들의 運命은 民主主義의 存續과 一體"라고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賃金取得者의 生活水準이 上昇했다고 말하는 것은 充分히 正確하지 않다. ……事實은 1世紀 이상에 걸쳐서 持續된 政治的 努力과 勞動組合員의 努力에 의하여 賃金取得者들이 資本主義 體制가 갖고 있는 經濟的 諸傾向에 反抗하면서 저들의 生活水準을 밀어 올린 것이다." (스트레이치 : 前揭書)

第 8 節 恐慌論 批判

1. 恐慌論의 主張

共產主義의 經濟學에 따르면 恐慌이란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說明되고 있다.

"經濟 恐慌이란 商品이 팔리지 않고 商店이나 倉庫에 쌓이게 되며 이에 따라 生産이 縮小되고 失業者가 急激히 增大되며 都市와 農村의 小生産者들이 破産되고 産業·商業·信用 등 모든 經濟 部門에서 破産과 混亂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政治經濟學 上卷)

그러면 恐慌은 왜 일어나는가.

• 資本主義의 基本 矛盾은 具體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形態로 나타나면서 恐慌을 일으키게 한다.

첫째로 資本主義的 生産의 無政府性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生産과 消費 간의 矛盾으로 나타난다.그것은 資本家들이 보다 많은 利潤을 얻기 위한 競争過程에서 점차 生産을 擴大·發展시키는데 이와 同時에 勤勞者들에 對한 搾取가 더욱 심해지므로 住民의 압도적 大多數를 이루고 있는 勤勞者들의 購買力이 低下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勞働階級과 資本家階級 간의 矛盾으로 나타난다.한 쪽에서는 生産手段이 높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勞働者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굶주리게 된다.

이와같이 恐慌은 資本主義社會에서는 不可避하게 일어나게 되며 따라서 資本主義가 存在하는 한 恐慌도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

(같은 책)

한 마디로 말해서 恐慌은 (1) 生産의 無政府性과 (2) 大衆의 貧困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며 (3) 資本主義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 恐慌論 批判

이 恐慌論의 主張은 19世紀로부터 20世紀 初까지로 時期를 限定한다면 大體로 事實에 맞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資本主義가 存在하는 한 恐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主張

은 事實에 맞지 않으며 말하자면 純粹한 經濟理論이라기 보다는 革命 煽動論이다.

우리는 1929年의 美國의 大恐慌을 고비로 資本主義的 恐慌이 차차 악화되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더구나 第2次大戰 이후의 30年 동안에는 거의 恐慌다운 恐慌이 없었다는 것 또한 움직일 수 없는 事實이다.

그러면 前에는 '있었던' 恐慌이 다같은 資本主義 밑에서 지금은 왜 없게 되었는가.

첫째로 生産에 '計劃'이 導入됨으로써, 生産의 無政府性이 그만큼 사라졌기 때문이다.

즉 오늘의 自由世界 어디서도 19世紀的인 無政府的 生産은 이미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이니, 企業의 自由가 아직도 가장 크게 남아있는 美國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오늘의 大企業들은 앞을 다투어 가면서 有能한 經濟學·經營學·統計學의 專門家를 雇傭하고 이들로 하여금 國內外的 市場을 分析케 하여 供給을 需要의 變動에 맞추어 計劃的으로 調整하고 있다.

이리하여 '最大의 自由를 위한 最小의 計劃'이란 思想은 오늘의 自由世界 어디서나 이제는 常識으로 되었다. 朴大統領의 '우리 民族의 나갈 길이' '社會再建(國家)의 理念과 哲學'을 말하는 第6章에서 '可能한 한 廣範한 競爭과 必要한 最小의 計劃—이것이 原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며 우리나라가 1961年 9月에는 經濟企劃院을 設置하고 回를 거듭하여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實施하고 있는 역시 그것이다.

둘째로 大衆의 生活水準의 向上 즉 貧困의 減少인 바 이 問題에 對하여는 이미 앞의 第7節에서 考察하였다.

한 마디로 말해서 恐慌의 原因인 無政府的 生産과 大衆의 貧困이 生産에의 計劃의 導入과 貧困의 減少에로 바뀌어 감에 따라서 恐慌이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恐慌論이란 것은 貧困의 增大라는 反現實的 主張과 生産의 無政府性이라고 하는 過去の 事實 위에 세워진 한낱 歷史의 遺物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第9節 階級論 批判

1. 階級論의 主張

資本主義 社會의 階級에 關한 共產主義의 理論은 이른바 兩大階級論으로서 여기에는 資本家階級の 極少化 中間階級の 沒落 勞働者階級の 極大化 등 세 개의 主張이 包含되고 있다.

첫째로 共產主義의 階級論은 부르주아지의 極少化를 主張하고 있다.

• 資本主義가 發展함에 따라서 資本은 부단히 少数 資本家の 수중에 集積·集中되고 生産은 擴大된다. 結果 社會的 財富의 많은 部分이 한 줌도 못되는 大資本家들의 수중에 掌握된다. (政治經濟學 上卷)

둘째로 中間階級の 沒落을 主張한다.

「資本主義 下에서 中小企業의 大多數는 競争에서 패배 당하고
부단히 破産・沒落한다.」 (같은 책)

세째로 프로레타리아아트의 極大化를 主張한다.

「資本主義가 發展함에 따라서, ……賃金勞動者의 수는 急激히 增
大한다.」 (같은 책)

이리하여 極少數의 부르좌지와 人口의 絶對多數를 차지하는 프로
레타리아아트가 直接으로 對立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時代는 階級 對立을 單純化 시켰다는 特徵이 있다.
全 社會는 더욱 더 서로 적대하는 二大陣營으로 서로 直接 對峙
하는 二大階級으로 分裂하여 가고 있으니 이는 곧 부르좌지와 프
로레타리아아트이다.」 (共産黨宣言)

2. 階級論 批判

共産主義의 階級論이 主張하고 있는 세가지 요소를 차례로 檢
討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資本家階級の 極少化란 主張은 두가지로 解釋될 수가 있
다.

하나는 資本이 集中된 結果 社會的 財富의 많은 部分이 한 줌
도 못되는 大資本家들의 수중에 掌握된다」는 解釋인 바 이 主張
에는 否定할 수 없는 일면의 眞實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解釋에는 注意해야 할 점이 있다. 즉, 마르크
스時代의 大資本과 오늘의 大資本은 그 規模가 너무도 다르기 때

문에 만일 마르크스時代의 大資本을 基準으로 한다면 그런 程度의 資本은 오늘에 있어서는 몇 백배 몇 천배로 늘어났을 것이다.

또 하나의 解釋은 資本 集中의 結果 中小資本은 모두 沒落됨으로써 모든 資本이 少數의 大資本家의 수중에 들어가고 人口의 絶對 多數는 資本을 못 갖게 된다는 解釋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主張은 이미 앞의 第5節에서 그 誤謬임이 밝혀진 바 있으며 다음의 中間階級論에 의해서 다시 確認되게 될 것이다.

둘째로 프로레타리아아트 極大化란 主張은 이 階級의 發展이 이미 고비에 다달아 停滯 내지 後退의 現象을 나타냄으로써 明白히 反證되고 있다.

• 美國의 總 人口에 對한 工業勞動者의 比率은 1920年의 32.2%를 고비로 내려가고 있다. • (후라스체: 1960年의 世界)

이와같이 부르좌자와 프로레타리아아트는 다같이 減少되어 가고 있거나 적어도 人口의 多數者가 아니란 것이 分明하다.

그러면 現代 社會의 人口의 보다 큰 部分은 어디로 갔는가. 여기에 現代社會의 構造的 革命의 問題가 나타나게 된다.

結論부터 말하자면, 마르크스의 沒落하는 中間階級과는 本質적으로 다른 새로운 中間階級이 이제야 새로운 第1階級으로 發展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 過去 75年 間에는 이른바 新中間階級の 成立을 보았다. • (제임스·번햄: 經營者革命)

* 마르크스는 資本家와 賃金労働者를 直接 서로 對立시킴으로써
 양자 간에 넓은 帶域으로서 퍼져 있는 中間階級을 看過하였다.
 主要 階級은 둘이 아니라 셋이며, 그리고 第3의 것이 곧 中間階
 級이다.마르크스는 부당히 類型化함으로써....이른바 中間階級이
 어떤 階級에도 屬하지 않는다는 事實에 對하여는 眼識이 없다. ”
 (테오돌. 가이거 : 새로운 階級社會)

그러면 이 새로운 中間階級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發展했는가.

* 近代社會를 構成하는 旧中流階級 新中流階級 및 賃金労働者라는
 3大 階層 中에서 新中流階級만은 全 人口에 對한 比率이 현저히
 增加해 왔다. (美國의 경우에 있어서) 中流階級 全体로서는 80年
 前의 75万人에서 1940년까지에 1250万人으로 增加하였으나 階層
 別로 본다면 旧中流階級の 增加率 135%에 對하여 新中流階級の
 그것은 1600%로서 압도적으로 많고 이것은 같은 期間의 賃金労働
 者의 增加率 255%를 훨씬 능가한다. ” (라이트. 밀스 : 화이트 .
 갈러)

또 푸라스체는 그의 '1960年の 世界'란 책 가운데 보이는 한
 統計에서 美國의 總 人口에 對한 서비스 生産部門의 稼働人口 比
 率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즉 1850년에 있어서는 總 人口에
 對한 이 部門의 人口 比率은 겨우 17.6%였던 것이 1870년에는
 23.6%, 1900년에는 30.1%, 그리고 1940년에는 49.6%로 發
 展되었으며 1960년에는 57.1%로 發展할 것으로 보인다고 豫想했
 던 것이다. 그런데 푸라스체의 이와같은 豫想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이 1957년의 이른 여름에는 '뉴우욕·타임즈'가 그 社說에서 美國의 工業勞動者 수가 서비스 生産部門의 人口보다도 적어졌다는 事實을 밝히면서 '새로운 美國革命'이라고까지 불렀던 것이다.

資本主義社會의 階級에 關한 共產主義의 主張을 위와 같이 考察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몇가지 事實을 알게 된다.

첫째로 새로운 中間階級은 資本家나 勞動者에 屬한다고는 볼 수 없는 하나의 새로운 人口層을 形成하면서 大体로 1870年代서부터 發展하기 始作하여 지금도 變함없이 上向線을 그으며 나아가고 있다.

둘째로 일찍이 마르크스에 의하여 零落할 것으로 豫言되었던 中間階級은 前近代의인 生産力과 生活水準, 生活樣式, 風俗 등에 조응된 1840年代 獨逸社會의 '남은' 中間階級이었다.

셋째로 工業프로레타리아트의 집단은 새로운 中間階級の 發展에 大体로 反比例하여 減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先進社會에서는 後者의 比率이 이미 前者를 앞지름으로써 第1階級の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階級構造가 마르크스의 이른 바 프로레타리아트와는 逆方向으로 確實히 移動해 가고 있는 社會에 살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人類社會의 未來를 測定하는 일은 이 회피할 수 없는 事實에 依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第 10 節 帝國主義論 批判

1. 帝國主義論의 主張

帝國主義論은 資本主義의 發生・發展・沒落에 關한 마르크스主義의 理論을 主로 레닌이 그의 저서 '資本主義의 最高의 段階로서 的 帝國主義' 및 기타에서 '資本論' 이후의 半世紀에 걸친 世界資本主義에 適用・分析・展開한 成果를 토대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 다시 레닌 이후의 半世紀에 걸친 資本主義 分析이 추가되어 構成되고 있다.

(1) 帝國主義 및 帝國主義論

帝國主義 및 帝國主義論이 무엇인가에 對하여 共產主義 經濟學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獨占資本 즉 帝國主義는 資本主義의 最高의 그리고 最後의 단계로서 이 段階의 特徵은 自由競爭에 代身하여 獨占體가 지배하게 되었다는 事實이다.」 (經濟學教科書)

「帝國主義論은 帝國主義의 經濟的 本質과 政治的 本質 帝國主義의 法則性과 解決할 수 없는 諸矛盾을 科學的으로 分析한다.」

(같은 책)

(2) 帝國主義의 基本特徵

레닌의 古典的인 定義에 따르면 帝國主義의 基本的인 經濟的 標識는 다음과 같다.

(가) 生産과 資本의 集積이 高度의 發展段階에 到達하여 經濟生

活에서 決定的인 役割을 하는 獨占體를 만들어 내게까지 되었다는 것.

(나) 銀行資本과 産業資本이 融合하고 이 金融資本을 기초로 하여 金融寡頭制가 造成되었다는 것.

(다) 商品 輸出과 區別된 資本의 輸出이 特히 重要的 意義를 갖게 된다는 것.

(라) 資本家の 國際的 獨占團體가 形成되어 이들이 世界를 分割하고 있다는 것.

(마) 最大의 資本主義諸國에 의한 地구의 領土的 分割이 끝나 있다는 것.

(3) 帝國主義의 植民地體系

• 帝國主義 時期에 있어서 世界의 領土的 分割이 完成됨과 함께 植民地體系의 形成이 完成되었다.

帝國主義 植民地體系란 帝國主義 國家들에 의하여 압박받고 억압당하며 그들에게 隸屬되어 있는 植民地 및 半植民地의 總體를 가리켜 말한다. (政治經濟 上卷)

• 그러면, 帝國主義 時期에 植民地는 어떠한 役割을 하며 同時에 그것은 資本主義國家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意義를 가지는가.

첫째로 植民地는 資本 投下地로서의 役割을 한다.

둘째로, 植民地는 값싼 原料 源泉地로서의 役割을 遂行한다.

셋째로, 植民地는 宗主國의 過剩商品 販賣市場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한다.

배제로, 植民地는 軍事戰略的 基地로서의 役割을 遂行한다. ” (같은 책)

(4) 帝國主義의 歷史的 地位

“ 레닌은 帝國主義의 歷史的 地位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였다. 帝國主義는 資本主義의 特殊한 歷史的 段階이다. 이 特殊性은 세 가지가 있다. 즉, 帝國主義는,

(가) 獨占資本主義이며

(나) 寄生的 또는 腐敗하여 가는 資本主義이며

(다) 死滅하여 가는 資本主義이다. ” (같은 책)

(5) 資本主義의 全般的 危機

“ 資本主義의 全般的 危機란 鬪爭과 革命, 죽어가는 資本主義와 成長하는 社會主義 간의 鬪爭이 尖銳化되는 것으로써 特徵 지워지는 世界 資本主義體系의 全面的인 崩壞過程을 意味한다. ” (같은 책)

“ 資本主義의 全般的 危機의 第1段階는 第1次 世界大戰 時期에 始作되었 으며 社會主義 10月革命이 勝利하여 러시아가 資本主義 體系로부터 떨어져 나온 結果에 展開되었다. ……

資本主義의 全般的 危機의 第2段階는 第2次 世界大戰과 그 後 유럽과 아시아의 一連의 나라들이 資本主義 體系로부터 떨어져 나옴으로써 始作되었다. ” (같은 책)

“ 資本主義의 全般的 危機의 새로운 段階의 內容에 있어서 重要한 特徵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世界社会主义体系가 人类社会 發展의 決定的 力量으로 轉換되었다는데 있다.

둘째로, 帝國主義 植民地体系의 終局的인 崩壞와 帝國主義의 勢力圈의 급격한 縮小이다.

셋째로, 帝國主義 나라들에서 矛盾이 더욱 尖銳化되고 있는 것이다. * (같은 책)

* 現 段階에서, 부르주아社會의 基本的 階級的 矛盾—勞動과 資本 사이의 矛盾이 한層 發展함과 同時에 한 층의 獨占主와 모든 人民層 사이의 矛盾이 깊어간다.

現代의 모든 革命勢力이 帝國主義에 反對하여 集結하고 있다. 社会主义革命 反帝國主義, 民族解放革命, 人民民主主義革命, 廣範한 農民運動, 파쇼制度 기타 壓制制度의 타도를 目的으로 하는 人民大衆의 鬪爭, 民族的 抑壓에 反對하는 一般 民主主義運動—이들 모두가 資本主義를 깨뜨리고 破壞하는 統一된 世界的 革命의 過程에 合流되어 가고 있다. * (經濟學教科書)

2. 帝國主義論 批判

帝國主義論은 '資本論'의 續編 구실을 맡아 하고 있으며 마르크스主義의 經濟理論을 '資本論' 이후의 段階에 適用함으로써 資本主義가 '革命 前夜'에 놓여 있음을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 經濟 理論에 對해서는 이미 앞에서 檢討하였고 資本主義 滅亡論에 對해서는 다음 節에서 보게 될 것이므로

帝國主義論 自体의 論理에 對해서만 살피보기로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帝國主義論은 거꾸로 선 價值論을 토대로 삼음으로써 물구나무선 理論을 誤用한 산물이란 점에서 마르크스의 前轍을 되밟고 있다.

勿論 이 말은 帝國主義論 가운데에는 眞實이 조금도 包含되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獨占資本主義가 過去에 있어서 안으로는 競爭을 沮害하고 獨占利潤을 탐하여 자칫 國內政治를 誤導했다는 것, 그리고 밖으로는 資本 投下地 原料 源泉地, 過剩商品 販賣市場, 軍事 戰略地를 구하는 강대국 간에 競爭을 일으키게 하고 國際 紛爭의 불씨가 되었으며 世界의 安全과 人類의 繁榮에 對하여 威脅으로 되어 있었다는 事實 등에 對하여는 비록 그 主張이 一方的이고 그 表現에 誇張이나 無理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事態의 一面을 날카롭게 들어 보았다는 一部의 成果는 否定할 것만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一部 成果를 보여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主張은 前後 矛盾과 現實 外面등 수많은 誤謬를 저지르고 있으며 특히 第2次 世界大戰 이후의 段階에 와서 한층 심하다.

첫째로 帝國主義論은 明白한 自己矛盾을 범하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1) 獨占体の 内部 (2) 獨占体 相互間 (3) 獨占体和 非獨占体 사이에서도 競爭은 없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獨占資本主義는 競爭을 排除하기 때문에 腐敗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로 帝國主義論은 말의 뜻을 둘러 꾸밈으로써 事實을 歪曲하고 있다. 즉 帝國主義에는 武力的·經濟的·思想的 등 그 本質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者들은 帝國主義를 곧 獨占資本이라고 規定함으로써 (1) 마치 帝國主義는 資本主義社會에만 있는 것처럼 (2) 따라서 資本主義란 없으면 帝國主義가 다시는 發生하지 않는 것처럼 主張하여 (3) 共產 帝國主義의 存在를 말의 장막으로 가리우고 있다.

세째로, 帝國主義論은 明白한 事實에 對하여 外面하고 있다. 즉 貧困增大의 法則에도 불구하고 資本主義 社會의 勤勞大衆의 生活水準이 向上되고 있는 것은 植民地를 搾取한 結果라고 저들은 說明하고 있으나 지금 높은 國民所得을 올리고 있는 스웨덴, 스위스, 네델란드, 쿠웨이트, 노르웨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일찌기 植民地를 支配한 일이 없으며 도리어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그들 自身이 남의 植民地였던 것이다.

네째로, 帝國主義論은 지나친 臆說을 主張하고 있다. 즉, '政治經濟學'은 말하기를 '美帝國主義者들이……南半部를 자기의 植民地로 轉落시켰고……民族産業을 破壞하고 植民地 掠奪을 強化하였으며 美帝의 植民地 隸屬政策도 그 本質에 있어서는 日本의 그것과 同一하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掠奪을 일삼던 日帝와 援助하는 美國을 같은 帝國主義로 부름으로써 저들은 지나친 臆說을 일삼고 있다.

다섯째로, 帝國主義論은 저들이 (적어도 저들도 함께) 책임져야

할 問題에서 責任轉嫁의 方法을 쓰고 있다. 즉, "獨占들은 도처에서 國際 緊張狀態를 激化시키고 있으며 經濟를 軍事化하면서 새 戰爭 도발에 광분하고 있다" 느니 "南朝鮮은 美國의 새 戰爭 挑發을 위한 軍事基地로 轉交되었다"고 저들은 말하고 있으나 1847年의 '共産主義者同盟' 이래 全世界의 共産化를 위하여 "武裝鬪爭을 包含한 可能한 모든 方法을 다하는" 무자비한 鬪爭을 계속해 온 것은 共産主義者들 自身이며 韓半島에 있어서의 緊張激化와 武力挑發도 原因의 決定的인 部分은 共産主義 쪽에 있는 것이다.

여섯째로 帝國主義論은 특히 第2次 世界大戰 이후의 段階를 分析하는 部分에서 앞의 모든 手法을 總動員하고 있다.

즉, "지금 世界 資本主義가 全般的 危機의 새로운 段階에 들어 있다"고 規定하면서 그 理由를 (1) 國際共産主義의 力量 增大 (2) 資本主義的 植民地體系의 崩壞 (3) 資本主義 國家들 사이의 矛盾 尖銳化 (4) 勞動과 資本 간의 矛盾 激化, (5) 資本主義의 타도를 위한 全体 人民의 蹶起를 들면서 世界的 革命은 그 前夜에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가) 國際共産主義의 力量은 4分5裂로 弱化되고 있으며 中共은 소련을 第1의 敵이라고 規定하기에 이르렀고,

(나) 資本과 勞動의 사이는 民主主義의 發展 勞動條件의 改善 福祉政策의 發展으로 對立과 鬪爭을 解消해 가고 있으며,

(다) 資本主義國家들 간의 關係 역시 赤色帝國主義에 對處하려는

相互協力과 團結이 날로 增進되어 가고 있으며,

(라) 植民地體系는 第2次 世界大戰 後 宗主國의 協助 하에 자
진 解体함으로써 이른바 帝國主義의 寄生性은 거의 清算되었다.

이리하여 오늘날 自由世界에서는 帝國主義가 거의 자취를 감추었
고(共產主義式 表現으로는, 帝國主義가 沒落하였고) 資本主義制度
역시 福祉社會制度에로 바뀌어 가고 있다. (共產主義式 表現으로는
資本主義가 崩壞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社會의 이와같은 前
進과 進歩 속에서 自由世界의 人民들은 지금 帝國主義論이 말하는
“ 資本主義를 깨뜨리고 破壞하는 世界革命의 過程 ”에가 아니라,
民主主義를 守護·發展시키고 共產主義를 배격하는 反共·民主의 길
로 발길을 모아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第11節 資本主義의 必然的 滅亡論 批判

1. 資本主義 滅亡論의 主張

資本主義의 經濟的 運動法則에 對한 分析을 바탕으로 共產主義
者들은 “ 資本主義가 必然的으로 滅亡한다 ” (또는 沒落한다, 崩壞한
다)고 主張하고 있다.

“ 부르주아지의 沒落과 프롤레타리아트의 勝利는 똑같이 不可避한
것이다. ” (共產黨宣言)

“ 資本制 生産은 하나의 自然過程의 必然性으로써 그 自体의 否
定을 만들어 낸다. ” (資本論)

“資本主義는 반드시 滅亡하고 새로운 社會主義社會가 發生한다.
이것은 어길 수 없는 社會發展의 合法則性이다. (政治經濟學 下卷)
그러면 資本主義는 共產主義者들이 믿고 또 主張하고 있는 것처럼 必然的으로 滅亡할 것인가. 만일 滅亡하지 않는다면 永遠히 存續하는 것일까. 또 만일 永續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디로 갈 것이며 또 가고 있는가.

2. 資本主義 滅亡論 批判

資本主義的 生産樣式論을 批判한 第4章의 全体를 통해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오늘의 資本主義社會의 現實은 비록 마르크스가 指摘한 것과 같은 要素를 아직도 一部 남겨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 進行의 ‘方向’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그와는 反對의 쪽으로 着實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民主社會主義의 國際的 組織인 ‘社會主義인터내셔널’이 1962년에 發表한 ‘오늘로오宣言’도 이러한 現實을 認定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西歐 諸國의 여러 곳에서는 過去 10年 間을 통하여 經濟의 擴大가 福祉社會의 비약적인 發展을 가져왔다. 그 結果 市民이 오랜동안 품고 있던 不安感이 福祉社會에 있어서 顯著히 減少하였다. ……프로레타리아階級の 貧困이 增大하고 있다는 教義는 역사에 의하여 立証되지 않았다. ……大量失業은 除去되고 社會保障은 確立되었으며 勞動時間은 短縮되고 教育과 職業의 기회는 擴大되었다.

또 이 점에 대하여 1959年 11月에 採擇된 西獨社会民主黨의 '基本綱領'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重大한 後退와 過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勞動運動은 19世紀와 20世紀를 통하여 그 要求의 많은 것을 認定시키는데 成功하였다. ……일찌기 支配階級の 공공연한 搾取의 對象이던 勞動者들이 이제는 同等한 權利와 義務를 가진 國家市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社会民主黨은 勞動者階級の 政黨으로부터 國民의 政黨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19世紀 以來 모든 社会主義와 모든 人民들이 갈망해 온 福祉社会를 革命的 方法이 아닌 民主主義의 方法에 의하여 그리고 共產主義者가 아니라 우리들 自身이 實現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從來 스탈린式 弁證法에 의하여 訓練된 共產主義者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社會의 一部 사람들 조차도 여기에 이의를 내세워, 「그것은 資本主義에 對한 修正일 뿐 새로운 次元의 社會라고는 볼 수 없지 않으나. 새로운 社會段階는 革命的 '飛躍'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弁證法을 批判한 第3章 第3節의 1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事物의 運動에 있어서의 質的變化를 가져오는 '飛躍'에는 瞬間的 飛躍과 漸次的 飛躍의 두가지 形態가 있어서 우리의 社會는 이 後者の 경우 즉 漸次的 質的變化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다.

즉 「남은 것(資本主義)의 諸 요소(矛盾, 病弊)의 漸次的인

死滅과 새로운 質(福祉社會)의 제 요소(福祉制度와 政策들)의 漸次的인 增大라는 節次를 밟아서 實現되는 社會改造—이것이 바로 自由世界의 進歩 方式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祖國近代化作業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그것은 “낡은 것(前近代的 祖國)의 제 요소(後進性)의 漸次的 死滅과 새로운 質(近代的 祖國)의 제 요소(近代的 諸制度 및 政策들)의 漸次的인 增大라는 節次를 밟아서 實現해 가는 社會의 質的變化인 것이다.

그러므로 “革命的 方法을 通하지 않고서는 資本主義가 보다 높은 다음 段階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共產主義者가 아직도 있다면 그는 事物의 質的變化를 부정하는 共產主義 批判者와 마찬가지로 無識하다는 非難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며 또 만일 革命의 必然性과 資本主義의 滅亡을 否定하는 데에만 열중한 나머지 資本主義는 永續되는 것처럼 말하는 共產主義 批判者가 있다면 그는 共產主義 社會만은 영원히 계속된다고 主張하는 弁證論者와 마찬가지로 反現實的인 臆說이라는 批判을 아마도 免할 수가 없을 것이다.” (尹元求: 平和的 統一을 위한 共產主義研究)

이리하여 “우리가 여기서 각별히 留意하지 않으면 안될 극히 重要한 問題가 있음을 알게 된다. 무엇이냐 하면 資本主義가 滅亡한다고 할 때 資本主義라고 하는 體制 또는 政策과 이 體制나 政策을 採擇하고 實施하는 社會 自体를 결코 混同해서는 안된다는 事實이다.

다시 말해서 資本主義가 망한다고 하면 얼핏 듣기에는 資本主義的 体制를 採擇 實施해 오던 社會 自体가 망하는 것처럼 들리기가 쉽다. 그러나 政策이나 制度와 社會 自体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마치 우리가 입는 옷과 그 옷을 입는 몸이 전혀 別個의 것인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우리는 季節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옷을 갈아 입지만 그렇다고 해서 벗어버린 옷과 함께 우리의 몸 自体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몸은 그대로 있고 옷만이 바뀌는 것이다.

社會와 制度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資本主義가 滅亡한다고 할 때 그 政策과 制度가 사라지는 것이 곧 그 社會 自体의 滅亡을 뜻하는 것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우리의 社會 自体는 그대로 있고 社會의 成長에 따라서 몸에 맞는 새 制度를 採擇·實施하는 일은 얼마든지 可能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며 또 따라서 社會의 成長에 맞추어서 새 政策 새 制度를 採擇·實施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社會의 前進이고 發展이며 進歩이지 이것이 社會의 滅亡이나 沒落으로 될 까닭은 조금도 없는 것이다. 崩壞하고 사라지는 것은 制度나 政策이지 社會 自体가 아니기 때문이다. * (같은 책)

한 마디로 말해서 資本主義는 共產主義의 經濟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여러가지의 矛盾에 의해서 '滅亡'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資本主義의 '成功'이 資本主義가 만들어 낸 높은 生産

力과 民主主義의 바탕 위에서 오늘도 쉬지 않고 福祉社會를 向하여 '轉形' 또는 '漸次的인 質的改造'를 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第 5 章 共産主義 經濟學 批判 (2)

— 社會主義的 生産樣式論 批判 —

第 1 節. 이 部分의 性格, 構造, 重要性

1. 性 格

社會主義的 生産樣式論은 共産主義 經濟學의 後半部分으로서, 共産主義의 經濟를 支配하는 法則들을 研究함으로써, 共産主義社會를 建設하는 이론과 방법을 밝히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여기서는 社會主義가 어떻게 발생하며 鞏固化되는가 하는 문제, 즉 社會主義的 生産方式의 형성과 발전의 合法則性에 대하여 연구한다 ” (政治經濟學 下卷)

그러므로 이 부분의 내용으로 보아 우리는 이것을 共産主義 建設論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부분은 공산주의의 經濟學으로서는 그 後半部分이고, 그 內容上으로는 共産主義 建設論이며, 공산주의의 전체 理論體系에 대해서는 이른바 社會主義 理論 部分에 해당된다.

2. 構 造

공산주의 경제학의 주장에 따르면, 共産主義의 理想社會란 것은 共産主義 革命으로 자본주의가 타도되었다고 해서 단번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過渡期, 社會主義, 共産主義 등 단계를 밟아

서 건설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社會主義的 生産樣式論 역시 過渡期論, 社會主義論, 共產主義論의 세 요소로 되어 있다.

(1) 過渡期論

소련의 經濟學教科書에 따르면, "자본주의로 부터 社會主義에의 過渡期란 資本主義의 支配는 이미 顛覆되었으나 社會主義는 아직 建設되지 않은 시기를 말한다."

그러면, 過渡期는 왜 必要한가.

"社會主義革命은 하루 이틀 동안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드시 일정한 歷史的 時期를 거쳐야만 한다. 바로 여기에 過渡期의 必然性이 있다." (政治經濟學 下卷)

이 단계의 課題에 대하여, 經濟學教科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로 부터 社會主義에의 過渡期 동안에, 다음과 같은 課題가 차례로 해결된다.

社會主義的 國有化에 의하여, 국민 經濟의 中樞를 장악하는 일,
社會主義 工業과 農業經營과의 商業的 結合을 樹立하는 일,
國家의 社會主義的 工業化에로 이행하고 진보된 機械技術을 農村에 공급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과의 生産的 結合에로 이행하는 일,

農民經營의 生産協動組合化(集團化)를 실시하여, 農村에 社會主義의 經濟的 基礎를 만들어 내는 일,

國民經濟 전체의 技術的 改造를 끝내여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을

建設하는 일,

이들 課題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이들 과제와 긴밀히 결합되어 文化革命이 실현된다.” (經濟學教科書)

(2) 社會主義論

共產主義의 주장에 따르면, 共產主義社會는 革命에 뒤이은 過渡期를 거친 다음에 나타난다는 것인데, 저들은 이것을 다시 第1段階(또는 보다 낮은 단계)와 第2段階(또는 보다 높은 단계)의 둘로 나눈 다음, 이 첫째 단계를 가리켜서 특히 社會主義라고 부름으로써, 이 말의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獨特한 뜻으로 쓰고 있다.

이 단계의 特徵을 가리켜서 “能力에 따라서 일하고 勞動에 따라서 分配한다”고 저들은 말하고 있다.

共產主義 經濟學의 주장에 따르면 過渡期를 통해서 “社會主義部分이 經濟의 中樞를 장악하기 때문에…… 새로운 經濟條件의 결과 社會主義的 生産關係에 고유한 새로운 經濟法則이 발생, 발전하여 그 작용 범위를 차츰 넓혀 가고, 그에 따라서 社會主義의 基本的 經濟法則이 발생하여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 基本的 經濟法則이란 말은 저들 특유의 용어로서, 그 뜻과 特徵은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다.

“一般的으로 基本的 經濟法則은, 해당 社會의 生産關係의 가장 本質的인 側面들을 規定한다. 따라서, 社會主義의 基本的 經濟法則은 社會主義的 生産關係의 가장 본질적인 側面들, 즉 社會主義的

生産의 目的과 이 目的을 실현하기 위한 手段을 규정한다.”

(政治經濟學 下卷)

“社會主義의 基本的 經濟法則의 特徵은, 社會의 全成員의 끊임 없이 증대하는 慾望을 가장 完全히 充足하고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進歩된 技術과 社會主義的 協力에 기초해서 生産을 끊임 없이 擴大하고 改善해 가는 것이다.” (經濟學教科書)

그리하여, 이 基本的 經濟 法則의 主導的 役割 밑에서, 이번에는 이른바 社會主義의 經濟的 法則들—즉 “國民經濟의 均衡잡힌 發展의 法則, 勞動生産性이 끊임 없이 向上해 간다는 法則, 勞動에 따른 分配의 法則, 社會主義諸國의 經濟的 發展水準의 平準化의 法則 등등이 發生하여 發展해 간다”는 것인데,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法則의 性格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社會主義의 經濟法則은, 다른 어떤 生産양식의 經濟 法則과도 마찬가지로, 人間의 意思에 관계 없이 發生하고 작용한다. 즉, 그것은 客觀的인 性格을 갖고 있어서, 이들 經濟 法則은 人間의 意思에 의하여 만들어 내거나 改造하거나 廢止할 수가 없다.” (같은 책)

그런데,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여러 法則들의 作用에 의하여, 共產主義의 經濟는 計劃的 均衡的으로 發展하고, 合理的, 節約的인 經濟로 發展하며, 失業, 搾取, 貧困, 恐慌은 根絶되고 生産은 上向線을 그으며 빠른 速度로 發展하고, 經濟의 發展水準

이 國際的으로 平準化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 공산주의의 經濟가 資本主義의 그것에 비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일련의 長點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社會主義의 優越性이라고 부르고 있다.

(3) 共產主義論

共產主義의 첫째 단계를 社會主義라고 부르는 데 대하여, 그 둘째 단계 또는 보다 높은 단계를 가리켜서 저들은 좁은 意味로 共產主義라고 부르고 있는 바, "各人은 能力에 따라서, 各人에게는 慾望에 따라서" 라는 것이 그 特徵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社會는 다음 같은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 共產主義란 어떤 것인가.

共產主義는 生産手段에 대한 單一의 全人民的 所有와 社會의 全成員이 完全한 社會的 平等을 누리는 階級 없는 社會제도이다. ...

거기서는 社會的 自治가 確立되고, 社會를 위한 勞動이 모든 자에게 있어서 第一義的인 生活上의 欲求, 自覺된 必然性으로 된다. ...

共產主義下에서는 階級은 없어지고, 都市와 農村 사이의 社會經濟上 및 文化生活上의 差異는 消滅할 것이다.

共產主義的 生産의 目的은 社會의 끊임 없는 進歩를 保障하고, 社會의 모든 成員에 대하여 그 增大해 가고 있는 欲求, 個人的 関心 및 趣向에 따라서 物質的, 文化的 福祉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련 共產黨綱領)

" 共產主義의 보다 높은 단계에 있어서는..... 慾望에 따른 共產

主義的 分配 原則에 이행하는 결과 強制의 기관으로서의 國家의 必要는 없어질 것이다. ……이 경우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단일 어떤 나라에서의 共產主義에의 이행이 帝國主義陣營이 存在하는 情勢 밑에서 이루어지고, 完全軍縮이 實現되지 못하며, 戰爭의 威脅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國防과 나라의 安全을 保障하기 위하여 國家를 유지하는 것이 必要하게 될 것이란 사실 이다. ” (經濟學教科書)

” 共產主義는 精神勞動과 肉體勞動 사이의 本質的인 差異가 정산되는 것을 뜻하고 있다. ” (같은 책)

” 共產主義 建設은 모든 사람들의 欲求를 채우기 위한 物質的 財貨와 文化財가 完全히 쓰고 남을 만큼 生産되고, 모든 사람들이 社會의 富를 增大, 蓄積하기 위하여 그 能力을 發揮해서 일하는 데 익숙해져서, 各人은 能力에 따라서 各人에게는 慾望에 따라서 라는 共產主義的 原則이 실현되었을 때에 完成된다. ” (같은 책)

3. 重 要 性

共產主義는 단순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社會改造의 理論과 方法의 統一的 體系로서, 자들의 주장과 명분을 가장 순수하게 받아 들인다면 그것은 곧 社會改造論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共產主義의 전체 理論體系 가운데서도 이 社會改造論을 가장 직접으로 그리고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른바 社會主義

的 生産樣式論이며, 따라서 이 부분이야말로 共產主義 理論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部分, 말하자면 그 中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反對하는 것이 옳으나 支持하는 것이 옳으나 하는 것,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들 자신이 보다 잘 살수 있는 길은 과연 共產主義 式 社会改造의 길이나 어떠한 하는 것 역시 주로 이 部分의 理論이 옳으나 옳지 못하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共產主義 批判에서는 이것이 거의 看過됨으로써 核을 잃은 批判으로 되어 왔던 것이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第2節 社会主義論

1. 社会主義의 語源

이른바 社会主義的 生産樣式論은 社会改造論으로서 곧 社会主義 理論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批判은 그 性格이 社会主義論으로 될 것인데, 이 社会主義란 말은 極히 다양한 뜻을 갖고 있으므로, 먼저 이 말에 대한 연구가 必要하게 된다.

社会主義란 말이 처음으로 쓰이게 된 것은 대체로 19世紀의 20年代 後半부터라고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의 社会思想家 피에르. 르루가 個人主義의 反對語로서 처음으로 말들어 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 왜 個人主義의 반대말이 必要했는가.

資本主義의 經濟體制는, 私의 利潤 追求를 目的으로, 生産手段의 私的所有와 自由競争에 의하여 運營되는 제도인 바, 個人의 利潤 個人의 所有, 個人의 競争으로 된 말하자면 經濟的 個人主義이다.

그런데, 19世紀의 社會思想家들은 생각하기를, 자본주의 경제에 여러 가지 病弊가 나타나는 것은 그 經濟體制의 個人主義的 本질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社會改造의 길은 이 개인주의를 廢止하고 經濟體制를 그 反對의 것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니, 이리하여 社會主義란 말이 개인주의의 반대말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2. 社會主義의 目的과 手段

社會主義는 원래 資本主義에 대한 否定이며 社會改造의 주장이어서, 여기에는 目的과 手段의 두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目的을 1951年 7月의 "民主社會主義 宣言"은 (1) 自由 (2) 보다 나은 生活 (3) 社會正義 (4) 世界平和의 넷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것은 19世紀 초에 근세 社會主義思想이 발생한 이래 始終같이 추구해 온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目的을 實現하는 길을, 19世紀의 社會主義者들은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원리인 경제적 개인주의의 반대 - 즉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와 計劃經濟에서 구했던 것이며, 약 200가지에 달하는 모든 社會主義가 社會改造의 根本方法을 모두 여기서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실시되기만 하면 사회주의의 目的이 틀림 없이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이 지나쳐서, 사회주의를 곧 生産手段의 社会化로 오해하는 傾向을 낳게 되었으며, 이번에는 手段을 目的視하는 위험한 생각마저 나타나게 되었으니, 오늘날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社會主義의 뜻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다.

3. 共產主義의 用法의 批判

共產主義者들은 社會主義란 말을 심히 歪曲하여 쓰고 있다. 즉, 저들은 사회주의의 目的과 手段을 分離한 다음, 이 目的은 이른바 共產主義段階으로 밀어 두고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와 計劃經濟라는 수단만이 실시되고 있는 단계를 가리켜 社會主義라 부름으로써, 社會主義를 共產主義의 첫째 단계 또는 보따 낮은 단계로 바꾸어 말하면 社會主義가 共產主義의 一部分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主義란 말을 이와 같이 쓰는 것은 現實에도 맞지 않고 論理에도 어긋난다.

社會主義에는 空想派社會主義, 마르크스主義, 길드社會主義, 基督教社會主義, 講壇派社會主義, 웨이비안社會主義, 社會民主主義, 共產主義 등 약 200 가지에 이르고 있어서, 社會主義란 말은 이들 모든 종류를 통틀어서 가리키는 類概念이고, 共產主義란 말은 이들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種概念이다. 그러므로, 社會主義를 公산주의의 한 단계라고 말하는 저들의 용법은 類概念과 種概念의 完全한 顛倒로서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共產主義者들은 왜 이와 같은 反論理的인 用法을 쓰는가.

첫째로, 19世紀 이래, 社會主義를 자본주의 다음에 오게 될 한층 높은 社會 단계라고 여기는 생각이 一般化, 常識化되어 있으므로 저들의 社會 段階를 社會主義라고 부르면, 마치 資本主義보다 앞선 社會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資本主義보다 한층 높은 社會는 共產政權 下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資本主義가 한층 높은 관계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共產主義革命을 거쳐야만 되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社會主義란 말을 위와 같은 反論理的인 用法으로 씀으로써, 저들은 極히 교묘한 政治宣傳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共產主義를 社會主義란 말로 부를 필요가 있을 때는 그대로 社會主義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그것이 社會主義 가운데 한 종류란 사실을 나타내는 어떤 말 예컨대 불세비키란 말을 불혀서 불세비키社會主義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과 論理에 맞을 것이다.

4. 民主社會主義的 用法

19世紀 이래 나타난 수많은 종래의 社會主義에 있어서는,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와 計劃經濟가 社會改造의 根本的인 方法으로 되어 있었다.

이 제도만 실시하면 資本主義의 모든 病弊는 일소되어 社會主義의 目的은 틀림 없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며, 이와 같은 생각은 비단 社會主義者들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일반 知識人들 사이에도 많건 적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共產政權下에서 실지로 이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오늘의 共產主義社會의 現實은, 19世紀 초 이래의 이 믿음과 주장을 명백히 反證하고 있다. 그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自由가 없고, 인민의 生活은 共產黨의 정치적 야욕에 의하여 犧牲되고 있으며, 社會正義는 짓밟히고, 世界平和는 共產주의에 의하여 끊임 없이 위협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共產주의의 현실을 지켜 보아 온 많은 社會主義者들 사이에서, 종래의 社會改造 方法에 대한 심각한 反省과 批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니, 1951年 7월에 西獨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회동한 37개국 社會主義 政黨 代表들은 마침내 “民主社會主義의 目的과 任務”-이것은 흔히 “民主社會主義宣言” 또는 “프랑크푸르트宣言”이라고 불리운다-를 채택. 선언함으로써 여기에 새로운 또는 現代的 社會主義로서의 民主社會主義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오래 동안 잊혀졌던 社會主義의 目的을 再確認, 再闡明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社會主義者는…… 모두 하나의 目的 즉 社會正義, 보다 나은 生活, 自由와 世界平和를 위하여 노력한다.”

“公有의 여러 형태는 그 자체가 目的으로 看做될 것이 아니라..

手段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

social democracy
socialistic action

” 社会主義는 自由 속에서, 民主主義的인 手段에 의하여 새로운 社会를 建設하려고 노력한다. ”

” 自由 없이는 社会主義는 있을 수 없다. 社会主義는 民主主義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

” 民主社会主義는, 經濟的 社会的 安定과 증진하는 繁榮의 기초 위에 서서, 개인적 自由를 擴大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이와 같이, 社会主義란 말이, 여기서는 그 본래의 目的인 自由, 보다 나은 生活, 社会正義, 世界平和의 실현을 目的으로 하는 주장 및 운동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民主社会主義는 이 목적을 ” 自由 속에서 民主主義를 통해서 ” 실현하려고 하고 있어서, 公有 즉 生産手段의 社会的 所有는 하나의 수단, 그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 다시 말해서 ” 다른 수단에 의하여 經濟的 關係의 건전한 秩序가 유지되지 않을 ” 경우에만 ” 合目的的으로 되며 필요하게 되는 ” 최후의 수단으로서 限定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社会主義란 말의 用法에 대한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사실을 알게 된다. 즉, 社会主義란 말의 用法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경우가 있다.

(1) 生産手段의 社会的 所有와 計劃經濟를 수단으로 해서 自由와 繁榮, 社会正義와 世界平和를 실현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주장 및 운동을 뜻하는 古典的 用法

(2) 目的은 접어 두고, 生産手段의 社会的 所有와 計劃經濟라고

하는 수단만을 가리켜 부르는 共產主義者들의 일반적 용법 및 誤用되고 있는 常識的 용법

(3) 共產主義社會의 첫째 단계를 가리키는 저들 특유의 反論理學的, 政治宣傳的 용법

(4) 社會主義의 目的만을 가리키는 경우

(5) 民主社會主義的 용법, 즉 社會主義의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되, 이것을 民主主義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주장 및 운동을 가리키는 용법 (이것이, 오늘의 自由世界에 있어서, 하나의 一般的 用法으로 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社會主義란 말을 쓸 때, 우리는 이 말을 어떤 뜻으로 쓰는가를 明確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니, 만일 이 區別이 되지 않을 때는 理論의 展開에 混線을 빚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民主社會主義的 用法을 따르기로 하고, 어떤 한 종류의 社會主義를 가리킬 때는, 예컨대 基督教社會主義 웨이비안社會主義, 불세비키社會主義 등과 같이 반드시 限定된 뜻으로 쓰게 될 것이다.

第 3 節 現代 共產主義의 本質

社會主義를 共產主義의 첫째 또는 보다 낮은 단계라고 규정하는 共產主義者들은, 저들의 지금의 社會段階를 가리켜서 社會主義라고 부름으로써, 얼핏 듣기에는, 마치 저들 社會가 資本主義보다 한 걸음

앞선 사회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면 現實의 共產主義社會는 과연 資本主義社會보다 앞선 훌륭한 사회일까. 만일 아니라면 그것은 어떤 사회이며, 그렇게 되지 못하는 原因은 무엇일까.

1. 社會主義의 物質的 存在條件에 관한 마르크스의 理論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보다 한층 높은 사회를 社會主義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사회는 그것을 실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物質的 條件이 구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높은 生産力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의 社會組織은 生産力이 그 조직이 許容하는 한 발전한 다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滅亡하는 것이 아니며, 또 새로운 보다 높은 生産關係는, 그 物質的 存在條件이 낡은 社會의 母胎 안에서 孵化해 버릴 때까지는 결코 낡은 社會組織을 代替하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 經濟學批判 序言)

즉, 사적유물론에 따르면 “社會的 生産力의 增大가 결국에는 社會生活에 있어서 모든 變化의 根本原因이며 源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社會 組織이란 것은 그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데까지 生産力이 發展한 다음에야 滅亡하는 것이라고 하며, 또 다만 새로운 뿐만이 아니라 한층 높은 훌륭한 生産關係라고 하는 것은, 낡은 社會 안에서 生産力이 충분히 發展됨으로써 物質的 存在條件이 미리 갖추어진 다음에야만, 낡은 社會를

대치하고 現實의 생산관계로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낮은 사회의 내부에서 새로운 보다 높은, 生産關係가 실현되기에 必要하고도 충분한 生産力의 發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한층 높은 사회가 나타날 수 없다는 論理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明確하게 말하고 있다.

“富와 敎養이란 두가지 것은, 生産力의 偉大한 增大 그 高度의 發展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生産力의 發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또 하나의 絶對로 必要한 實踐的 前提이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生産力의 發展이 없다고 하면(社會主義는) 다만 欠乏이 一般化될 뿐이며, 따라서 또 窮乏에 수반해서 生活必需品을 얻기 위한 鬪爭이 또 다시 시작되며, 이리하여 모든 낮은 汚物이 되살아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도이체 .이데올로기)

즉, 富와 敎養 - 다시 말해서 社會主義의 生産 目的인 人민의 物質的 福祉와 文化水準의 向上은, 그 實踐的 前提條件인 生産力의 偉大한 增大가 이룩되어야만 하며, 이것은 絶對的 條件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이와 같은 實踐的 前提條件이 없는 기초 위에다가,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를 실시해 보았자가, 그 결과는 (1) 모두 가난해지고 (2) 生存鬪爭이 또다시 시작되며, (3) 모든 낮은 汚物 즉 모든 旧惡이 되살아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니 따라서 낮은 뒤떨어진 生産力 위에다가 다만 形式的으로 生産手段

의 所有形態만을 社会的所有로 해 보아야 그것으로써는 "보다 높은" 社会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現代共產主義의 理論

마르크스의 위와 같은 이론과는 달리, 오늘의 공산주의자들은, 生産力の 發展程度에 관계 없이 아무 데서나 革命을 일으켜서 그들이 政權을 잡기만 하면, 그것으로써 社会主義가 실현된다고 주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레닌은 한 나라에서 社会主義革命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革命 전의 러시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資本主義가 中間 정도의 發展水準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가르쳤다." (經濟學教科書)

"보다 앞선 여러 나라들에서 社会主義 建設의 勝利的 成果가 형성된 새로운 정세 하에서는, 經濟的 發展이 뒤떨어진 나라가 資本主義를 통과하지 않고도 社会主義로 移行할 수 있다." (같은 책)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은 다만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現實이 또한 그와 같이 되어 있다.

"社会主義 世界体系의 대다수 나라들은, 革命 전에는 工業 發展이 뒤떨어진 나라들이었다. 革命 전의 러시아는 주로 農業國이었다." (같은 책)

즉, 현실의 共產主義國家 가운데 어느 하나도, 자본주의보다 "한층 높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絶對로 必要的 物質的 存在条件 (즉 높은 生産力)을 갖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3. 現代共產主義의 本質

이상의 考察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알게된다.

첫째로, 앞에서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는 사회主義와 오늘의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그것과는 그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즉,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회主義는 그 實踐的 前提條件인 높은 生産力 위에 세워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본주의보다 한층 높은 사회인 데 반해서, 現代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사회主義는, 生産力の 발전 정도에는 관계 없이 다만 "형식적으로" 生産手段의 所有形態만을 社会的 所有로 하고 있는 社會를 가리키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마르크스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革命의 條件과 함께 그 결과로서 "한층 높은" 社會를 실현할 수 있는 條件까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데 반해서, 現代 共產主義者들의 관심은 오직 共產革命으로 政權을 잡는 데에만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는 사회主義는 말하자면 實質的 社會主義인 데 반해서 오늘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회主義의 本質은 形式的 社會主義라는 사실이다. 제임즈. 번햄이 "소련의 社會主義는 名目上的 社會主義"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뜻이다.

第 4 節 平和的移行論 批判

1. 平和的移行論의 主張

근세 공산주의 운동은, 그 발생 초기로부터 최근에 이르는

120餘年 동안 徹底한 暴力革命主義를 주장해 왔다.

“ 共產主義者들은 저들의 目的은 종래의 모든 社会制度를 暴力的으로 顛覆하는 方法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公公然하게 宣言한다. ” (共產黨宣言)

그런데, 1956年 2月 소련 共產黨 第20次大會에서, 흐루시초프는 平和的의 移行論을 내걸므로써 傳統的인 暴力革命論을 수정하였다.

그러면 平和的의 移行이란 무엇인가.

“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黨은, 될 수만 있는 일이라면 苦痛이 가장 적은 平和的의 形態로 移行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지, 언제나 또 어떤 경우에도 暴力과 內亂과 武裝蜂起와 가장 격렬한 形態에 의한 階級鬪爭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 (經濟學教科書)

“ 勞動者階級은…… 社會主義革命을 平和 속에서 實現하기 위한 必要한 條件을 만들 수가 있다. ” (소련 共產黨綱領)

2. 平和的의 移行論 批判

이 주장은, 얼핏 들기에는 暴力을 拋棄하는 것처럼 들리기가 쉽다.

그런데, 이것을 잘 검토해 보면, 이 주장을 내걸고 있는 바로 다음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을 볼 수가 있다.

“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黨은 革命을 平和的으로 실현하기에 有利한 條件을 만들어 내면서, 그와 동시에 그러한 조건이 없을 때는 非平和的인 方法에 의해서라도 革命의 勝利는 必然的이며 가능하다는 立場에 선다. ” (經濟學教科書)

此시문 = 2월 28일 84년 8월

즉, 여기서 말하는 平和的 方法이란 것은 共產主義에의 移行(즉 革命)을 위한 것인데, 이 革命이 平和的 方法으로 되지 않을 때는 非平和的 方法 즉 暴力을 써서라도 반드시 革命을 일으키고야 말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平和的 移行이란 것은 결코 暴力의 拋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暴力을 포함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暴力을 쓰지 않고도 革命을 일으킬 수 있을 때는 굳이 暴力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니, 말하자면, 저들의 平和的 移行이란 無血革命 또는 不戰勝을 피하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平和的 移行論의 北韓版이 곧 北韓 공산주의자들의 平和的 統一論이다.

따라서, 저들의 平和的 統一이란 것이 비록 글자로는 우리의 주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우리의 주장은 暴力을 完全히 排除한 平和的 方法으로 統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반하여, 저들의 주장은 暴力을 쓰지 않고도 共產統一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굳이 暴力을 쓰지 않겠다는 것 뿐인 것이다.

3. 平和觀과 戰爭觀

平和的 移行論 및 平和的 統一論과 관련하여, 공산주의자들의 平和

觀을 알아 보는 것은 問題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平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戰爭의 反對概念으로서 즉 戰爭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저들에 있어서는 이와 달라서, 平和는 資本主義가 抹殺된 상태를 뜻하고 있다. 왜냐 하면, 저들의 주장으로는 戰爭의 唯一한 原因은 資本主義라는 것이며, 따라서 자본주의가 存在하는 한 戰爭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 현대의 기본문제는 戰爭과 平和의 문제이다. 戰爭의 危險의 唯一의 源泉은 帝國主義이다. ” (소련 共產黨綱領)

“ 黨은 帝國主義가 存在하는 한 侵略戰爭의 危險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위와 같음)

“ 우리들이 一國에서 뿐만 아니라 全世界에서 부르좌지를 終局的으로 打倒하고 収奪한 뒤에 비로소 戰爭은 不可能하게 될 것이다. ” (레닌 : 프롤레타리아革命의 軍事綱領)

이와 같은 平和觀으로 부터, 이번에는 저들 특유의 戰爭觀이 이끌어 나오게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資本主義國家가 터뜨리는 戰爭은 侵略戰爭으로서 不正義의 戰爭이고, 저들이 資本主義를 타도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戰爭은 正義의 戰爭이라는 것이다.

“ 불세비키는 어떠한 戰爭이나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侵略戰爭과 帝國主義戰爭을 반대한 것이다. 불세비키는 戰爭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1) 正義의 戰爭

이것은…… 資本主義의 奴隸制로 부터 인민을 解放시키며, 또
혹은 帝國主義의 抑圧으로 부터 植民地나 隸屬國을 해방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戰爭이다.

(2) 不正義의 戰爭

이것은 侵略戰爭이어서, 他國과 他民族을 정복하고 노예화하려
는 戰爭이다. " (소련 共產黨史)

" 社會主義者는 社會主義者이기 를 그만 두지 않는 한, 모든 戰爭
에 反對할 수는 없다. 첫째로, 社會主義者는 일찌기 한번도 革命
戰爭의 反對者였던 일은 없으며, 또 결코 그럴 수도 없다. " (레
닌 : 프롤레타리아革命의 軍事綱領)

資本主義를 戰爭의 唯一한 原因으로 보는 平和觀과, 資本主義를
타도하려는 저들의 挑戰은 언제나 이것을 正義의 戰爭이라고 強弁
하는 이 戰爭觀 가운데에, 共產主義의 侵略性과 好戰性이 역력히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第 5 節 프롤레타리아獨裁論 批判

1.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의 主張

공산주의 革命으로 樹立되는 過渡期의 國家는 프롤레타리아아트
의 革命的 獨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공산주의자들은 이 독
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프롤레타리아独裁란, 社会主義와 共產主義의 건설을 目的으로 勞動階級이 실시하는 사회에 대한 国家的 指導이다. ” (政治經濟學 下卷)

“ 프롤레타리아独裁란 社会主義 建設의 과제가 完全히 해결되어, 共產主義의 全面的 建設에 移行할 때까지 勞動者階級이 실시하는 國家에 의한 社會의 指導를 말한다. ” (經濟學教科書)

“ 프롤레타리아아트의 独裁는 새로운 階級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아트의 階級鬭爭의 繼續이다. 이것이 核心이다. ” (레닌 : 独裁問題의 歷史에 부쳐서)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独裁를 대단히 重要視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프롤레타리아아트独裁에 관한 확설은 마르크스主義 가운데 있어서의 主要한 부분이다. ” (經濟學教科書)

“ 階級鬭爭의 是認을 프롤레타리아의 独裁의 시인에 擴大하는 者만이 마르크스主義者이다. ” (레닌 : 프롤레타리아革命과 背教者 카우츠키)

그러면, 이 独裁는 무엇 때문에 必要하다는 것인가.

“ 反抗하는 反革命勢力과 國際帝國主義 反動의 침해로 부터 革命의 戰取物을 守護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에게는 自기의 國家 主權이 必要하며 프롤레타리아独裁가 必要하다. ” (政治經濟學 下卷)

“ 우리는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独裁가 必要한가……. ”

부르주아지의 反抗을 粉碎하기 爲해서이다.

反動分子에게 恐怖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이다.

부르좌지에게 향하는 武装人民의 權威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프롤레타리아아트가 자기의 敵을 暴力的으로 压倒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 (레닌 : 搾取者와 被搾取者와의 平等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이 独裁가 다만 必要하다고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음과 같이 讚美하고 있다.

" 프롤레타리아아트의 独裁는 참된 民主主義이다. 프롤레타리아아트独裁는 勤勞者의 眞實한 利益을 나타내며, 그들의 民主主義的 諸權利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대중이 이들 權利를 행사하기 위한 物質的 可能性을 더욱더 擴大시켜 간다.

프롤레타리아独裁의 조건하에서 근로자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나라의 主人公으로 되는 것이다. " (經濟學教科書)

" 프롤레타리아独裁는 最高形態의 民主主義이다.

資本主義下에서의 민주주의는 資本主義的 民主主義이며, 다수의 被搾取者들을 抑壓하기 위한 少数 搾取者들의 民主主義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独裁下에서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的 民主主義이며, 少数 搾取者들을 抑壓하기 위한 多數 被搾取者들의 民主主義이다. "

(政治經濟學 下卷)

" 새로운 權力과 낡은 權力…… 후자는 인민에 대한 多數者인 勞動者, 農民에 대한 少数者의 權力機關이었다. 전자는 소수자에 대한 - 人民의 勞動者, 農民의 權力機關이다. " (레닌 : 独裁問題의 歷史에 부쳐서)

「 소비에트 권력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주아共和国 보다도 100萬倍나 민주주의적이다. 」 (레닌 :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2. 프롤레타리아独裁論 批判

프롤레타리아独裁論을 批判함에 있어서 우선 알아 보아야 할 것은, 이 独裁를 가리켜 부르는 민주주의란 말이 우리가 쓰고 있는 민주주의란 말과 같은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独裁와 兩立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問題를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서 独裁 또는 프롤레타리아独裁가 무엇인가를 알아 보기로 하자.

「 프롤레타리아아트의 革命的 独裁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暴力이다. 」
(레닌 : 프롤레타리아革命과 背教者 카우츠키)

「 独裁의 科学的인 概念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制限되지 않는 어떠한 法律에 의해서도 絶對로 拘束되지 않는, 직접 暴力에 立脚하는 權力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独裁의 概念은 이것 이외의 것을 뜻하지 않는 것이다. 」 (레닌 : 独裁問題의 歷史에 부쳐서)

「 無制限의, 法律에 의하지 않는, 가장 직접적인 意味에서의 힘에 立脚하는 權力 - 이것이 곧 独裁이다. 」 (위와 같음)

그렇다면, 法律에 입각하지 않고 직접 暴力에 입각하며, 어떤 法律에 의해서도 絶對로 拘束되거나 制限받지 않는 無制限의 權

力- 이런 권력을 民主主義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民主主義를 法에 의한 支配라고 해석하는 한 결코 民主主義일 수 없다.

그러면, 共產主義者들은 어떤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獨裁를 가리켜 "참된" "最高形態"의 民主主義라고 말하는가.

첫째로,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多數者의 支配, 多數者의 權力이기 때문에 民主主義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第6節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이 獨裁는 결코 多數者의 獨재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왜냐 하면, 저들의 주장으로는 이 獨재는 노동자와 농민의 권력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가장 수가 많은 농민은 한낱 "利用物"로서 규정될 뿐, 절대로 이 獨재의 主体勢力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로,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勤勞者의 絶실한 利益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民主主義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다음 第7節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勤勞大衆의 "切實한" 소망은 "物質的 福祉와 文化水準의 向上"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저들의 政權 유지와 世界赤化 야욕을 위하여 生産 目的을 軍備優先主義로 바꾸어 놓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인민의 생활 개선에 필요한 消費財 生産은 犧牲시켰으며, 共產黨式 搾取와 인민의 基本權 抹殺, 새로운 階級社會의 실현 등등에 의하여, 근로하는 사람들의 利益을 박탈·유린하고 있어서, 이들의 利益이란 점에서 보더라도 이른바 프롤레타리아獨裁는 獨재일 뿐 절

대로 民主主義일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獨裁는

- (1) 法에 의한 支配가 아니라 暴力에 의한 支配이고,
- (2) 多數者에 "의한" 獨재가 아니라 少數者의 獨재이며,
- (3) 근로대중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共産黨만을 위한 專制的 權力이기 때문에 民主主義가 아닌 것이다.

3.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共産黨의 立場

이른바 프롤레타리아獨裁는 우리의 民主主義와 絶대로 混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뜻에서, 自由民主主義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저들의 근본입장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民主主義라는 法律的·形式的 概念은, 부르주아의 支配를 隱蔽하고 대중을 欺瞞하기 위하여 부르주아에게 必要的 概念이다.”

(레닌 : 經濟分析을 병자한 부르주아에의 追從)

“民主主義란 말은, 共産黨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다만 科學的으로 옳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革命的 人民의 눈을 가리우고, 그들이 차유롭게 大胆하게 自主的으로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것을 妨害하고 있는 눈가리개, 革帶이다.” (레닌 : 우리 革命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아트의 任務)

“人民의 解放은 자신의 손에 의해서 밖에는 실현할 수가 없다. 國會는 그 障礙이므로, 지금 당장 그 一掃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明確 率直하게 말한다.” (스탈린 : 國會와 社會民主黨의 戰術)

“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制度를 미워하며, 그들이 民主共和制를 必要로 하는 것은, 힘을 모아서 부르주아制度를 打倒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스탈린 : 臨時革命政府와 社会民主党)

이것이, 西欧 民主主義에 대한 共産党的 근본 입장이며 評價이자 信條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저들의 근본 입장은 철저한 不信과 憎惡이며, 이것을 打倒하는 方便과 機會로 삼기 위해서만 民主主義가 필요하다는 것이니, 민주주의는 공산당과 양립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獨裁란 것은 어떤 뜻에서도 민주주의와 混同될 수 없음이 더 없이 명백하다 하겠다.

第 6 節 勞農同盟論 批判

발전 정도가 뒤떨어져 있는 사회일 수록 農民은 人구의 多數者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 農民問題를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농민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共産主義에 대한 評價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특히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 의의를 갖게 된다. 저들의 독재가 과연 多數者에 의한 지배냐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이 農民의 位置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 勞農同盟論의 主張

마르크스에서는 공산주의의 革命과 獨裁의 主体勢力은 오직

勞働者階級 뿐이라고 되어 있었다. (總論 第3節의 4)

그런데, 레닌 이후의 現代 共產主義者들은, 한편으로는 이 주장
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農民問題를
極히 중요시하여, 勞·農의 同盟을 가리켜서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最高의 原則"이라고 까지 강조하고 있다.

"勞働者階級과 農民의 同盟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最高의 原則
이다." (政治經濟學 下卷)

"이 同盟이 없으면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유지할 수도 없고 社
會主義를 건설할 수도 없다." (經濟學教科書)

"이러한 同盟이 없었으면, 10月革命은 승리할 수 없었을 것
이다." (소련 共產黨史)

"노동자계급이 새 社會의 創造者로서의 歷史的 使命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다만 非프롤레타리아 근로대중, 그 중에도 農民과
堅固한 同盟을 맺은 경우 뿐이다." (소련 共產黨綱領)

2. 勞動同盟論 批判

(1) 農民에 대한 根本的 差別

공산주의자들은 農民問題를 極히 중요시하여 말끝마다 "勞
働者·農民"을 내세우고 있어서, 마치 이들 두 계급이 同等한 待
遇를 받는 것처럼 생각되기가 쉽다.

그러나, 저들의 주장을 주의깊게 검토해 보면, 공산주의자들은
이들 農民에 대하여 처음부터 根本的인 差別을 두어 취급하고

① 반공란이 걸려있는 나라
②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나라
196-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프롤레타리아아트는 그 자신의 처지로 보아 가장 先進的이며 또 唯一하고 徹底한 革命的 階級이어서, 그 때문에 革命에 있어서의 指導的 役割을 해야 할 使命을 가지고 있다. ” (소련 共産黨史)

“ 민주주의 革命을 최후까지 수행하는 일은, 프롤레타리아아트가... 農民大衆을 이끌고, 農民의 自然發生的 鬪爭에..... 政治的 自覺을 부여한다는 조건하에서 프롤레타리아아트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 (스탈린 : 現情勢와 勞動黨의 統一期成大會)

한 마디로 말해서, 勞動者階級은 指導하는 계급이고, 農民은 그들의 지도를 받는 계급이라는 것이다.

(2) 農民은 利用物

革命性이 철저히도 못하다는 農民을, 그러면 무엇하자는 것인가.

“ 레닌主義의 基本問題 그 출발점은, 農民問題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아트의 獨裁의 문제이다. ... 농민문제는 프롤레타리아아트의 權力 獲得을 위한 鬪爭에 있어서 그 同盟軍의 문제로서 派生的인 문제이다. ... 레닌主義는 農民의 대다수 속에는 革命的 能力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능력을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위하여 利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레닌主義의 基礎에 대하여)

(3) 農民問題를 重要視하는 가장 큰 理由

農民이 革命的 能力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이들이 少數者였다면 것처럼 중요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人口 比例로 보아 農民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 農民問題는 革命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政治經濟學 下卷)

참고로, 1917年의 革命 당시, 러시아의 人口 比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勞動者 10 %
農 民 75 %
商 業 其他 15 %

다시 말해서, 革命에 있어서 農民問題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 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 農民은 믿을 수 없는 二重性格者

농민문제를 이처럼 중요시하고 있는 다른 한편에서는 이 農民은 믿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農民層을 충분히 튼튼하지 못한 同盟軍이라고 부르고, 資本主義的으로 發達한 나라들의 프롤레타리아트 만큼은 信賴할 수 없는 同盟軍이라고 부른 것을 諛君은 약간 憤慨하고 있다. ... 그러나, 나는 옳지 않을까요.” (스탈린 : 勞動者階級의 同盟軍으로서의 農民層에 대하여)

즉,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러시아의 農民은 외국의 프롤레타리아트 만큼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農民은 왜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

＊ 勞働階級은 무엇보다도 基本 農民 대중과 튼튼한 동맹을 맺어야 하며 그들을 領導하여야 한다. 농민을 영도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은 農民의 二重的 性格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農民의 二重的 性格이란 무엇인가.

그 하나는 勤勞者로서의 側面이며, 다른 하나는 私的所有者로서의 側面이다. 農民의 勤勞者로서의 側面은 農民들을 勞働階級の 陣에 따라오도록 하며, 小所有者로서의 측면은 資本家階級の 陣에 서게 한다. 따라서, 농민은 勞働階級과 資本家階級 사이에서 不斷히 動搖한다. 이 動搖性은 貧農에서는 비교적 적으며, 中農層에서는 보다 심하다. ＊ (政治經濟學 下卷)

＊ 부르주아지에 승리한 프롤레타리아아트는 그 農民政策의 다음과 같은 基本方針을 굽힘 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프롤레타리아아트는 勤勞 農民과 所有者인 농민과를 - 勞働 農民과 小商人인 농민을 - 일하는 농민과 投機者인 농민을 구별하여, 그 사이에 境界線을 긋지 않으면 안된다.

그 境界線을 긋는 일 가운데에, 社會主義의 全核心이 있다. ＊ (레닌 : 프롤레타리아아트獨裁의 時期에 있어서의 經濟와 政治)

즉, 농민은 二重的 性格者여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아트 사이를 끊임 없이 動搖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 農民을 利用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공산주의자로서는 이 두개의 性格을 언제나 구별하여 조심성 있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5) 農民을 利用하는 方法

농민을 利用하는 方法은 土地 分配를 약속하는 것이다.

“農民은 土地를 財産으로 받는 것, 沒收한 土地를 分配할 것
을 바라며, 이 토지가 자기의 재산으로 되는 것을 꿈에서 조차
도 꿈꾸고 있다.” (스탈린 : 農業問題)

“ 土地를 農民에게, 농민에게만 주어야, 그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주지 말라 라는 슬로오건은 農民을 激勵하고 농민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 넣으며, 시작된 農村의 革命運動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위와 같음)

그러므로, 농민을 격려하여 革命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
려면 불가불 土地 分配를 약속해야만 되는데, 그러나 土地라는
生産手段의 分配는 그의 社會化를 내걸고 있는 公産주의의 根本
政策과 矛盾되는 것으로서, 저들 자신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 黨이 革命의 부레이크로 되고 싶지 않다면, 黨은 農民의 위
와 같은 渴望의 실현에 協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갈망은 “土地의 公有化”와는 根本적으로 矛盾되는 것이다.” (위
와 같음)

그러면, 土地 分配에 의한 農民의 利用은 어떻게 進행되는가.

“ 모든 土地의 國有化를 실시하는 問題는, 各國의 具體的 條件
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權力이 해결한다. … 농민이 私的 土地所
有의 傳統을 강하게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권력을 잡은 노동자
계급은 모든 土地의 國有化는 안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大土地所有者의 토지의 일부만이 國유화되어 國有地로 되고..., 収用된 土地의 대부분은 농민의 私的所有로 된다. ... 국가가 근로농민에게 土地를 주어 利用시키고 또는 所有케 하는 것은, 勞働者階級과 農民의 同盟을 強化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후일에 가서, 農民經營의 社會主義的 社會化가 이루어진다. ”
(經濟學教科書)

즉, 농민을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土地 分配이므로, 政權을 잡은 공산당은 일단은 약속대로 토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아주 주어 버리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후일에 가서” — 즉 共產軍隊, 警察, 秘密警察, 細胞組織, 監獄 등 농민의 反抗을 粉碎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때에 가서 “社會化가 이루어진다” 즉 되 뻐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농민에 대한 공산당의 根本政策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으로 徹底히 計劃된 속임수란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 수가 있다.

第7節 生産目的論 批判

1. 生産目的論의 主張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生産目的은 “인민의 物質的 福祉와 文化水準의 向上”에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生産手段이 근로자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어떤 사회에서든지, 生産의 目的은 그 사회에서의 生産手段에 대한 所有關係에 의하여 규정된다.

生産手段이 자본가들의 私的所有로 되어 있는 資本主義下에서의 生産의 目的은 剩餘價值를 얻는 데 있다. 그러나, 生産수단이 社会的 社會主義的 所有로 되어 있는 社會주의 하에 있어서의 生産의 目的은, 전체 社會成員들의 부단히 장성하는 物質的 및 文化的 需要의 充足과 그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 있다. 왜냐 하면, 근로자들 자신이 生産수단의 所有者로 되어 있는 社會주의 사회에서는, 生産이 근로자들 자신의 生活 向上과 그들의 文化・技術水準의 提高에 服從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政治經濟學 下卷)

2. 生産目的論 批判

공산주의 경제의 生産 목적에 관한 저들의 주장은 極히 중요한 문제로서, 自由世界의 勤勞大衆과 知識層으로 하여금 왕왕히 공산주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고 있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文獻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면, 공산주의 경제의 現實의 生産 目的은, 저들의 주장과는 전혀 달리 強大的 軍事力의 確保에 있음을 알게 된다.

“ 그러면, 현시기의 우리 나라에서, 人民經濟 計劃化의 課業들은 무엇인가.

첫째로, 全的으로 지배하고 있는 社會主義的 生産關係를 더욱 鞏固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國家의 經濟的 自立性을 강화하며, 共和國 北半部의 革命 基地를 가일층 鞏固化하는 것이다.

세째로, 帝國主義者들이 軍비 경쟁을 강화하면서 社會주의 陣營 國家들을 반대하는 戰爭 挑發 圖策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특히 美帝가 南半部에 燈지를 쬐고 있는 조건 하에서 國家의 國防力을 強化하는 것이다. " (같은 책)

" 소련 共産黨은 社會主義 祖國의 방위, 소련 國防力의 強化, 소련 軍의 힘의 강화를, 당과 전 소련 人民의 神聖한 義務, 社會主義 國家의 가장 중요한 職務로 간주하고 있다. " (소련 共産黨綱領)

한 마디로 말해서, 公産주의 經濟學의 公式理論에서는 저들의 生産目的이 人民의 物質的 福祉와 文化水準의 向上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목적은 強大한 軍事力의 確保에로 전환 변질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로스토오教授가 " 外部 世界에 대한 소비에트 軍事力은, 國內 福祉보다도 優先的인 地位를 차지하고 있다. " 고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公産주의 經濟의 生産 目的은 왜 이와 같이 軍備優先主義를 追求하게 되는가.

첫째는, 共産政權의 守護인 바, 이것은 말하자면 消極的 目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積極的 目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共産政權의

本質的 任務인 革命 擴大를 위해서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여기서 다음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 生産手段의 私的所有가 廢止되었다고 해서, 이것 만으로
써 인민의 物質的 福祉와 文化水準의 向上을 위한 생산이 客觀
的으로 規定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生産手段이 社会的 所有로 되어 있는 사회에 있어서도, 그것을
實質적으로 支配하고 있는 主導勢力의 目的과 政策에 따라서, 얼
마든지 反人民的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 하나는, 社會主義가 본래 目的으로 삼아 온 인민의 物質的
福祉와 文化水準의 向上이란 것은, 이것을 진실로 추구하는 民主
的 勢力에 의해서 共産党的 支配가 廢止되거나, 아니면 저들 스
스로가 民主的 勢力으로 轉化되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는 사실이다.

第8節 貧困根絶論 批判

1. 貧困根絶論의 主張

이른바 社會주의적 生産양식론의 주장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
요한 것의 하나가 이 貧困根絶論이다.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자계급의 貧困의 原因은 生産手段의
私的所有에 기초한 자본가의 搾取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生産手段의 社會化는 搾取를 불가능하게 만들므로써 貧困을 근절 한다는 것이다.

“ 社會主義革命은 生産手段에 대한 私的 所有를 社會的所有로 교체하며, 사람이 사람을 搾取하는 制度를 없애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政治經濟學 下卷)

“ 農民經理를 社會주의적으로 改造함으로써, 오랜 세기를 두고 우리 農村에서 계속되어 온 搾取와 貧窮의 根源을 영원히 청산하였다. ” (같은 책)

“ 北半部에서는 가난과 失業이 영원한 과거 일로 되었다. ” (같은 책 上卷)

“ 콜호즈制度는 農村에서의 貧窮을 根絶했으니, 즉 數千萬의 貧農은 生活이 보장된 사람의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

2. 貧困根絶論 批判

(1) 共產主義社會에는 과연 가난이 없는가

가난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批判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世紀의인 証言을 들어서 사실 자체를 알아 보자.

“ 소련 및 그 밖의 共產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들이 大衆의 生活水準이 急速히 向上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이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變化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東歐羅巴의 從屬國에서는 生活水準은 도리어 惡化되기 까지 하였다. ” (밀로반 . 질라스 : 새로운 階級)

“ 나는 소련에 대하여, 無限의 進歩와 인류를 이끌고 갈만한

飛躍을 기대했던 것이다. ... 나는 소비에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고 있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안보기 위하여 소비에트에 왔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랴! 貧民이 있다. 아니 貧民은 많다. 너무도 많다. " (앙드레 . 지이드 : 소비에트旅行記)

" 소련에 있어서의 社會主義 建設은 極히 困難하였다. 소련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重工業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는 住民은 宏壯한 犧牲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소비에트國家는 이 기간에는 日常 消費物資의 生産을 制限하였으며, 實質賃金の 增大는 抑制되었다. " (經濟學敎書)

한 마디로 말해서,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貧困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 貧困의 一般의 決定的 原因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를 실시했는데도 가난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生産수단의 私的所有에 따른 搾取의 結果로 貧困이 생긴다는 저들 이론은 誤謬임이 분명해짐과 동시에, 가난의 一般的 및 決定的인 原因은 生産수단의 所有形態가 아닌 더 깊은 다른 데 있다는 것 역시 명백하다.

그런데, 앞에서 資本主義의 가난을 설명할 때는 가난의 원인이 生産手段의 私的所有에 따른 搾取에 있다고 말한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한편에서는 貧困의 原因을 낮은 生産力이라고 주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富와 敎養이란 두 가지 것은 生産力의 偉大한 增大 그 高度의 發展을 전제한다. … 이와 같은 生産力의 발전이 없이라면, (社會主義는) 다만 欠乏이 一般化될 뿐이다.” (마르크스 : 도이체 이데올로기)

“최근까지… 生産力은 極히 낮았기 때문에, 인류의 대다수는 힘든 일과 고통스런 生活을 해야 할 運命에 있었다. … 이리하여, 인간에 의한 人間의 搾取와 그에 따라서 積極的 自由가 少數者에게만 局限되었다는 것은, 다 함께 인간의 生産力의 水準이 낮았다는 데에 그 起源과 原因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포울 .스위지 : 社會主義)

(3) 貧困을 물리치는 길

貧困의 原因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이번에는 이 가난을 물리치는 방도에 대해서도 역시 두가지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다. 즉 資本主義의 가난을 없애는 길을 말할 때는 자본주의만 타도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저들이, 共產主義의 가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生産性を 높이는 도리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勞動에 따라서 分配될 財貨의 양의 增大는 生産性的 증대에 依存한다.” (經濟學教科書)

“社會主義下에서 實質賃金 長成의 가장 必要한 基礎로 되는 것은 先進 技術에 기초한 社會主義의 급속한 발전과, 勞動生産 能率의 장성이다.” (政治經濟學 下卷)

한 마디로 말해서, 生産力을 발전시켜서 生産性을 높여야만 그만큼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니, 이 말은 당연히 옳은 말이다.

그러면, 왜 資本主義의 가난을 말할 때는 제도 자체를 타도하라고 만성을 부리는가. 이것은 政治的 煽動 즉 革命의 선동인 것이니 革命의 道具로서의 共產主義 經濟學의 本質이 여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4) 共產主義社會의 貧困의 原因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 (가) 낮은 生産力
- (나) 生産 目的의 軍備優先主義에의 變質
- (다) 방대한 權力維持費
- (라) 지나친 政治宣傳費
- (마) 막대한 革命工作費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음 사실을 알게 된다.

“ 生産力의 進歩에서 기대되는 成果는 利潤의 廢止에서 나오는 成果에 비해서 決定的이다. ” (장 . 후라스케 : 生産性)

“ 社會적으로 蓄積된 剩餘의 私的所有를 廢止함으로써 당장에 얻어지는 經濟的 利益은 결코 얼핏 느껴지는 것만큼 큰 것이 아니다. ” (존 . 스트레이치 : 現代의 資本主義)

第9節 經濟發展論 批判

1. 經濟發展論의 主張

앞에서 본 貧困根絶論과 함께, 이른바 社會主義的 生産樣式論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또 하나는 經濟發展의 문제이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산주의의 경제는

- (1) 生産이 計劃的·均衡的으로 발전하고,
- (2) 效果的·合理的 經濟로서 나타나며,
- (3) 完全就業이 실현되고,
- (4) 노동자계급에 대한 搾取와 貧困은 根絶되며,
- (5) 生産과 生産性은 끊임 없이 급속히 발전하고,
- (6) 國際的으로는 경제발전 수준이 平準化된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그 근본적인 特殊性이라는 것이다.

“生産의 發展이 均衡잡혀 있다는 것, 끊임 없다는 것, 빠른 速度로 이루어진다는 것 - 이것이 社會主義經濟의 서로 연결되어 있는 根本的인 特殊性이며, 그와 동시에 社會主義經濟의 長点이다.” (經濟學教科書)

2. 經濟發展論 批判

(1) 計劃的·均衡的 經濟發展法則 批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共產主義의 근본적인 經濟政策은 重工業 優先主義이다.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이 完全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發展水準이 工業國의 수준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農業國을 工業國으로 바꾸는 일 즉 이들 국가의 社會主義的 工業化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 " (經濟學教科書)

" 工業化를 빠른 極히 緊張된 速度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소비에트聯邦의 발전의 對外的 조건과 對內的 조건에 의한 것이었다.

對外的 條件의 特徵이 되어 있던 것은, 敵意를 품은 資本主義의 包圍가 存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對內的 條件은 國內의 資本主義로 부터 그 基礎를 빼앗아야 할 必要 때문이었다. " (같은 책)

" 工業 가운데서 決定的인 役割을 하는 것은 生産手段 - 機械 . 設備 . 金屬 . 石炭 . 石油 . 建設用 資材 등을 생산하는 부문 즉 重工業이다. 社會主義的 工業化는 重工業과 그 中核인 機械製作工業을 가장 먼저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 (같은 책)

그렇다면 이것은 均衡的 발전이 아니라, 글자의 바른 뜻으로 計劃的인 "不均衡" 經濟이다.

그러면, 저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그리고 왜 均衡的 발전이라 하는가.

첫째로, 공산주의자들은 均衡이란 말의 뜻을 바꿔치고 있다. 저들이 말하는 均衡의 뜻은, 모든 부문이 같은 소도로 고르게 발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比率關係를 維持하고란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들에게 필요한 比率關係만 維持되

면, 각 부문의 속도에 아무리 차이가 있어도 그것을 均衡的 發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둘째로, 저들의 計劃的인 不均衡 經濟를 가리켜서 均衡的 發展이라고 둘러대는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 경제의 모든 부문이 重工業과 같은 速度로 빨리 발전한 것처럼, 그리하여 마치 저들의 經濟體制가 資本主義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훌륭한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서이다.

(2) 勞動生産性 發展論 批判

소련이 스스로의 勞動生産性を 美國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숫자를 발표하고 있다.

■ 概算해 보건대 1961년에 있어서의 소련의 勞動生産性 水準은 美國의 수준과 비교해서, 工業에 있어서는 2分の 1 내지 5分の 2, 農業은 1958 ~ 61년의 平均에 있어서 약 3分の 1이었다.■

(같은 책)

1961년이라면, 소련에 共產政權이 수립된지 약 45년으로 거의 半世紀가 흐른 시기인데, 重工業優先主義를 그렇게 強行했음에도 불구하고 生産性이 그렇게 뒤떨어져 있다면, 이것을 가리켜서 근본적인 특수성이니 長點이니, 하여 자랑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3) 不斷發展論 批判

공산주의의 경제는, 저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上向線을 더듬어서 끊임 없이 발전하는 것" 만은 아너란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

年 度	工業總生産	國民總生産
1953	11.7	
1954	13.3	
1955	12.1	
1956	11.0	
1957	10.0	
1958	10.0	8.5
1959	11.0	4.2
1960	9.9	4.9
1961	9.0	6.8
1962	9.8	4.3
1963	8.1	2.6
1964	7.1	

美国 上下兩院經濟合同委員會가 조사 발표한 위의 숫자는 소련의 經濟 成長率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뒤엎고 있다 할 것이다.

(4) 共產主義式 恐慌

공산주의자들은 주장하기를 "社會主義經濟는 恐慌으로 부터 解放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 점 역시 저들 경제의 장점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現實은 저들의 주장과 선전을 여기서도 反証하고 있다.

즉, 소련의 經濟學者 아가베 . 기안이 1964 年에 “푸라우다”에 실린 論文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한 일이 있다.

“ 팔리지 않아 썩고 있는 商品의 量이 西方側의 不景氣 때의 수준에 肉迫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돈이 있어도 品質이 나쁜 商品에 外面하고 있다. ”

즉, 總生産高에서 노르마에 이르는 數量本位의 指標에 의하여 생산되는 공산주의의 商品은, 책임량 달성에 쫓기는 나머지, 質이 粗惡하여 안팔림으로써 資本主義의 恐慌에 肉迫하는 말하자면 共產主義式 恐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1965 年 1 月 15 日 日本 “每日新聞”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964 年 한 해에 소련에서 衣類 한 부문에서만도 약 11 億弗에 달하는 滯貨가 있었다고 하니, 共產主義式 恐慌의 규모와 심각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5) 共產主義式 浪費

얼핏 생각하기에는, 공산주의 경제는 計劃經濟이니까 效果的이고 合理的인 것처럼 느껴지기가 쉽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否定的 証言을 말하고 있다.

“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支出의 水路에서, 그것을 浪費해 버린 다든가 할 염려가 있다. 資金을 合理的으로 節約해서 支出하는 手腕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도리어 온갖 資料는 이점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의 사정이 극히 향기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同志 諸君,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決議에 의해서도 隱蔽해 버릴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蓄積된 豫備를 直接 써버린 사실, 우리 國家機關의 많은 機關이 大食家란 사실, 도둑질하고 있는 사실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 따라서, 우리들의 蓄積을 浪費한다든지, 蕩盡한다든지, 不必要한 水路에로 가져가 버린다는지, 우리 工業의 建設의 基本線으로 부터 脫線시킨다든지 하는 일로부터 그 蓄積을 지킬 수 있는 일련의 措置를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工業計劃이 官僚主義的인 考案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國民經濟의 상태와 우리 나라의 資源 및 豫備의 계산과 관계 結合되어 입안되는 일이다. ...

우리들 가운데에는, 우리의 資源을 무시하고 空想的인 工業計劃을 수립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가끔 있다. ... 그것은 결국, 遠大한 計劃에 관해서 떠들어대고 數千數萬의 勞動者를 新規로 생산에 끌어 들이며 큰 騷亂을 일으키기는 하나, 후일에 가서 資金의 不足이 밝혀지게 되면, 노동자를 解雇하고 그들에게 돈을 支払해서 쉬게 하며, 建設事業에 失望을 가져오며 政治的인 騷亂을 일으키는 따위의 일을 뜻한다. ...

둘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 國家機構와 協同組合機構, 우리 人民委員部의 諸機關과 獨立採算 諸機關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縮少하고 簡素化하며, 싸게 먹히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行政機關의 膨脹된 定員과 比類가 없는 大食은 惡評을 사게 되었다.

레닌이, 勞働者와 農民은 우리 國家機構가 점점 돈이 더 많이 먹히게 되는 데 참지 못하게 될 것이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온갖 방법과 手段을 다해서 이것을 縮小하고 經費 節減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몇 10回 몇 100回나 강조한 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니다. ...

세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行政機關이나 우리들의 生活 속에 있는 온갖 종류의 奢侈라든가, 최근 우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國民의 富와 國家豫備의 犯罪的 取扱에 대해서 단호한 鬪爭을 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온갖 종류의 祝宴, 偉大한 集會, 記念祭, 記念碑의 除幕 등의 바보 같은 騷亂이라든가 狂宴이 성행되고 있다. 수萬 수십萬 루우불이란 돈이 이와 같은 事業에 浪費되고 있다. ... 무엇보다도 注目해야 할 일은, 非黨員인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國家資産에 대하여 黨員보다도 謹慎하는 태도가 가끔 눈에 띄인다는 사실이다. 共產黨員은 이런 경우에 더 大胆하고 果斷性 있게 행동하고 있다. ... 法律을 밟고 넘어간다는가, 그것을 뚫고 지나간다는가, 그것을 찢는다는가 하는 일은 그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非黨員 편이 이 경우 조심성 있고 덜 뻔뻔스럽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나 하면, 아마도 共產黨員은 때때로 法律이라든가 國家라든가 하는 것을 家事上의 事項으로 看做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웃음 소리)

그러기 때문이야 말로, 共產黨員 가운데에는 때때로 (同志 諸君, 이런

말투를 容怒해 주기 바란다) 돼지 처럼 匪家라는 菜園에 어슬렁 어슬렁 들어
와서, 거기서 掠奪하거나 匪家の 計算으로 자기의 인심을 자랑하거나 하고도
태연한 자가 있다. ...

베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둑질 이른바 明朗한 도둑질에 대해서 系統
的인 鬪爭을 실시하는 일이다.

사양하는, 사람의 눈을 피한 도둑도 있는가 하면, 新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明朗하고” 大胆한 도둑도 있다. ...

여기서 注目해야 할 일은 도둑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周圍에 있는 작자들이 도둑질한 사실을 알면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그의 빈틈없는 솜씨를 칭찬하기를 꺼려하
지 않으며, 그 때문에 도둑이 일반 대중의 눈에 일종의 英雄
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 이런 도둑놈은 우리 나라에
는 數百名 數千名이나 있다. ” (스탈린 : 레닌主義의 諸問題에
부쳐서)

(6) 經濟法則의 性格論

공산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經濟를 支配하는 法則
은 “客觀的인 性격을 띠고 있어서, 人間의 意志에 관계 없이
發生하고 作用하는 것... 즉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만들어 내거
나 改造하거나 廢止하거나 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 고찰한 바에 따르면, 現實의 共產主義經濟는, 生産
의 目的은 強大한 軍事力의 確保에로 變質되어 있고, 計劃的 不
均衡經濟로 나아가고 있으며, 共產主義式 浪費와 恐慌도 있고,

貧困은 根絶되지 않았으며, 生産과 生産性的의 발전은 저들의 선전만큼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共產主義 經濟法則의 “客觀性”과 “法則性”과 “必然性”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저들은 여기서 또 말의 뜻을 바꿔침으로써, 레닌의 “用語를 混亂시키라”는 戰術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즉 저들이 말하는 客觀性이란 “客觀的 情勢로 보아서”란 뜻이며, 必然과 法則이란 말은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뜻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社會主義下에서는 生産이 끊임 없이 증대하는 것은 客觀的 必然이다. 왜냐 하면, 그것 없이는 人민의 消費를 확실히 끊임없이 增大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經濟學教科書)

“국민 경제의 計劃性 있는 均衡잡힌 발전은 社會주의의 經濟法則이다. 이 法則은... 국민 경제의 모든 부문과 요소 사이의 均衡이 維持될 것을 要求한다.” (같은 책)

“이 장에서는, 社會主義 하에서의 人民經濟의 計劃的·均衡的 發展의 必然性과 人民經濟의 計劃的·均衡的 發展法則의 要求를 解明한다.” (政治經濟學 下卷)

“인민 경제의 計劃的·均衡的 發展法則이란... 인민 경제의 각 부분들 간이나 각 요소들 간에 均衡이 維持될 것을 要求하는 法則이다.” (같은 책)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 왜 이런 것을 하는가.

그것은, 共產主義制度 밑에서는 ‘틀림 없이’ 地上天國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革命을 煽動하기 위해서이다.

第 10 節 共 産 主 義 統 計 論

공산주의자들은 저들의 經濟 發展을 선전할 때 統計를 즐겨 쓰
고 있다.

그런데, 共産主義의 統計에는 獨特한 性格이 있어서,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極히 必要하게 된다.

1. 階級鬪爭의 道具로서의 統計

統計를, 客觀的 및 科學的인 연구 수단으로 보는 우리의 경우
와는 전혀 달리,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政治道具로서 보고 또 쓰
고 있다.

“統計가 階級鬪爭으로 부터 逸脫하지 않도록, 社會主義의 軌道
위에 올려 놓아라.” (1929年 11月 27日, 이즈베스차)

즉, 資本主義를 타도하려고 하는 공산당의 목표와 統計가 어긋나
서는 안되니, 共産主義가 자본주의보다 制度的으로 優越하다는 저들
의 주장에 맞추어서 統計를 작성·발표하라는 것이다.

2. 統計業務의 独占

階級鬪爭의 道具라는 본질로 부터, 이번에는 이 統計에 관한
業務가 共産黨에 의해서 철저히 独占된다고 하는 또 하나의 特性
이 나타난다.

즉, 저들의 政治的 目的과 宣傳的 必要에 맞추어서 통계를 작성,
발표하는 사정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통계에 관한 일을 独占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일단 발표한 數字에 대해서는 아무도 절대로 이것을 批判하지 못하도록 엄금하고 있다.

3. 百分率를 즐겨 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發展相을 선전함에 있어서, 實數보다도 百分率을 더 즐겨 쓰는 것이 또 하나의 特性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 방법에 의하면, 經濟의 發展 정도가 뒤떨어져 있는 사회의 경우일 수록 비교적 작은 발전도 크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기에 10과 50이라는 두개의 수가 있을 때, 50에는 8을 더해도 겨우 16%의 증가로서 나타나지만, 10에는 8의 4분의 1 즉 2만 보태어도 百分率로는 20%의 증가로서 나타나게 되므로,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그들은 그것을 즐겨 쓰고 있는 것이다.

第11節 社會主義優越論 批判

1. 社會主義優越論의 主張

공산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그들의 경제는 이른바 社會主義라고 하는 制度 자체의 장점으로 말미암아서 다음과 같은 優越性을 갖고 있다고 한다.

• 社会主義의 基本的 經濟法則으로 부터 생산이 끊임 없이 高速 度로 向上하는 必然性이 나온다. 생산의 발전이 均衡잡혀 있다는 것과 끊임 없다는 것과, 그리고 빠른 速度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社会主義經濟의 서로 연결되어 있는 根本적인 特殊性이며, 그와 동시에 社會주의 經濟의 長点이다. • (經濟學教科書)

그러나 第9節의 高찰을 통해서 볼 때, 重工業 부문만이 어느 정도 빨리 발전했을 뿐, 이 주장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 즉 저들의 重工業이 어느 정도 빨리 발전하게 된 것은 그 제도의 우월성 때문인가 - 이렇게 바꾸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社会主義優越論 批判

공산주의의 重工業을 發展시키는 데 뚜렷이 관계 있는 原因과 政策들을 우선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豊富한 資源

• 소련은 온갖 資源을 갖고 있다. • (經濟學教科書)

(2) 重工業優先主義 政策의 強行

• 社会主義的 工業化는 重工業과 그 中核인 機械製作工業을 가장 먼저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 (같은 책)

(3) 근로대중에 대한 貧困의 強要

• 소련에 있어서의 社会主義 建設은 極히 困難하였다. 소련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重工業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는, 住民은 宏狀한 犧牲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소비에트國家는 이 기간에는 日常 消費物資의 생산도 制限하였으며, 노동계급의 증대하는 욕망도 채워줄 수 없었으며, 實質賃金の 증대는 抑制되었다. * (같은 책)

(4) 資本主義의 技術的成果 利用

* 새 企業의 건설과 既存 企業의 개조는, 世界의 近代技術의 成果를 大規模로 利用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졌다. * (같은 책)

(5) 勞動力의 搾取와 酷使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서, “노르마”制度的 惡用, 土曜勞動運動, 스타하노브運動, 社會主義競爭, 千里馬運動, 二重千里馬運動 등 수 많은 종류의 운동들이 그것인 바, 北韓의 경우 이런 운동이 120餘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도 強制勞動制度가 가장 惡名 높은 방법이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強制勞動은 그 경제조직에 대하여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

(民主社會主義宣言 前文)

(6) 科學과 技術의 計劃的 開發 및 利用

* 소비에트同盟의 經濟的 發展은, 이것과 平行하는 科學의 飛躍的 發展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 (장·브류아 : 소비에트聯邦史)

이상 여섯 가지가, 공산주의의 重工業 發展에 관계 깊은 原因. 政策들의 아마도 전부일 것이다.

그러면, 이 중에 공산주의 經濟制度의 長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가 알아 보자.

생각컨대, (1) 豊富한 資源과 (4) 資本主義 技術의 利用은 저들 경제 제도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다음으로 (6)의 科學技術의 개발 및 이용은 원래가 資本主義의 技術을 "大規模로 利用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것이 공산주의의 경제제도와 떼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또, 農業과 輕工業의 희생을 뜻하는 重工業優先主義의 강행과 노동력의 혹사는 저들의 경제 제도가 아니라 그 政治制度 즉 獨裁制度에 直接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면, 근로대중에 대한 貧困의 強要는 어떤가. 이것이야 말로, 공산주의의 經濟制度와 直接 관계되고 있는 유일한 것이다. 즉, 社會化된 生産手段을 共産黨이 支配하는 바로 이 제도 때문에 저들은 軍備優先主義를 위한 徹底한 擄取政策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이니, 그 결과 근로대중은 數10年の 긴 세월을 혹심한 가난과 고통에서 허덕여 온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본 長点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共産黨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근로대중에 대해서는 혹심한 가난과 고통을 주는 이 제도가 優越性으로서 평가된다는 바로 여기에 共産黨의 反人民的 立場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第12節 리베르만方式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生産手段의 社会的所有를 絶對視하는 公산주의적 社会改造의 방법은 이른바 “地上天国”을 결코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견해를 현실의 實踐으로써 확인해 주는 政策이 저들 사회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바, 다름 아닌 리베르만方式이다.

1. 리베르만方式이란 무엇인가

리베르만方式이란 소련 하리코프技術經濟大學의 經濟學 教授 에 세브세이 . 리베르만이, 1962年 9月 9日字 . 소련共産黨 機關紙 푸라우다에 발표한 “計劃 . 利潤 . 프리미엄”이란 제목의 論文에 유래하는 것으로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무리 理想的으로 조립된 指標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안된다. 문제는 지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企業과 國民經濟와의 存在方式에 있는 것이다. ... 어떤 지표라도, 위로부터 할당하는 方法으로 企業에 強制되는 한 반드시 도망칠 구멍이 있다.

그렇지 않고, 企業이 企業 자체에 있어서 가장 適合한 指標의 配合를 만들어서, 需要者가 眞정으로 必要로 하는 가장 좋은 제품을 最大의 収益性을 올리면서 生産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總生産高란 종래의 지표를 利潤으로 바꾸고 企業의 活動을

自由化하라는 것이다.

2. 리베르만論文이 나오기까지

공산주의의 中央集權的 計劃制度와 그 경제에, 尙한 欠點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의 是正策에 대한 논의가 이미 1950年代 초에 있었으나 아직은 學究의 正論에 그쳤었다.

1959年에 美國의 資本主義經濟를 直接 視察한 흐루시초프는, 다음 해에 調查團을 美國에 보내어 그 活氣의 原因을 究明케 하는 한편 소련經濟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던 바, 공산주의의 計劃制度, 企業의 經營方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再檢討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리하여, 黨論이 분분하게 되고 甲論乙駁이 난무하게 되자, 1962年 3月의 소련共産黨 中央委員會에서 흐루시초프는 " 必要하다면 資本家로 부터라도 배우겠다 "는 歷史的 發言으로 肯定的인 原則을 제시했던 것이니, 리베르만論文이 푸라우다에 실리게 된 것은 그로부터 半年 뒤의 일이다.

3. 리베르만方式의 實驗

리베르만의 論文을 실리면서, 푸라우다의 編輯局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이 논문에는, 重要的인 原則的인 문제가 提起되어 있다. 푸라우다 編輯局은 이들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인정하고, 經濟學

者나 공장, 計劃機關, 經濟機關의 担当者가 논문 필자의 구체적인 제안에 대하여 意見을 陳述하도록 호소한다. ”

이 논문의 발표로 論争은 한층더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소련政府는 1964년에 두개의 被服工場을 골라서 이것을 實驗하였던 바, 소련의 國家經濟諮問委員會는 이 결과에 대하여 “그 工場들이 이 방식의 實質性을 證明하였다” 고 평가하였다.

(4) 리베르만方式의 實施

1965年 9월에 열린 소련共産党 中央委員會는, 다음 해에 착수될 第8次 5個年計劃에서 이 방식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 “이 改革의 결과는 소련經濟를 위하여 潤滑油가 되고, 消費者들에게 惠沢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런데, 1967年 3月の 美國議會 合同經濟委員會 報告는 “리베르만의 利潤制度를 출발점으로 소련經濟는 活力을 되찾고 있다” 고 말함으로써 소련의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5) 리베르만方式의 意義

리베르만方式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重要한 事實을 말해주고 있다.

첫째로, 공산주의의 經濟的 理論, 制度, 政策, 現實에는 저들의 公式理論과는 전혀 달리 決定的인 欠陥이 있다는 것, 따라서 絶對的 眞理性을 주장해 온 이른바 社會主義的 生産樣式論은 거짓이란 사실이 저들 자신의 현실 政策에 의하여 폭로되고 있다.

둘째로, 공산주의의 경제학이 지금도 非難해 마지 않고 있는 資

資本主義의 制度와 現實 가운데에는, 저들의 이론바 資本主義的 生産樣式論과는 전혀 달리, 공산주의의 경제가 도리어 배워 가지 않으면 안될 만큼 훌륭한 일면의 長點이 있다는 사실을 리베르만 方式은 是認하고 있다.

세 제로, 또 하나의 의의를 굳이 찾아 본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자들 자신의 証言에 주로 의거하여 진행된 우리의 批判이 正當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라 하겠다.

第 13 節 共產主義社會의 透視圖와 그 評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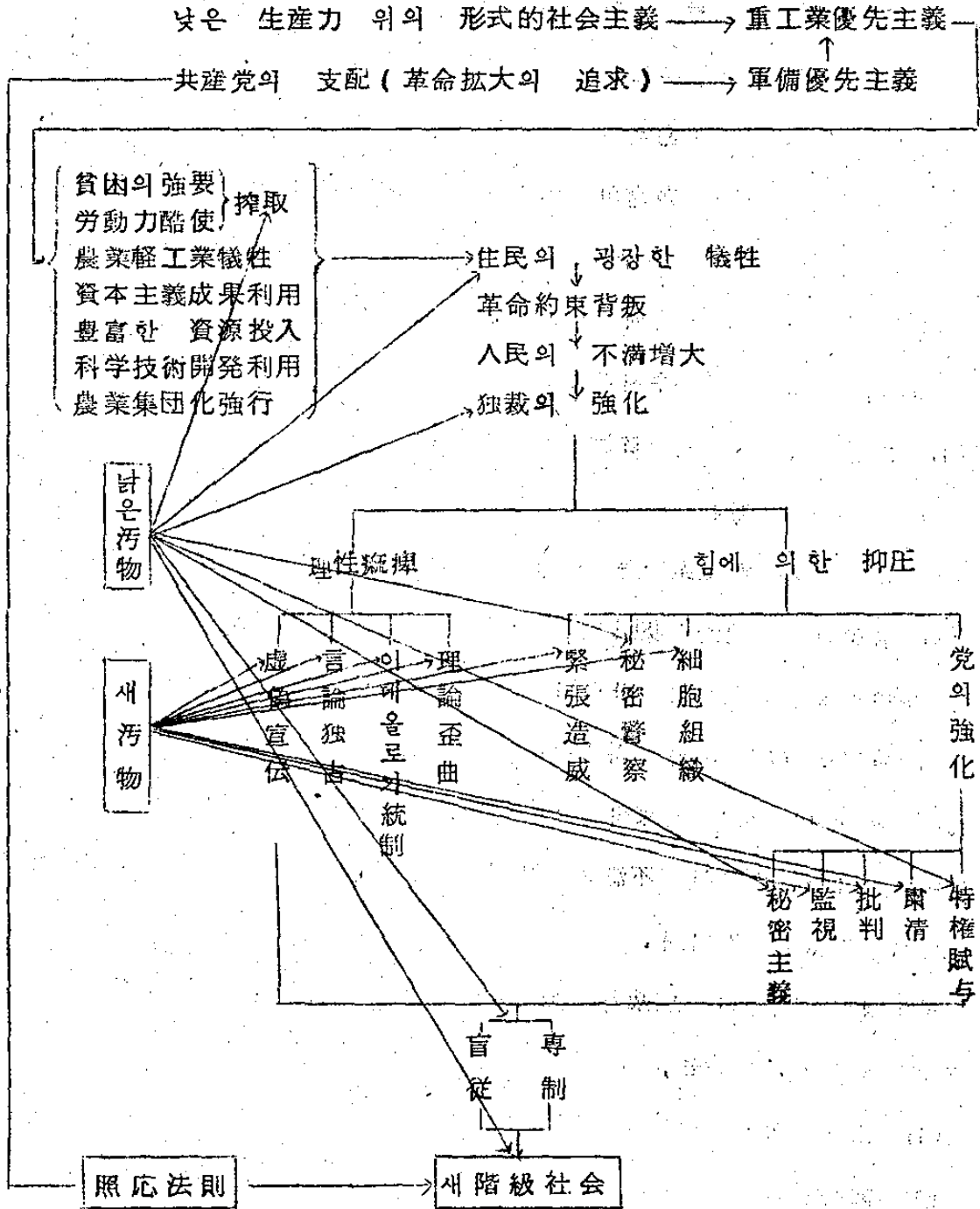
1. 共產主義社會의 透視圖

序論 4~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共產主義 批判은 '더 나은 代案'의 제시로 공산주의자들을 이기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러기에 이 장의 비판에 있어서도 그 때마다 비판된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代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共產主義는 斷片的 理論의 단순한 모듬이 아니라 하나의 綜合的 體系이므로, 우리의 대안 역시 단편적인 부분에 그쳐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분적 대안을 엮어서 하나의 體系로 조직하는 일이 이제 우리의 과제로 될 것인 바, 이와 같은 작업의 결과로 우리는 現實의 共產主義社會를 다음 그림과 같이 透視할 수 있다.

共產主義社會의 透視圖



이 透視圖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말해 주고 있다.

오늘의 共產主義社會를 모든 면에서 가장 根本적으로 制約하고 있는 것은 낮은 生産力(物質的 또는 客觀的 條件)과 共產黨의 支配(主體的 條件) 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이다.

이리하여 職業的 革命家의 집단인 公산당이 政權을 잡은 다음, 저들 정권의 守護와 革命의 擴大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生産의 目的을 軍備優先主義로 바꾸고, 다시 이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重工業 優先主義 政策을 강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한 방법이란 것이

- (1) 근로대중에 대한 貧困의 強要
- (2) 勞動力의 酷使,
- (3) 農業 및 輕工業 등 部門의 犧牲
- (4) 農業의 強制的 集團化 등—한 마디로 “住民에 대하여 宏壯한 犧牲”을 강요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희생의 강요는 “地上天國”의 실현을 내걸고 있는 저들의 革命 約束에 대한 徹底한 背反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니, 人民의 不滿은 커지게 되어, 共產黨은 여기에 獨裁의 強化로 맞섰던 것이다.

公산당이 저들의 獨裁를 強化하는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 (1) 黨의 強化
- (2) 細胞組織

(3) 秘密警察

(4) 緊張 造成 등을 통한 힘에 의한 抑圧이고, 다른 하나는, ① 理論 歪曲, ② 이데올로기 統制, ③ 言論 独占, ④ 조직적인 虛偽 宣傳 등을 통한 '理性的 癡癡'이다.

바꾸어 말하면, 独裁의 強化란 것은 "直接 暴力에 의거하는 (共産党的) 無制限의 權力"에 대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盲目的으로 服從할 것을 강요하는 것 이외의 아무 다른 것도 아닌 것이니, 이리하여 공산당이 非黨員인 인민 대중을 전 근대적 身分的으로 支配하는 새로운 階級社会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지금 透視圖에 나타나 있는 共産主義社会를 살펴 보면, 搾取, 住民의 犠牲, 独裁, 少数者에 대한 特權의 부여, 정치에 있어서의 秘密主義, 專制的 지배와 盲目的 복종 그리고 階級社会 등은 帝政 러시아 때에도 있었고 해방 전의 日帝治下 北韓에도 있었던 旧惡으로서 마르크스의 말로는 '낮은 汚物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오늘의 共産主義社会에는, 마르크스가 미처 내다보지 못했고 또 帝政 러시아에도 없었던 새로운 惡들 - 말하자면 새로운 汚物들이 나타나 있는 바, 週期的인 숙청, 自己批判, 細胞組織, 緊張 造成, 理論 歪曲, 이데올로기 統制, 言論 独占, 組織적인 虛偽宣傳 등이 그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오늘의 共産主義社会란 '낮은 汚物'과 '새 汚物'이 겹쳐진 사회로서, 이와 같은 현실의 根本原因은 낮은 生産力에 대한 共産党的 支配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된다.

첫째로, 낮은 生産力 위에다가, 生産手段의 所有形態만을 社会的 所有로 해 놓고 이것을 共産黨이 지배하는 한, 그것이 소련이든 中共이든 北韓이든 또 다른 어디서든 현실의 共産主義社会和 대동 소이한 사회로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共産政權의 지배가 계속되고 共産黨의 本質에 변화가 없 는 한, 아무리 生産力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그 사회의 質的 改造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生産力의 발전과 함께, 共産黨의 支配가 民主的勢力에 의 하여 교체되거나 아니면 공산당 자체가 民主化되거나 했을 경우에 비로소 共産主義社会는 質的으로 달라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 실이다.

2. 共産主義社会에 대한 評價

(1) 共産主義의 政治

공산주의의 정치는 "直接 暴力에 의거하는 無制限의 權力" 의 지배로서 곧 전 근대적 정치이며,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하 루 빨리 民主主義를 争取하는 일이라 할 것이니, 근년 소련을 비롯하여 여러 공산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知性人들의 反体制運動 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共産主義의 經濟

生産手段의 所有形態만이 社会的 所有로 되어 있을뿐, "美國을

따라잡고 앞지르자"는 소련의 口號, "英國을 따라잡고 앞지르자"는 中共의 구호, "日本을 따라잡고 앞지르자"는 北韓의 구호가 말해주듯이, 實質的으로는 資本主義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3) 共產主義의 社會

한 마디로 말해서, 暴力이 지배하는 새로운 階級社會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共產主義가 政權을 掌握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自由와 自由를 획득할 機會은 破壞되고 있다. 公산주의는 軍國主義的 官僚制度와 恐怖警察制度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富와 特權에 뚜렷한 差別이 있는 새로운 階級社會를 完成하였다. ” (民主社會主義宣言)

第 14 節 創造의 法則과 共產黨의 本質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의 공산주의 사회는 前 近代의인 새로운 階級社會이다.

그러면, "社會의 全成員이 완전한 平等을 누리는 階級 없는 사회"의 건설을 내걸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실지로는 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일부분의 설명은, 마르크스에 의하여 社會主義의 物質的 存在條件에 관한 이론으로서 이미 주어져 있다. (第 3 節) 그러나, 그는 이론바 '낡은 汚物'에 대해서는 言及하고 있으나 "새 汚物"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명이 이제 우리의 과제로 된다.

1. 創造에 있어서의 照應法則

藝術 活動과 人間의 社會 및 歷史의 건설을 포함하는 모든 創造에는 하나의 客觀的 法則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創造者 (作者)는 제 本質을 따서 창조함으로써 작품 속에 작자를 投影하고, 被造物 (作品)은 제 속에, 작자의 本質을 反映함으로써 작자를 닮아 나오는 것 - 照應法則 - 이 곧 그것이다.

예컨대 자신의 모습을 따서 人間을 창조했다는 神의 경우로 부터 그림, 彫刻, 글씨, 音樂, 文學 등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마찬가지여서, "글은 곧 作者"란 말이 이것을 端的으로 보여 주고 있는 바, 이 이치는 人間社會의 創造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

"부르주아지는 부르주아式으로 社會生活의 온갖 면을 만들어 냈다."
(레닌 :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左翼小兒病)

"부르주아지는 자기의 形相을 따서 世界를 創造한다." (共產黨宣言)

"그들이 조직한 社會는, 共產黨의 活動을 위하여 주로 레닌이 創造한 조직의 形式과 觀念을 전체 國家와 국민에게 反映시킨 것이라 하겠다." (로스토오 : 소비에트社會史)

물론, 社會를 창조한 자 즉 主導勢力과 社會秩序 사이의 이 照應關係는, 資本主義의 경우에 있어서나 封建社會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시간과 범위를 좁혀서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科學者의 社會는 과학자를 닮고, 市場의 生理는 상인을 닮으며, 監獄의 秩序는 罪囚를 닮게 된다.

그렇다면, 共產主義社會란 다름 아닌 共產黨의 作品일진대, 오늘의 共產주의 社會가 前 近代적인 새로운 階級社會로서 나타나게 된 원인 역시, 共產黨의 本質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2. 戰鬪的組織의 原理와 共產主義社會

第2章 第1節에서 본 바와 같이, 共產黨의 本質은 하나의 戰鬪的 組織 즉 군대식 조직이다.

그런데, 모든 戰鬪的 組織은 "差別", "服從", "團結" (또는 全體主義)을 그 原理로 하고 있다. 왜냐 하면, 戰鬪的 組織의 생명은 바로 단결인데, 이것은 명령에 대한 복종에서 얻어지고, 복종은 身分的 差別이 엄한 곳에서 비로소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戰鬪的 組織으로서의 共產黨은 差別, 服從, 團結을 그 原理로 삼고 있는 조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된다.

첫째로, 共產黨의 組織 原理는 전 근대적 사회인 封建社會의 그것과 상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封建社會란 것은 그 社會의 主導勢力인 武士階級 (즉 戰鬪的 組織)이 자신의 원리인 차별, 복종, 단결을 본따서 만든 사회인데, 오늘의 共產黨 역시 하나의 戰鬪的 組織으로서 같은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共產黨의 組織 原理는 民主主義와는 정면으로 모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민주주의는 "平等", "自由", "個人主義"를 그 원리로 하고 있는 데 대하여, 共産党的 원리인 差別은 平等을, 服從은 自由를, 全体主義는 個人主義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한 平等"과 "階級 없는 사회"의 건설을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공산주의 사회가 전 근대적인 階級社会 즉 反民主的 사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사회의 主導勢力인 共産党的 本質과 原理에 대한 照應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다.

네째로, 共産党的 支配가 民主的 勢力에 의하여 교체되거나 공산당 자체가 民主化되지 않는 한 共産主義社会的 民主化는 바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섯째로, 우리의 反共이란 근본적으로는 共産党的 支配에 대한 拒否를 뜻한다는 사실이다.

여섯째로, 이른바 科學的社會主義라는 마르크스主義의 二大支柱가 모두 代置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엥겔스에 따르면, "社會主義는 唯物史觀과 剩餘價值論의 발전으로 과학이 되었다"는 것인데, 剩餘價值論은 第4章 第3節에서, 그리고 土台의 規定性을 주장하는 唯物史觀은 지금 여기서 代置되었기 때문이다.

第15節 生産手段의 社會化를 왜 絶對視하는가

공산주의자들은, "主要한 生産手段의 社會化는 어떤 나라에서나 社會主義로 移行하는 必須條件" 이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을 絶對視

하고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종래의 사회주의자들도 아무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저들은 이것을 왜 이처럼 절대시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대답하기를, "生産手段에 대한 私的所有를 그대로 두고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搾取를 종국적으로 清算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福利를 증진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社會主義的 生産樣式論에 대한 이상의 전체 비판을 통해서 볼 때, 공산주의자들의 그와 같은 주장은 실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다. 生産 目的의 變質, 貧困의 강요, 勞動力의 酷使 등 사실이 저들의 주장을 強力히 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政策을 현실로 追求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生産手段의 社會化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야 말로, 공산주의자들의 政治的인 목적이 숨겨져 있다.

첫째로, 革命으로 타도된 부르주아지를 결정적으로 無力化하기 위해서이다.

"社會主義的 國有化는… 부르주아지의 經濟力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그 經濟的 支配를 絶滅한다. … 부르주아지는 權力과 주요한 生産手段을 잃어 버리면 이미 社會의 基本的 階級의 하나가 아니다."

(經濟學教科書)

둘째로, 軍備優先主義의 反人民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즉, 저들의 첫째 生産 目的은 強大한 軍事力의 確保로 變質되어 있어서, 이것을 달성하려면 重工業이 있어야 하고, 이 중공업을 건설하려면 莫大한 資金과 資源이 必要한데, 이에 대한 動員力을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生産手段에 대한 당의 完全한 支配가 必要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째로, 공산 정권의 獨裁를 極大化하기 위해서이다.

“ 社会主義的 固有化에 의하여 프롤레타리아獨裁는 확고한 經濟的 土臺를 갖추게 되며, 政治的으로 뿐만 아니라 經濟的으로도 사회를 영도할 수 있게 된다. ” (政治經濟學 下卷)

레닌이 “ 사람을 統制하려면 목구멍 통제부터 하라 ” 고 한 말이 곧 그것으로서, 이리하여 共産黨의 獨裁 밑에서는 生産手段의 社會化가 生産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인민 대중에 대한 철저한 獨裁의 道具에로 轉落되고 있는 것이다.

第 16 節 理論의 二重의 構造

地上天國을 약속, 선전하고 있는 이른바 社会主義的 生産樣式論에 대한 이상의 考察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의 理論과 主張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뚜렷한 特徵을 알아 낼 수 있으니, 그것은 저들의 주장이 二重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다.

즉, 공산주의자들은 한편에서는 國際的 階級主義를 堅持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民族이란 말을 즐겨 입에 올리고, 平和를 내세우면서 暴力을 시인하고 있으며, 直接 暴力에 의거하는 無制限의 權力을 강조

하면서 이것을 民主主義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生産手段의 社會化를 絶對視 하면서 土地 分配를 농민에게 약속하고 있으며, 인민의 物質的 福祉와 文化水準의 向上을 위하여 생산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로는 軍備優先主義를 앞세우고 있으며, 重工業優先主義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이것을 均衡的 發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搾取와 隸屬을 없애기 위해서 生産手段을 社會化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실지에 있어서는 저들의 一黨獨裁를 極大化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惡用하고 있다.

그러기에, 朱鯨文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共産黨이 政權을 잡은 다음에 낸 宣言, 文章, 法律制度는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다. 내가 赤色政權에 參加한 다음 수년 후 이 政權의 本質을 이해한 뒤에 생각한 것인데, 만일 지금으로부터 100年 뒤에 우리들의 子孫이 오직 文獻에 의해서만 이 時代를 觀察한다면, 정말로 天國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現實은 이 아름다운 文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朱鯨文：共産政權下の 中國)

한 마디로 말해서, 社會主義的 生産樣式論은 名分과 실지, 公式理論과 현실의 二重的構造로 만들어짐으로써, 철저하고도 조직적인 虛偽의 體系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의 거짓을 알아내기가 힘이 드는 까닭은 무엇인가.

“ 共産主義의 虛偽性을 把握하기가 힘이 드는 主要 原因은, 그러

한 거짓말이 지나치게 심할 뿐만 아니라, 끊임 없이 이러한 方法에 呼訴하고 있기 때문에, 共產主義者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어떤 사람이 라도, 그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이처럼 끊임 없이 할 수 있으리라고 는 믿기 어려운 데에 있다. * (共產主義批判全書)

그러면, 그들의 社会改造論은 왜 二重으로 되어 있으며, 또 왜 그처럼 끊임 없는 거짓말을 일삼는가.

그 이유는, 낮은 生産力 위에 세워진 그들의 形式的社會主義의 현실을 사실대로 인정했다가는, 전 세계의 公産化는 고사하고 그들의 政權 維持마저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에 있어서는 거짓말은 안할 수 없는 宿命이며 國家的 事業으로서, 이것을 共產主義者의 價值觀 - 즉 階級鬭爭에 도움이 되는 것을 善, 眞理로 생각하는 이 그릇된 가치관이 뒷받침함으로써, 사태를 한층 惡化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第 17 節 共產主義段階論 批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 저들 사회의 현실을 놓고서도 "그처럼 엄청난 거짓말을 그처럼 끊임 없이" 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와 같은 거짓말은 宿命的인 國家的 事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일진대, 요원한 未來에 관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共產主義段階論이 근본적으로 科學的 批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첫째로, 공산주의는 "사회의 全成員이 完全한 사회적 平等을 누리는 階級 없는 사회제도" 라는 주장은, 戰鬪的, 反民主的 組織인 共産党的 支配가 民主的 勢力에 의하여 廢止, 교체되거나, 아니면 共産党 자체가 民主化되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다.

둘째로, 공산주의의 生産 目的이 "사회의 끊임 없는 進歩를 보장하고, 사회의 모든 成員에 대하여 그 增大해 가고 있는 欲求, 個人的 關心 및 趣向에 따라서 物質的, 文化的 福祉를 제공하는 것" 이라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전 세계의 共産化와 強大한 軍事力의 확보를 위하여 인민에게 "宏壯한 犠牲" 을 강요하고 있는 共産党的 支配가 民主的 勢力에 의하여 廢止, 교체되거나, 아니면 共産党 자체가 民主的 勢力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저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목적의 생산은 생각할 수도 없다.

셋째로, "慾望에 따른 共産主義的 分配 原則에 이행하는 결과, 強制的 기관으로서 國家의 必要性이 없어질 것" 이라는 주장은,

(1) 國家는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할 惡이라고 가정함으로써 非現實的이고,

(2) 國家에 의한 強制的 必要性은 근본적으로는 人間의 不完全性 그 자체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不足한 生産에로 단순화하여 귀속시키고 있어서 지나치게 安易하다는 批判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네째로, "만일 어떤 나라에서의 共産主義에의 移行이, 帝國主義

陣營이 存在하는 政界 밑에서 이루어지고... 戰爭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國防과 나라의 安全을 保障하기 위하여 國家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주장은, (1) 國家의 存在理由를 "不足한 生産" 이외에서 구함으로써 제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2) "武裝鬪爭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하여" 전 세계의 公産化를 추구하는 共産主義야말로 戰爭의 첫째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은 平和에 대한 위협의 責任을 資本主義에게 轉嫁하여 발뺌을 하고 있다.

다섯째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社會를 위한 勞働이 모든 자에게 있어서 第1義的인 生活上의 欲求로 된다"는 주장은, 勞働者階級이 主導勢力으로 되어 있는 한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欲求는 본질적으로 生活水準의 向上과 함께 勞働時間을 短縮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勞働時間의 短縮이 아니라 勞働이 第1義的인 生活上의 欲求로 될 수 있는 것은, 勞働者階級이 아니라 創造的인 技術者, 科學者, 發明家들이 실질적으로 主導하는 社會가 아니면 안된다. 왜냐하면, 에이취.지.웰즈의 말과 같이 "眞摯한 科學者에게는 必然的인 脫俗性이 있어서, 그는 研究로써 돈벌이를 할 計劃 같은 것은 하지를 않고, 자기의 研究에만 熱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 단계론은 그것을 실현하기에 필요한 理論과 方法을 提示하지 못함으로써, 마치 마르크스 이전의 社會主義가 그러했던 것처럼 空想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